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文學碩士 學位論文

『說文通訓定聲』 古音 체계 연구

2019年 8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李 在 赫

『說文通訓定聲』 古音 체계 연구

指導敎授 李 康 齊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5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李 在 赫

李在赫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9年 7月

委 員 長 이 명 주 (印)

副委員長 이 옥 주 (印)

委 員 이 강 재 (印)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청대 주준성의 저작인 『설문통훈정성(說文通訓定聲)』의 체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준성이 구상했던 상고음의 체계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통훈정성』은 문자・훈고・성운이 결합된 종합적인 저작이다. 설문학의 맥락 안에서 『설문통훈정성』은, 『설문해자』의 본의 해설을 활용하고,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인신의・가차의・별의를 밝혔으며, 고운 운부에 따라 항목을 재배열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존의 연구는 이 중 훈고의 측면인 '통훈'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리의 측면인 '정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준성이 「자서(自敘)」에서 밝혔듯이, 이 책의 집필 의도에는 성운학적 고려가 십분 반영되어있다. 본고는 이에 체례 분석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체례에 반영된 주준성의 상고음을 분석하였다.

『설문통훈정성』의 체례는 다음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설문통훈정성』은 『설문해자』의 구성방식인 형태 요소에 근거한 540개의 부를 해체하고, 18개의 운부로 모든 글자를 새로이 엮었다. 둘째, 『설문통훈정성』에서 인접한 운부들 사이에는 음전(音轉)의 관계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압운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셋째, 『설문통훈정성』의 각 운부 안의 글자들은 동일한 소리 요소를 공유하는 '모(母)'로 그룹화 되어있다. 넷째, 『설문통훈정성』에서 각 모들은 유사한 성모를 지닌 것끼리 모여 있는 경향성이 있다.

체례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설문통훈정성』은 입성의 처리에 있어서 당시 존재하던 두 입장의 절충적인 위치에 있다. 둘째, 『설문통훈정성』은 직접적으로 음성과 양성을 대응시키지는 않았지만, 각 부 머리의 주석을 통해 그 대응관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셋째, 주준성은 知계 성모와 章계 성모를 유사하다 여겼으며, 精계 성모와 莊계 성모를 유사하다 여겼는데, 이는 전대흔 및 황간과 학술사적으

로 연관이 있는 것이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설문통훈정성』의 '정성' 부분에 대한 부족한 연구를 보충하고, 상고음 연구사에 있어서 주준성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해 줄 것이다.

학번: 2017-22177

주요어:『설문통훈정성』, 주준성, 체례, 설문학, 고음학, 상고음

〈목 차〉

【국문초록】 ····· i

1. 서론 ····· 1

1.1. 문제 제기 ····· 1
1.2. 선행 연구 ····· 6
1.3. 논의의 구성 ····· 11

2. 『설문통훈정성』과 학술사적 배경 ····· 13

2.1. 설문학 ····· 13
2.2. 고음학 ····· 20

3. 『설문통훈정성』의 체례 ····· 23

3.1. 부(部)와 분부(分部) ····· 24
3.2. 모(母) ····· 28
3.3. 표제자 ····· 35
3.3.1. 표제자의 귀속 ····· 35
3.3.2. 표제자의 해설 ····· 38

4. 『설문통훈정성』의 고음 체계 ····· 42

4.1. 운부 ····· 42
4.2. 모와 성모 ····· 54

5. 결론 ····· 65

【참고문헌】 ····· 67

[부록 1]『說文通訓定聲』「自敍」譯注 ····· 70

[부록 2] 모(母) 별 반절, 독음 및 낱자 수 ····· 96

【中文摘要】 ····· 132

〈표 차례〉

<표 1.1> 중국 대륙 내 선행연구 ····· 7
<표 2.1> 역대 주요 설문학자 및 공헌 ····· 19
<표 3.1> 부의 명칭과 괘명 ····· 25
<표 3.2> 부와 분부의 분포 ····· 26
<표 3.3> 부와 분부의 모 분포 ····· 31
<표 3.4> ‘乃’모 표제자의 상고음 재구음 ····· 32
<표 3.5> ‘豐’부 소속 모의 성모 ····· 33
<표 3.6> ‘公’과 ‘容’의 소전 자형 ····· 34
<표 3.7> 부 및 분부 별 표제자 개수 ····· 36
<표 3.8> ‘父’와 ‘甫’의 소전 자형 ····· 37
<표 3.9> ‘東’ 및 파생자의 소전 자형 ····· 38
<표 4.1> ‘豐’부의 압운 관계 ····· 46
<표 4.2> ‘豐’부의 압운 그룹 ····· 46
<표 4.3> 학자 별 분운 현황(이재돈 2007:277-278) ····· 48
<표 4.4> 부와 분부의 분포 및 대응관계 ····· 49
<표 4.5> 상고음 운부(王力 1963[2013]:155) ····· 50
<표 4.6>『설문통훈정성』부와 분부의 대응 관계 ····· 51
<표 4.7> ‘冬’과 ‘東’의 압운 관계 ····· 53
<표 4.8> 중고음 성모 ····· 55
<표 4.9> ‘豐’부의 성모 그룹 ····· 56
<표 4.10> ‘豐’부의 구간 별 성모 배열 ····· 57
<표 4.11> 주준성의 성모 그룹 ····· 58
<표 4.12> ‘臨’부 ‘習’분부의 성모 그룹 ····· 59
<표 4.13> ‘乾’부의 성모 그룹 ····· 63

〈그림 차례〉

<그림 2.1> ‘爲’의 갑골문 (『甲骨文合集』 2953正) ····· 15
<그림 3.1> ‘東’母의 계층구조 (柯明傑 2008) ····· 37

1. 서론

1.1. 문제 제기

전통적으로 중국의 문자인 한자(漢字)는 형(形)・음(音)・의(義)의 세 가지 요소로 분석된다. 이 중 한자의 형태를 연구하는 분야는 문자학이고, 한자의 소리를 연구하는 분야는 성운학이며, 뜻을 연구하는 분야는 훈고학으로 칭해진다. 이 세 분야는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언어・문자에 대한 전통 학문을 총체적으로 소학(小學)이라 부른다.

중국어를 기록하는 시각적 부호를 연구하는 문자학은 동한(東漢)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그 본격적인 시작을 열었다. 허신은 그 당시에 이미 주류 자형이 아니었던 소전(小篆)을 해설하여 각 글자의 본의와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중국어의 소리를 연구하는 성운학은 한역불경의 유입이 단초가 되어서 운서(韻書)의 성립으로 그 기틀이 잡혔다. 불교의 유입은 곧 중국티베트어족인 중국어와 인도유럽어족인 산스크리트어의 언어 접촉으로, 외래어 표기의 수요는 한자의 소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두 개의 상용한자로 다른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는 반절(反切)법 역시 산스크리트어와의 접촉에서 영향을 받아 생긴 것이다. 운서는 함께 압운할 수 있는 글자들을 분류해 놓은 서적으로, 편찬 시기의 음운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후대인에게는 이전의 말소리를 추적하는 귀중한 실마리이다.

훈고학은 옛 말을 해석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다.[1] 훈고학은 텍스트의 뜻을 독자와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며, 『이아(爾雅)』를 그 시조로 한다.[2]

---

1) 郭在貽(2005:1).

2) 胡奇光(1987[1997]:85).

언어와 문자는 부단히 변화하는 동태적 과정에 처해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영어의 경우 철자가 정착된 이후 모음의 음가가 큰 변혁을 거쳐(Great Vowel Shift) 오늘날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 오늘날 통용되는 라틴 자모도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각 단계는 명확한 형태상의 차이를 보인다.

중국에서 이러한 동태성을 주목한 최초의 언급은 남북조시대 안지추(顔之推)의『안씨가훈(顔氏家訓)』「음사편(音辭篇)」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古今言語, 時俗不同.
> 옛날과 오늘날의 말은 때와 관습에 따라 다르다.

명대 진제(陳第)는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여『모시고음고(毛詩古音考)』자서(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蓋時有古今, 地有南北, 字有更革, 音有轉移.
> 무릇 시간에는 옛날과 오늘날이 있고, 땅에는 남과 북이 있고, 글자에는 바뀜이 있으며, 소리에는 옮김이 있다.

한자의 경우에도 갑골문・금문에서 소전과 예서를 거쳐 해서가 탄생하기까지 큰 변화를 겪었다. 발음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예컨대 현대 중국어는 입파삼성(入派三聲)을 겪은 결과 파열음 운미가 소실되었다. 하나의 형태소에 부여된 의미가 변화하기도 하였는데, 단어의 범위나 어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睡'는 '앉아서 졸다'라는 뜻이었으나, 현대 중국어에서는 '자다'라는 뜻으로 확장되었다.[3)]

이러한 변화 가능성의 인식은 언어의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3) 郭錫良 外(1981[2012,2016]:48).

것이었으며, 청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 패러다임 아래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자학은 결국 옛 글자를 오늘날의 사람들이 해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며, 성운학은 글자의 옛 소리와 그 체계를 밝히는 학문이며, 훈고학은 옛 글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다. 요컨대 이 소학의 세 분야는 고금을 잇는 교량으로 기능했다 할 수 있다.

이 세 분야는 각각 고립되어 있지 않고, 종종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다. 옛 소리에 대한 연구는 『시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옛 문자의 해독, 특히 초(楚)나라 계통 문자의 해독은 소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미에 대한 연구도 소리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로 인해 나타난 것이 성훈(聲訓)을 비롯한 인성구의(因聲求義)의 예들이다.

청대의 학자 주준성(朱駿聲)은 단옥재(段玉裁), 왕균(王筠), 계복(桂馥)과 함께 설문사대가로 칭해진다. 이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설문해자』로, 각각은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 이 중 주준성의 저작인 『설문통훈정성(說文通訓定聲)』은 비교적 특이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제목에서 보이듯 이 책은 '설문'으로 대표되는 문자학, '통훈'으로 대표되는 훈고학, '정성'으로 대표되는 성운학이 결합되어있는 사례이다. 이 저작은 『설문해자』의 소전을 자형의 표준으로 삼고, 경전에 보이는 단어들을 풀이하였으며, 형성자의 원리에 따라 각 한자의 소리를 정하였다. 다시 말해 이 저작은 문자학・성운학・훈고학을 망라하는 종합적・통섭적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설문통훈정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다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국내에서는 박홍수(1995)를 비롯하여 몇몇 연구만이 개괄적인 내용을 다룰 뿐이며, 국외에서도 관련 연구는 박홍수(1994[2006])와 柯明傑(2008)가 비교적 전면적인 내용을 다룰 뿐, 많은 편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여러 분야에 걸쳐있다. 『설문통훈정성』은 한자의 세 요소인 형・음・의를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세부 분야의 전문가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분량이 많다. 『설문통훈정성』은 총 18권으로 되어있으며, 수록된 한자도 『설문해자』에 수

록된 수보다 많다. 게다가 『설문해자』의 해설에 많은 자료를 덧붙였기에 그 분량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설문학의 궤도에서 한 발 비껴있다. 설문학 연구에서는 설문사대가 중 단옥재의 『설문해자주』가 많이 연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단옥재의 저작이 『설문해자』에 대한 직접적 연구이기 때문이다. 반면 『설문통훈정성』의 경우 『설문해자』가 이루지 못한 부분에 집중하였으며, 『설문해자』 자체에 대한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설문통훈정성』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통훈'의 측면에 집중되어있으며 '정성'의 측면에서 이 저작을 바라본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실제로 『설문통훈정성』은 훈고학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었다. 박홍수(1994[2006])의 논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도 어휘의미론[詞義] 부분이다. 王力(1981[2013]:125)는 이 저작에서 '통훈'이 가장 다채롭고 중요한 부분이라 평하였으며, 胡奇光(1987[1997]:393)도 '통훈'이 이 저작의 '정화(精華)'라고 하였다. 물론 이들의 평가는 타당하며, 실제로 『설문통훈정성』의 어휘의미론적 공헌은 매우 크다. 둘째, 『설문통훈정성』은 일반적으로 설문학의 맥락에서 조명되어왔다. 『설문통훈정성』은 『설문해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그 저자인 주준성은 설문사대가로 칭해져왔다. 이러한 평가 역시 타당하나, 『설문통훈정성』의 통섭적인 성격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셋째, 『설문통훈정성』은 직접적 성운학 저작이 아니다. 비록 『설문통훈정성』이 음운의 문제를 건드리기는 하나, 저작 자체의 복합적 성격 때문에 성운학사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의 측면에서 이 책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도 그에 못지않다. 『설문통훈정성』의 「자서(自敘)」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4)]

4)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하라.

(1) 들어가는 말
(2) 글자의 몸으로 하나의 소리를 정하는 것
(3) 경서의 운으로 무리의 소리를 정하는 것
(4) 통전의 이치에 따라 본래 소리와 변한 소리를 정하는 것
① 동음(同音)인 것
② 첩운(疊韻)인 것
③ 쌍성(雙聲)인 것
(5) 나오는 말

이를 통해 볼 때, 주준성 본인이 특히 소리의 측면에 있어서 여러 층차로 나누어 사유했음을 알 수 있으며, 『설문통훈정성』의 집필목적이 '소리를 정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서」의 다음 기술은 특기할 만하다.

> 部標十八, 派以析而支以分;
> 母列一千, 聲爲經而義爲緯.
> 부(部)를 열여덟 개 세우고, 지류와 줄기로 나누었다.
> 모(母)를 일천 개 세우고, 소리를 날줄로, 뜻을 씨줄로 하였다.

날줄과 씨줄은 직물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불가분한 존재이다. 따라서 그의 『설문통훈정성』을 소리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은 이 저작을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설문통훈정성』의 전면적 이해는 중국소학사의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본고는 이에 소리의 측면에서 『설문통훈정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설문해자』 연구의 맥락 속에서 『설문통훈정성』의 위치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 『설문해자』 연구 저작 중에서 소리의 측면이 정면으로 다루어진 『설문통훈정성』을 부각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설문통훈정성』의 체례를 살펴볼 것이다. 『설문해자』와 『설문통훈정성』의 주된 차이점 중 하나는 표제자의 배열 방식이다. 『설문해자』가 한자의 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편성되었다면, 『설문통훈정성』은 한자의 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편성되었다.

그러므로 체례를 살펴보는 것은 『설문통훈정성』과 소리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설문통훈정성』에 반영된 주준성의 고음 체계를 분석할 것이다. 운부(韻部)나 성부(聲符) 연구에 치중된 기존 연구와 달리, 본고는 성모와 운모를 모두 다룰 것이다. 주준성이 「자서」에서 첩운은 물론이고 쌍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성모의 연구는 이 저작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청대 학술사에 있어서 『설문통훈정성』이 지니는 위치를 명확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2. 선행 연구

『설문통훈정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개괄적 연구
② 학술사적 연구
③ 어휘의미론적 연구
④ 성운학적 연구
⑤ 기타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대륙에서 출판된 『설문통훈정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59건[5]이다. 이들을 키워드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5) 이 수치는 中国知网에서 제공되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의 수이며, 단행본 형태의 연구성과를 제외한 수치이다.

분류	논문 수	주요 키워드
개괄	6	-
문자학일반	6	文字分化, 同形字, 俗字
설문학(사)	5	『說文解字』, 『說文解字注』, 說文四大家, 說文學, 六書
성운학	6	韻部, 聲符, 古音, 古韻
어휘의미론	29	語義, 詞義, 同源詞, 同族詞, 右文說, 引伸, 假借, 通假, 轉注, 別義
기타	7	索引, 數目, 改訂
합계	59	-

〈표 1.1〉 중국 대륙 내 선행연구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설문통훈정성』에 대한 연구는 어휘의미론적 측면에 49.15%가 집중되어 있다. 『설문통훈정성』을 소리의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는 전체의 10.17%로 비교적 소수에 속한다.

아래에서는 『설문통훈정성』에 대한 선행연구 중 학술사적 연구, 개괄적 연구, 성운학적 연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중국소학사 혹은 중국언어학사에 있어서 『설문통훈정성』에 대한 기술로는 王力(1981[2013])와 胡奇光(1987[1997])을 꼽을 수 있다.

王力(1981[2013]:125-133)는 문자・성운・훈고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던 시기 『설문해자』 연구의 맥락에서 주준성을 조명하였다. 그는 『설문통훈정성』에서 '설문'은 『설문해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내용을 보충하고 예시를 든 것이며, '통훈'은 전주와 가차이고, '정성'은 문자를 고운(古韻)에 따라 배열한 것이라 하였다. 그의 평가에 의하면 이 책의 가장 큰 공헌은 단어의 뜻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王力는 이러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 저작의 단점을 세 가지 지적하였는데, '가차'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한 것, '전주'・'가차'・'별의'・'성훈'의 경계가 모호한 것, 『설문해자』의 내용을 수정함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뽑았다.

胡奇光(1987[1997]:391-397)은 『설문통훈정성』이 "'정성'을 기초로 하고 '설

문'을 기점으로 삼았으며, '통훈'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또한 '전주'와 '가차'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고 하였으며, 특히 '가차'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저작의 의의에 대해서 胡奇光은 胡適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 그 책의 체례와 방법은 모두 이전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우월하다. 체례상으로는 성음과 훈고의 변천 및 파생을 나타낸 자전이면서 독창적인 견해가 있는 사서이며, 방법상으로는 '전주'와 '가차'를 특히 중시하여 훈고의 변천과 형성자의 변이원칙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주준성이 음을 통해 의미를 구할 때에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주준성을 단옥재보다 아래로 평가하였다.

『설문통훈정성』 자체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로는 박홍수(1994[2006])와 柯明傑(2008)를 꼽을 수 있다.

박홍수(1994[2006])는 교감(校勘)・의미[詞義]・체례(體例)의 세 측면에서 『설문통훈정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우선 작자 주준성의 생애와 논저를 정리하고, 또한 역대 설문학의 흐름을 서술하였다. 본론에서 그는 『설문해자』에 대한 주준성의 교감 내역을 먼저 다루면서 육서설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박홍수는 본의・인신의・가차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문통훈정성』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예들을 들었다. 체례편에서 그는 주준성이 세운 고운 18부와 1137개 성모(聲母)[6] 및 주준성의 고금 음변화관을 서술하고, 우문설과 동원자의 측면에서 체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휘의미론적 접근에 중점을 두었기에, 체례에 있어서는 단순한 현상의 기술에서 그쳐 그 뒤에 반영된 기제에 대해 충분히 논하지 않았다. 또한 소리에 있어서는 주준성의 운부를 『광운(廣韻)』의 운부나 王力가 재구한

6) 박홍수(1994[2006])의 성모(聲母)는 각 형성자들의 소리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운모(韻母)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 요소를 본고에서는 '모(母)'라고 표현할 것이다.

상고음 운부에 대응시키는 데에 머무르고 있다.

柯明傑(2008)는『설문통훈정성』의 편찬과 체례를 먼저 다루고,『설문통훈정성』이『설문해자』를 고친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였다. 또한『설문통훈정성』의 자형・자의 해설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주준성 특유의 전주설과 가차설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 柯明傑(2008)는 박홍수(1994[2006])에서 한 발 나아가 체례의 계층구조를 분석하는 등의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어휘의미론적 측면에서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러나 그는 18개 부에 대한 단순한 언급 외에는 소리의 측면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설문통훈정성』의 주된 요소 중 하나인 '定聲'을 중시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저작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리의 측면에서『설문통훈정성』을 연구한 예로는 汪少华(1989), 杨淑丽(2008), 王素敏(2010), 柳苗苗(2013), 董国华(2014), 牛夢倩(2018)을 들 수 있다.

汪少华(1989)는 고운 연구사의 맥락에서 주준성을 바라보아, 그의 고운(古韻) 연구에 있어서의 공헌을 정리하였으며,『설문통훈정성』이 단순히 여타 학설을 답습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신중한 태도로 밝혀낸 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설문통훈정성』을 청대에 나온 가장 완성도 높은 해성(諧聲) 체계이자 고운 운서라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주준성이 '緝'・'盍'・'眞' 부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하고, '祭'・'月' 부를 확립하여 이전 학설의 미진함을 보충하였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준성이 입성 운부를 분리시켜 입성 독립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汪少华(1989)의 연구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우선 다른 연구들처럼 그는『설문통훈정성』의 운부에만 주목하였으며, 성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 그가 주준성의 공적으로 언급한 부분에는 아직 모든 학자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입성의 분리는 대진에 의해서 먼저 시도된 것이며, 오히려 주준성은 입성을 서성에 종속시킬 것인지에 대해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에, 입성 독립의 선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준성이 고운 연구에 있어서 공헌한 바를 이야기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으

로 그가 후대 학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거나 반박되었는지는 논하지 않고 주준성의 새로운 주장에만 주목하였다.

杨淑丽(2008)는 『설문통훈정성』의 형성자 성부(聲符)[7] 연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우선 『설문통훈정성』에 나타난 성부 체계와 운부 귀속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주준성이 표시한 평수운(平水韻) 및 통시·공시적 측면에서 성부의 음 표시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성부의 어원 표시 기능을 연구하였다. 이는 운부의 연구에서 벗어나 성부 자체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논했다는 데에서 큰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의 주된 논의 중 하나인 '음 표시 기능'은 『설문통훈정성』 고유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형성자 자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王素敏(2010)은 주준성의 전음(轉音) 이론과 고운 운부 설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는 우선 주준성의 전음 이론을 구체적 예를 들어 분석하고, 뒤이어 주준성과 단옥재의 고운 운부 설정을 비교하였다. 그는 전산처리를 활용하여 대량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많은 경우 자료의 단순 나열에서 그치고 있으며, 심화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주준성의 전음 이론을 단옥재의 합운 이론과 비교하였으나, 오히려 그 스스로 이 두 이론이 실질적으로 같음을 밝히며, 주준성이 단옥재의 이론을 어떻게 활용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심화하였는지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다.

柳苗苗(2013)는 '工' 성부의 의미 표시 기능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이는 성부 연구라는 영역의 각론에 해당하는 연구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工' 계열 형성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소리와 의미의 복합적 연관관계에 대하여 다루었다. 다만 각론적인 연구의 성격상 전체적인 체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董国华(2014)는 송대에서 청대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해성(諧聲) 및 고음 연구사를 정리하여, 그 맥락 안에서의 『설문통훈정성』에 대하여 다

7) 본고의 제3장에서는 '모(母)'라는 용어로 칭할 것이다.

루었다. 그는 학술사의 흐름 안에서의『설문통훈정성』의 지위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으나, 연구의 성격상 개별 학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여, 주준성의 경우에도 운부 설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牛夢倩(2018)는『설문통훈정성』의 양성 운부에 보이는 동족사(同族詞)를 다루었다. 그는 개별 성부에서 양성 운부의 성부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성부의 기능과 동족사를 조망하였다. 다만 연구 범위가 양성 운부에 제한되어 있었기에 음성과 입성을 아우르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3. 논의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설문통훈정성』이 출현할 수 있었던 학술사적 배경을 '설문학'과 '고음학'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설문사대가로 일컬어지는 주준성의 성취는 역대 설문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또한 청대 고음학의 발전 역시『설문통훈정성』의 운부 설정에 있어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설문통훈정성』의 체례를 살펴볼 것이다.『설문통훈정성』은 부수에 기반을 둔『설문해자』의 배열 방식 대신 소리를 기준으로 한 배열 방식을 택하였다. 체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그 체례가 반영하고 있는 고음 체계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체례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준성의 고음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현대적 시각에서 해석할 것이다. 현대 학자들의 상고음 연구를 활용한 해석을 통해 음성・양성・입성의 대립 체계와 관련하여 주준성이 취한 입장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운부에 치중되었던 연구들과 달리 본고에서는 성모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제5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종합하여『설문통훈정성』의 체례가 지닌 특

징과 체례에 반영된 고음 체계의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부록으로는『설문통훈정성』의「자서」를 역주할 것이다.「자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清代经部序跋选』과 杨剑桥(2009)가 있다.『清代经部序跋选』에서는『설문통훈정성』의「자서」를 활자화하고 표점을 달았다. 다만 오자가 존재하고, 표점에 일부 오류가 있다. 杨剑桥(2009)는 고전 문헌을 폭넓게 참고하여 상세히 주를 달았다. 본고의 역주는 최초로 이루어진「자서」의 국문 완역을 담고 있으며, 주석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杨剑桥(2009)를 참고하였다.

2. 『설문통훈정성』과 학술사적 배경

2.1. 설문학

『설문해자』는 동한(東漢) 허신(許愼)의 저작으로, 최초로 부수를 이용하여 한자를 분류한 자전이다. 『설문해자』의 출현 배경을 王力(1981[2013]:30)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서한(西漢) 시기에 학동들은 17세에 시험을 보았는데, 9000자를 암송하고 강해(講解)해야 사(史)가 될 수 있었다. 또한 8종의 서체로 시험을 보아 합격해야만 상서사(尙書史)가 될 수 있었다. 국가가 이렇게 요구하였으니, 『급취편(急就篇)』과 같은 동몽(童蒙) 식자(識字) 교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동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9000자를 암송하고 강해하는 제도가 취소되었고, 서체 8종을 시험보는 방법도 실행하지 않게 되었다. 국가의 어문 교육이 느슨해지자,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형을 해설하게 되었다. …… 이 시기가 되자 고대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고, 고서는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자서(字書)에 대한 수요가 더욱 긴박해졌다. 허신의 『설문해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탄생한 것이다.

여기에서 마음대로 자형을 해설하게 되었다는 것은, 글자의 형태가 이미 크게 변화하여 본래의 형체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추상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전국시대 중후기부터 시작하여 전서가 고예(古隸)를 거쳐서 금예(今隸)로 변화하는 현상을 '예변(隸變)'이라 부른다.[8] 고문경학의 입장에 서있던 허신은 이미 예서가 통용되던 시기에 고문, 즉 전서를 올바르게 해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설문해자』는 대체로 'A, B也'의 형식으로 개별 한자의 본의를 해설하였

8) 黃天樹(2014:163).

다. 또한 해당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그 설명의 방식은 대개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① a. 象形: 형태를 본뜬 것
   b. 象X之形: X의 형태를 본뜬 것
② a. 从XY: X와 Y를 형태 요소로 지닌 것
   b. 从X从Y: X와 Y를 형태 요소로 지닌 것
   c. 从NX: N개의 X를 형태 요소로 지닌 것
③ 从XY聲: X를 형태 요소로, Y를 소리 요소로 지닌 것
④ 从X(从)Y, Y亦聲: X와 Y를 형태 요소로 지니며, Y가 소리 요소도 겸하는 것

이러한 해설된 낱자들은 자형에 따라서 540개의 부로 분류되었으며, 각 부에서 대표성을 지닌 한자는 부의 머리, 즉 부수(部首)로 선정되었다.

한편 허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한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王力(1981[2013]:40-43)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자형에 대한 오해
② 자형에 구애되어 무리하게 해석
③ 비과학적 해석
④ 이후에 생긴 글자를 본자로 여김

허신이 해설하려 한 소전 역시 한자의 기원으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 형태만으로 온전히 본의를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爲'자를 살펴보자. '爲'에 대하여 허신은 '母猴也(어미 원숭이이다)'라고 해설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爲'는 손으로 코끼리를 부리는 모습이다.

〈그림 2.1〉 '爲'의 갑골문 (『甲骨文合集』 2953正)

이러한 문제는 출토문헌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 초래한 것이다.

상술한 문제에도 불구하고『설문해자』는 가장 오래된 문자학 연구서이자 체계적인 자서(字書)로, 후대 문자학 연구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자전 및 사전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설문해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설문학'이라 칭한다.

설문학사에서 최초로 이름을 남긴 이는 이양빙(李陽氷)이다. 이양빙은 당대(唐代)의 사람으로『간정설문해자(刊定說文解字)』를 남겼다. 다만 이 저작은 현재 전해지고 있지는 않으며, 후대 학자들이 인용한 바를 통해서만 그 면모를 일부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박홍수(1994[2006]:38-39)는 송대(宋代)의 학자 서현(徐鉉)과 서개(徐鍇)의 저작을 참고하여 이양빙의『설문해자』연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필법의 수정: 부정확하거나 비규범적인 필획을 수정
② 형성의 수정: 허신이 분석한 형태와 소리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 제시
③ 새로운 해석: 허신의 뜻에 의심을 제기하여 새로운 의견 제시

이러한 새로운 의견의 제시는 서현 등 후대 학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다. 다만 모든 해설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서개는 이 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9)]

송대에는 서현과 서개 형제가 등장하여 설문학의 제1차 전성기를 열었다.

9) 何久盈(1985[2013]:305) 참조.

형인 서현은 『설문해자』의 교정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설문해자』의 판본으로, '대서본(大徐本)'이라고도 불린다. 王力(1981[2013]:99)는 대서본의 가치로 다음의 둘을 꼽았다.

① 정교한 교정 작업
② 『설문신부(說文新附)』를 편찬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보충함
  a. 허신의 해설에 등장하나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글자
  b. 기타 경전에 있는 글자
  c. 경전에는 없지만 당시에 자주 쓰이던 글자

서개는 『설문해자계전(說文解字繫傳)』을 지었다. 『설문해자계전』은 '소서본(小徐本)'이라고도 불리며, 시기상 대서본 『설문해자』 이전에 나와, 형 서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그는 『설문해자』의 내용에 주석을 달았으며, 고서(古書)를 통하여 고의(古義)를 증명하려 하였고, 의미를 분석하여, 훗날 청대의 단옥재(段玉裁)에게 영향을 끼쳤다.[10]

何久盈(1985[2013]:306-307)에 의하면 대서본과 소서본에는 다음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① 본문의 자수 차이
② 해설의 차이
③ 반절(反切)의 차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학에 대한 서현과 서개 형제의 공헌은 다방면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이후 청대에 이르기까지는 설문학 연구는 공백기를 맞이하게 된다.

청대는 소학의 전성기로, 문자학・성운학・훈고학이 고루 발전한 시기였으며, 걸출한 학자들을 배출한 시기였다. 청대에 설문학의 조류에 조금이라

10) 何久盈(1985[2013]:306).

도 기여한 사람을 따지면 총 203명이다.[11] 이 중 계복, 단옥재, 주준성, 왕균의 성취가 가장 뛰어나며, 이 넷을 일컬어 설문사대가라 부른다.

계복의『설문해자의증』은 설문사대가의 저작 중 가장 이른 것이다. 다만 성공적으로 출판된 단옥재의『설문해자주』와 달리,『설문해자의증』은 출판과 유통이 늦었기에, 결국『설문해자주』보다 늦게 빛을 보게 되었다.

계복은 주로 예시를 들거나 허신의 해설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허신의 해설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계복이 제공한 예시는 여러 분야를 두루 포괄하며, 王力(1981[2013]:123)도『설문해자의증』의 가장 큰 장점으로 풍부한 자료와 그를 통한 의미의 설명을 꼽았다. 다만, 계복은 허신의 해설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허신의 말이 옳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때문에 부분적으로 논거를 억지로 끼워 맞춘 부분이 존재한다.

설문사대가의 저작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온 것은 단연 단옥재의『설문해자주』이다.『설문해자주』는 대서본을 준거로 하고 소서본 및 기타 문헌을 참고하여『설문해자』를 교감하고 주석을 달았다.

王力(1981[2013]:115)에 의하면 단옥재는 인신의와 가차의, 동의어의 측면에서 본의만을 설명한『설문해자』를 보충하였고, 허신의 해설 자체를 보충하기도 하였다. 또한 계복과 달리 허신의 해설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의미의 변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명확한 근거 없이 허신을 비판한 점, 소전의 형식에 집착한 것, 본자에 집착한 것, 일부 자형의 설명이 불합리한 것, 인신 관계를 부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12]

주준성의『설문통훈정성』은 설문사대가의 저작 중 가장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설문해자』를 기반으로 하여 주석을 단『설문해자주』와 달리,『설문통훈정성』은 형태를 기반으로 한 540개 부를 해체하고, 형성자의 소리 부분을 기준으로 한 18개 부를 세웠다. 이러한 배열 방법은 일반적인 자서의

11) 王力(1981[2013]:111).

12) 王力(1981[2013]:119-120).

배열방법과 확연히 다른 것이며, 오히려 운서의 성격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준성은 우선 『설문해자』를 활용하여 본의를 설명한 후, 여러 문헌에서 근거를 끌어내어 자신이 새로이 정의한 전주의와 가차의, 곧 인신의와 동음통가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경』을 비롯한 선진 문헌의 압운 현황을 제시하여, 부 편성의 논거를 확고히 하였다. 이는 『설문해자주』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왕균은 설문사대가 중 시기가 가장 늦다. 그는 주로 정리 작업에 매진했으며, 문자학의 보급에도 힘썼다.[13)]

왕균의 『설문석례』는 『설문해자』의 체례를 설명하는 등 청대 학자의 문자학개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14)] 박홍수(1994[2006]:66-68)는 『설문석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분류를 나누어 조목별로 분석함
② 고문자를 이용하여 허신을 비평
③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자형을 분석

또한 그의 『설문해자구두』는 막 입문한 초학자들을 위한 것으로, 단옥재, 계복, 엄가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15)]

위에 언급된 학자와 저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3) 王力(1981[2013]:133-134).
14) 胡奇光(1987[1997]:387-388).
15) 胡奇光(1987[1997]:387-388).

시대	학자	비고
唐	이양빙	『간정설문해자』
宋	서현	교정 작업
宋	서개	『설문해자계전』
淸	계복	『설문해자의증』
淸	단옥재	『설문해자주』
淸	주준성	『설문통훈정성』
淸	왕균	『설문석례』, 『설문해자구두』

〈표 2.1〉 역대 주요 설문학자 및 공헌

이 중 대부분 학자들의 설문학은 『설문해자』를 중심에 두고 있었다면, 주준성의 『설문통훈정성』은 『설문해자』에 기반을 두면서도 이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훈고의 측면에서는 본의뿐만 아니라 인신의와 통가의를 고려하여 어휘 의미의 변천과 확장을 염두에 두었고, 성운의 측면에서는 형성자의 소리 부분에 착안하여 체례를 재구성했다.

『설문해자』와 소리의 관계는 송대부터 서서히 모습이 드러나다가 청대에 이르러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송대의 서현·서개 형제는 각 글자마다 반절을 달았다. 이는 『설문해자』와 소리를 결부짓는 첫걸음이었으나, 독음 제시의 기능에서 그쳤다. 본격적인 소리의 고려는 단옥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육서음운표』를 통해 '同聲必同部'의 원칙을 세웠다. 주준성은 이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체례 자체를 소리를 기준으로 새로 엮었다.

이를 종합하면, 주준성은 『설문해자』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분야를 통섭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단옥재가 제공한 단초를 계승하여 『설문해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주었다.

2.2. 고음학

주준성의 『설문통훈정성』에 반영된 고음의 체계는 청대 고음학의 발전의 맥락 안에 있다. 고음(古音)이라 함은 청대인들이 상고음을 이르던 말이다. 청대 학자들은 고금의 소리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자료로부터 옛날의 소리를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본절에서는 청대 고음학의 태동, 주준성이 스스로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한 학자들, 그리고 주준성의 스승인 전대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청대 고음학의 시초는 고염무(顧炎武)라 할 수 있다. 고염무는 처음으로 『시경』을 근거로 삼아 운부를 나누어 『고음표(古音表)』를 지었다. 그는 『당운(唐韻)』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입성을 음성에 짝지었다.[16] 고염무의 저작은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타 학자들의 고음 연구를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

주준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학자로는 강영(江永), 대진(戴震), 단옥재(段玉裁), 공광삼(孔廣森)이 있다. 이는 『설문통훈정성』의 「범례(凡例)」에서 주준성 본인이 밝히고 있다.[17]

강영은 대진의 스승이며, 『고음표준(古音標準)』, 『사성절운표(四聲切韻表)』 등을 지었다. 그는 고염무의 10부보다 더욱 세분화된 13부를 세웠으며, 모음의 개구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입성을 음성과 양성에 함께 대응시켰다.[18]

강영의 제자인 대진은 『성운고(聲韻考)』, 『성류표(聲類表)』 등을 지었다. 그는 운부를 총 25부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운부의 수가 증가한 까닭은 입성을 별개의 운부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음양입 삼중대립의 선구자로

---

16) 王力(1963[2013]:147).

17) 前哲江、戴、段、孔, 分部遞益各有專書, 今復參互加覈, 不妄立異亦不敢苟同. 번역은 제3장을 참고하라.

18) 王力(1963[2013]:148-149).

서, 주준성은 그의 성과를 참고하여 분부를 세운 것으로 추측된다.

단옥재는 설문학의 대가로 『설문해자주』를 지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그 부록으로 운부를 17개로 나눈 『육서음운표(六書音均表)』를 지었다. 『육서음운표』는 다음의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① 今韻古分十七部表 弟一
② 古十七部諧聲表 弟二
③ 古十七部合用類分表 弟三
④ 詩經韻分十七部表 弟四
⑤ 群經韻分十七部表 弟五

「今韻古分十七部表」에서는 『광운(廣韻)』의 206운을 17부로 정리하고 분합의 이유 등을 밝혔다. 「古十七部諧聲表」에서는 각 부별로 해성을 이루는 편방을 나열하였고, 「古十七部合用類分表」에서는 각 부 간 합용의 상황을 정리하여 여섯 류(類)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詩經韻分十七部表」와 「群經韻分十七部表」에서는 각각 『시경』과 기타 경서에서의 압운 상황을 정리하였다. 이 중 「古十七部諧聲表」에서는 특히 같은 소리 요소를 공유하는 글자들은 같은 부에 속한다는 '同聲必同部'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 六書之有諧聲, 文字之所以日滋也. 攷周秦有韻之文, 某聲必在某部.
>
> 육서에 해성이 있는 것은 문자가 날로 불어나는 이유이다. 주나라와 진나라의 압운하는 글을 고찰해보면, 어떤 소리 부분을 가지는 글자는 반드시 해당 부에 속한다.

이는 예컨대 '東', '凍', '棟' 등이 같은 소리 부분을 가지는 글자가 같은 부에 속한다는 것으로, 이 원칙의 도입은 상고음의 운부 설정에 있어서 큰 발전을 불러왔는데,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압운에 사용되지 않은 글자들의 운부를 결정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 주준성이 한자의 소리 요소를 기준으로

낱자를 배열한 것은 이러한 단옥재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공광삼은 대진의 제자로 『시성류(詩聲類)』, 『시성분례(詩聲分例)』 등을 지었다. 그는 음양대전(陰陽對轉), 즉 주요 모음이 같은 양성운과 음성운 사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을 제기하였다. 주준성은 「자서」에서 통전(通轉)의 이치가 본래 소리와 변한 소리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공광삼의 견해를 수용하여 계승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준성의 스승인 전대흔(錢大昕)에 대해 살펴보자. 전대흔은 당시 분운에 치우쳐져 있던 고음학의 경향을 벗어나 성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전대흔은 '古無輕脣音'설과 '古無舌上音'설을 제기하였는데, 이 설들은 오늘날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9] 비록 『설문통훈정성』에서 전대흔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으나, 전대흔의 문하에 있었던 만큼, 주준성은 전대흔의 연구 성과를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 이재돈(2007:283-285).

3. 『설문통훈정성』의 체례

『설문통훈정성』이 『설문해자』와 가장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은 그 체례이다. 허신의 『설문해자』는 형태에 따라 540개의 부를 나누었고, 각 부 한자의 공통 구성요소를 대표자로 세웠는데, 이 대표자를 부의 머리라 하여 부수(部首)라 한다. 반면 『설문통훈정성』은 주준성이 「자서」에 밝혔듯이 소리를 날줄로, 뜻을 씨줄로 하여[聲爲經而義爲緯] 배열되었다. 다음은 『설문통훈정성』 범례(凡例)의 첫 항목이다.

> 六書, 形聲之字十居其九. 是編就許書五百四十部, 舍形取聲, 貫穿聯綴, 離之爲一千一百三十七母, 比之爲十八部, 以箸文字聲音之原, 以正六朝四聲之失. 前哲江、戴、段、孔, 分部遞益各有專書, 今復參互加覈, 不妄立異亦不敢苟同.
>
> 육서[에 해당하는 한자] 중에 형성자가 9할을 차지한다. 이 책은 허신의 책의 540개 부에서 모양을 버리고 소리를 취하여, 일관적으로 연결시켜서, 1137개 모[20]로 나누고, 18개 부로 연결시켜, 문자의 소리의 근원을 드러내고 육조의 4성의 잃음을 바로잡았다. 이전의 학자 강 씨, 대 씨, 단 씨, 공 씨가 서로 더하여 각각 이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이 있으니, 지금 각 책을 다시 참고하여 검증하였고, 망령되이 다른 것을 세우지 않고, 또 감히 구차하게 같기를 추구하지 않았다.

이 진술은 『설문통훈정성』의 구성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이 구성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

20) 이는 집계의 오류로, 실제로는 총 1145개이다.

3.1. 부(部)와 분부(分部)

『설문통훈정성』은 총 18부로 되어있으며, 각 부의 앞에는 목차에 해당하는 '부목(部目)'이 있다. 각 부에는 같은 상고음 운모를 지닌 한자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이에 汪少华(1989)는 『설문통훈정성』을 일컬어 중국 역사상 가장 완성도 높은 상고음 운서라 평가하기까지 하였다.

우선 각 부의 명칭을 살펴보자.

豐 升 臨 謙 頤 孚 小 需 豫
隨 解 履 泰 乾 屯 坤 鼎 壯

胡奇光(1987[1997]:391-392), 박홍수(1994[2006]:214), 柯明傑(2008:37)에 의하면 이 명칭은 모두 『주역(周易)』의 괘명이다. 하지만 『주역』에는 '小'괘가 없다. 王力(1981[2013]:126)에서는 이에 대해 '小畜'괘 혹은 '小過'괘의 약칭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해당 괘들의 약칭이 존재한다면 특정 가능한 '畜'이나 '過'가 될 것이지, 둘 이상의 괘를 의미할 수 있는 '小'를 약칭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小'괘의 이름은 '小畜'괘 혹은 '小過'괘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서 진술해야 할 것이다. '小'라는 이름의 유래가 '小畜'인지 혹은 '小過'인지에 대해서는 확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음 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부	괘		괘 순번	상고음 (王力)	중고음	
					운모	운섭
豐	豐	䷶	55	pʰĭuŋ	東	通
升	升	䷭	46	ɕĭəŋ	蒸	曾
臨	臨	䷒	19	lĭəm	侵/沁	深
謙	謙	䷎	15	kʰiam	添	咸
頤	頤	䷚	27	ʎĭə	之	止

부	괘		괘 순번	상고음 (王力)	중고음	
					운모	운섭
孚	中孚	䷼	61	pʰĭu	虞	遇
小	小畜	䷈	9	sĭau	小	效
	小過	䷽	62			
需	需	䷄	5	sĭwɔ	虞	遇
豫	豫	䷏	16	ʎĭa	御	遇
隨	隨	䷐	17	zĭwai	支	止
解	解	䷧	40	ke	蟹	蟹
履	履	䷉	10	lĭei	旨	止
泰	泰	䷊	11	tʰat	泰	蟹
乾	乾	䷀	1	gĭan	仙	山
屯	屯	䷂	3	-	諄/魂	臻
坤	坤	䷁	2	kʰuən	魂	臻
鼎	鼎	䷱	50	tieŋ	迥	梗
壯	大壯	䷡	34	tʃĭaŋ	漾	宕

〈표 3.1〉 부의 명칭과 괘명

표에 드러나듯,『주역』의 괘의 순서와『설문통훈정성』의 부 배열 순서 사이에는 체계적인 관계가 없다. 오히려 중고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의 배열에서 체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의 '豐'·'升'부와 마지막의 '鼎'·'壯'부는 모두 연구개 비음 /*-ŋ/ 운미를 지닌다. '升'부 뒤를 잇는 '臨'·'謙'부는 양순 비음 /*-m/ 운미를 지닌다. '鼎'부 앞에 위치한 '乾'·'屯'·'坤'부는 치조 비음 /*-n/ 운미를 지닌다. 즉, 같은 비음 운미를 지닌 부들이 서로 모여 있으며, 서로 다른 비음 운미끼리도 인접한 곳에 위치해있다. 중간 부분은 모두 모음으로 끝나는 음성운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통해『설문통훈정성』의 부 배열순서는 다름 아닌 소리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연구개 비음 /ŋ/ 운미를 지닌 운은 맨 앞과 맨 뒤로 나누어져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만 주준성이『주역』을 중시하여 그 순환론적 세계관을 반영했을 것이라는 추론만 가능할 뿐이다. 주준성은 전대흔(錢大昕)의 제자로 역학(易學)에 있어서 그의 영향을 받았으며, 스스로도『육십사괘경해(六十四卦經解)』를 저술한 바 있다.[21] 각 부의 이름으로『주역』의 괘명을 대량으로 차용했다는 맥락에서 보면 그 세계관에 맞추어 배열한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주역』을 중시한다고 하여 실제 존재하는 소리를 괘의 이름에 끼워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小'부의 이름은 추론컨대 해당 운부에서 『주역』 괘명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여진 것이다.

다음으로 '분부(分部)'를 살펴보자. '분부'란 일부 부의 후반부에 위치한 입성 운부를 말한다. 각 부의 시작이 'A部弟N'[22]으로 표시된다면, 분부의 시작은 'A之B分部'이다. 예컨대 '臨'부가 "臨部弟三"으로 표시되고, 그 분부는 "臨之習分部"로 표시된다. 분부는 별도로 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다른 부에 예속된 형태이다. 부와 분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부	분부	비고
豐		分部同孚需, 轉升臨
升		分部同頤, 轉臨謙
臨	習	分部習, 臨轉謙, 習轉頤孚
謙	嗑	分部嗑, 嗑轉頤孚
頤	革	分部革, 轉孚小需豫
孚	復	分部復, 轉小需豫
小	犖	分部犖, 轉需豫
需	剥	分部剥, 轉豫隨解
豫	澤	分部澤, 轉隨解履
隨		分部同豫, 轉解履乾
解	益	分部益, 轉履泰乾
履	日	分部日, 轉泰乾屯
泰	月	分部月, 轉乾屯
乾		分部同泰, 轉屯坤壯
屯		分部同履泰, 轉坤鼎壯
坤		分部同履, 轉鼎壯豐
鼎		分部同解, 轉壯豐
壯		分部同小, 轉豐升

〈표 3.2〉 부와 분부의 분포

21) 羅卓文(2008) 참조.

22) '弟'는 '第'와 같다.

분부에도 주역에서 따온 명칭이 있다. 예컨대 '嗑'분부는 '噬嗑'괘(䷔)에 해당하고, '革'분부는 '革'괘(䷰)에 해당하며, '復'분부는 '復'괘(䷗)에, '剥'분부는 '剥'괘(䷖)에, '益'분부는 '益'괘(䷩)에 각각 해당한다. '習'·'犖'·'澤'·'日'·'月'분부는 해당하는 괘명이 없다. 이 역시 위에서 논의한 '小'부와 마찬가지로 소리의 측면만을 고려한 명명으로 보인다.

분부를 도입하고 나면 전체 배열의 윤곽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배열의 키워드는 주준성이 부목의 주석에서 언급한 '전(轉)'이다. 위 표의 비고란을 살펴보면, 각 부 혹은 분부는 아래 몇 개의 부와 '전'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이란 무엇인가?『설문통훈정성』의 범례를 살펴보자.

> 古韻亦有方國時代之不同, 輒或出入. 如一東字也. 音轉如當則叶壯部矣. 音轉如丁則叶鼎部矣. 音轉如登則叶升部矣. 音轉如耽則叶臨部矣. 音轉如敦則竝可叶屯部矣. 即所謂雙聲. 然其本音, 自有一定. 今命之曰轉音, 以攷其異而益審其同.
>
> 고운 역시 지역과 시대의 차이가 있어서, 종종 변동이 있다. 예컨대 '東'자와 같다. ['東'자는] 음이 '當'과 같이 '전'하면 壯部와 압운할 수 있다. 음이 '丁'과 같이 '전'하면 鼎部와 압운할 수 있다. 음이 '登'과 같이 '전'하면 升部와 압운할 수 있다. 음이 '耽'과 같이 '전'하면 臨部와 압운할 수 있다. 음이 '敦'과 같이 '전'하면 또 屯部와 압운할 수 있다. 이는 곧 이른바 쌍성이다. 그렇지만 그 본래 음은 정해진 것이 있다. 지금 이것을 일컬어 '전음'이라 하여, 그 다름을 고찰하고 나아가 그 같음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전'이란 근체시에 있어서의 '인운(隣韻)'과 비슷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근체시나 사(詞)에서 인운 관계에 있는 글자는 때때로 압운에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율시나 절구에서 첫 구에 압운을 하는 경우 그 운자는 인운을 사용하기도 하며, 사에서는 여러 가까운 운들을 묶어서 압운하는 것이 규범이다. 그렇다면『설문통훈정성』에서 인접한 부들은 조건에 따라 압운할 수도 있는 것이다.

3.2. 모(母)

『설문통훈정성』의 표제자는 계층관계를 이루고 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위에서 살펴본 부와 분부이다. 부와 분부 아래에는 '모'가 있다. '모'는 형성자에서 소리 부분을 담당하는 요소이다.

우선 모를 나타내는 표지를 살펴보자. 각 모는 'AN名, 凡A之派皆衍A聲'과 같이 표시된다. 이는 A라는 모로부터 N개의 한자가 소리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東'모의 경우 "東五十一名, 凡東之派皆衍東聲"으로 되어있다. 이 뒤에는 각 모에 해당하는 한자의 발음을 반절법으로 표시하였다. '東'의 경우 위의 문구 뒤에 주석으로 "得紅切"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유일한 예외는 '履'부의 '菡'으로, 반절이 적혀있지 않은데, 이는 단순 착오로 보인다.

다음으로 통계를 살펴보자. 개수는 주준성은 1137개로 집계하였지만, 실제로는 모두 1145개이다. 다음은 각 부와 분부의 모 분포이다.

※주준성의 집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밑줄로 표시함

<table>
<tr><th>部</th><th colspan="2">母</th><th>주준성 집계</th><th>실제 개수</th></tr>
<tr><td>豐</td><td colspan="2">東 同 彤 中 夂 冢 眾 蟲 充 舂 工 公 容 孔 躬 廾 共 鬨 戎 宂 軵 亶 邕 凶 尨 覓 弄 丰 封 豐 从 叢 宗 囟 雙 竦 送 夆</td><td>38</td><td>38</td></tr>
<tr><td>升</td><td colspan="2">丞 乘 弁 徵 再 曾 乃 興 升 蠅 兢 夂 夌 登 左 弓 薈 朋 亙 冐</td><td>20</td><td>20</td></tr>
<tr><td rowspan="2">臨</td><td colspan="2">侵 心 森 先 寀 寀 冘 甚 壬 羊 男 垩 音 今 琴 炎 仚 林 品 亩 闖 三 彡 凡 咸</td><td rowspan="2">46</td><td>25</td></tr>
<tr><td>習</td><td>入 十 廿 卅 卌 習 集 耳 品 厶 㬎 翌 疊 沓 矗 龖 及 卒 馽 立 邑</td><td>21</td></tr>
</table>

部	母		주준성 집계	실제 개수
謙	兼 僉 戔 占 丙 冉 染 夾 閃 弇 奄 炎 焱 尸 广 臽 欠 马 爰 甘 敢 襲 导 芟 斬 鳧 凵		52	27
	嗑	栞 劦 毋 皤 聶 聑 囟 嵒 業 燮 聿 妾 陟 涉 耴 鼠 盍 劫 灋 乏 帀 臿 甲 夾 昜		25
頤	之 止 甾 子 司 辭 辯 絲 思 史 士 已 以 己 醫 匝 異 意 啻 喜 丌 而 耳 犂 里 嗇 佩 葡 才 宰 巛 再 采 臺 來 灰 毒 亥 戒 龜 北 裘 牛 郵 又 久 某 母 婦 負 不		87	51
	革	北 麥 皕 尋 革 戛 戟 丮 棘 亟 匿 肊 弋 黑 嗇 寐 色 息 悉 則 矢 仄 叟 敕 苟 直 食 力 克 或 叚 伏 淥 琅 富 牧		36
孚	丝 麀 攸 由 褒 乖 酉 牖 幼 休 求 丬 九 秀 韭 毁 簋 臼 咎 疇 雔 舟 周 州 盩 帚 肘 守 丑 臭 囚 孖 就 流 翏 彪 髟 牟 矛 驫 缶 阜 首 手 罾 窆 夔 鹵 雥 鼻 曹 叉 爪 爪 孚 棗 早 艸 勹 乍 報 卯 曰 夲 討 牢 老 丐 奧 臭 夼 烏 好 告		89	74
	復	赤 茜 夙 肅 肉 鬻 祝 竹 匊 臼 毒 逐 畜 孰 夏 目 臯 六		18
小	爻 垚 要 幺 杳 窅 巳 皛 夭 囂 梟 覞 顥 号 唬 敖 褒 屎 交 寮 了 料 敹 勞 嵶 巢 喿 小 少 苗 猋 受 表 毛 皃 暴 刀 槩 盜 罹(罹) 叟 弔 高 杲 兆 庫		61	46
	犖	卓 羊 勺 雀 爵 皂 弱 龠 敫 虐 寉 樂 尸 翟 休		15
需	矣 鼻 後 后 婁 扇 匼 兜 斗 鬥 豆 鏗 口 寇 冓 走 奏 晝 朱 丶 犀 壴 几 乳 耇 戍 臾 俞 禺 區 具 須 需 取 芻 付		60	36
	剥	尤 录 鹿 禿 卜 業 戾 木 谷 角 青 局 曲 玉 獄 屋 蜀 辱 束 粟 族 足 豕 亍		24
豫	吳 烏 午 五 乎 虍 壺 戶 互 橆 毋 巫 父 武 夫 麤 初 疋 素 圖 土 兔 鹵 及 古 鼓 兆 蠱 庫 普 步 莫 魚 舁 于 芣 羽 雨 禹 与 予 女 圉 車 尻 巨 眼 厶 宁 鼠 處 且 旅 呂 庶 舍 射 牙 亞 下 夏 襾 叚 斝 乍 巴 馬 瓜		96	68
	澤	各 亹 虢 叡 霍 蔑 霍 白 百 索 若 叒 疋 赤 尺 彳 乇 炙 隻 昔 舄 夕 石 屰 亦 睪 谷 臾		28

部	母		주준성 집계	실제 개수
隨	戈 果 厄 丹 屮 它 多 朵 妥 羅 贏 蔴 禾 匸 臥 ナ 坐 貞 惢 沙 叉 麻 加 瓦 匕 爲 罷 丞 吹 离 丽 詈 羈		33	33
解	支 知 卮 只 豸 斯 是 束 厂 乂 嶲 兮 醯 企 羋 兒 危 規 圭 艹 乖 卑 厹 解 買 辰 畫 枺		43	28
	益	易 覡 益 餐 毄 秝 鬲 糸 一 辟 析 脊 册 役 昊		15
履	敝 肥 尾 未 飛 非 妃 囗 威 委 尉 畏 胃 位 回 贙 毅 虫 彗 軎 惠 采 衣 月 伊 夷 匚 曳 系 禾 卟 枅 几 幾 計 繼 气 旡 启 棄 器 霢 脊 豕 忍 齊 妻 屖 米 氐 弟 豊 戾 盭 利 匕 閉 尚 奧 轡 自 對 靁 磊 耒 內 枚 酋 美 魄 開 皆 夔 蕢 凿 隹 揣 夂 綏 衰 水 尸 豕 矢 癸 菡 示 厶 死 四 兕 自 滿 夂 至 疐 朱 效 尒 二 火	145	101
	日	質 出 屮 徹 耿 鷃 术 夏 卒 率 由 勿 丿 乂 弗 鬱 穴 血 暗 聿 回 寤 叟 骨 圣 兀 去 突 栗 日 實 設 乙 一 抑 逸 肖 吉 桼 七 卩 疒 必 畢 匹		45
泰	大 兌 帶 貝 會 卉 外 衞 叡 最 贅 毳 蓮 砯 丰 夬 巛 介 葢 匈 摯 鷙 制 世 筮 祭 彑 埶 乂 吠 闖 竄		73	32
	月	戌 雪 离 折 叕 絶 劍 孑 峀 隉 臬 桀 耇 歹 劣 孚 弼 別 少 址(癶) 八 犮 市 末 苜 奪 瘚 丿 丨 毕 月 粵 曰 乞 取 敢 舌 殺 伐 罰 刺		41
乾	寒 安 萑 莧 丸 叩 元 冤 夗 亘(亘) 暵 厂 反 从 虩 焉 衍 燕 次 閑 辜 顯 憲 縣 閔 奴 宦 幻 鬳 原 邍 夏 肰 反 善 幵 書 罔 肩 閒 柬 擇 建 見 干 辛 看 侃 冐 官 毋 卵 盥 耑 丹 旦 短 彖 華 般 半 扶 萳 芾 曼 采 覓 宀 緜 鬲 面 片 緜 煩 楙 戏 奴 殉 贊 柀 筭 算 祘 爨 羼 扇 山 刪 弼 顚 叀 荎 延 穿 斷 戔 雋 泉 全 前 薦 廛 連 聯 繇 鬲 蠡 尟 夐	108	109
屯	文 焚 分 馥 奮 熏 壺 云 允 殷 旱 乚 君 軍 困 斤 所 筋 巾 堇 屯 辰 臺 疢 寸 尊 孫 飧 刃 盾 侖 屍 豚 昆 罽 蚰 困 衮 昷 昏 圂 門 奔(奔) 本 艮 豩 先 谷 犬 畎 川 舛 孖 員 典 彡 西 頫	56	58

部	母	주준성 집계	실제 개수
坤	眞 彡 臣 塵 襾 閏 人 申 辛 燊 觧 囟 信 卂 濬 隶 晉 秦 旬 勻 寅 因 引 廴 尹 印 肙(胤) 猌 麔 齔 丨 壼 蕣 令 民 朮 瀕 便 辩 扁 丐 田 奠 天 虔 淵 玄 衙 轟	49	49
鼎	青 晶 井 爭 生 省 蚩 正 熒 盈 贏 賏 幸 寍 頃 磬 敬 冂 炅 鳴 名 平 并 甹 霝 丁 鼎 壬	28	28
壯	昜 羊 央 香 皀 享 向 印 毀 相 象 匠 桑 爽 上 章 昌 鬯 長 丈 爿 夘 倉 舛 畺 光 亟 坐 厓 王 亢 凸 网 塱 方 匚 网 兄 永 囧 皿 黽 兵 丙 秉 竝 彭 行 庚 羹 京 竟 詰 慶	53	54

〈표 3.3〉 부와 분부의 모 분포

위에서 언급하였듯 주준성의 모 집계에는 오류가 있다.[23] 각 부의 部目에서 각각의 모는 둘레에 사각형을 쳐서 표시하였는데, '孚'부는 凡89部라 하였으나, 부목에는 90개 표시되어 있고, 실제로는 92개이다. '履'부는 凡145部라 하였으나, 부목에서는 '系'가 빠져있어 실제로는 146개이다. '乾'부는 凡108部라 하였으나, 부목에서 '閔'이 빠져있어 실제로는 109개이다. '屯'부는 凡56部라 하였으나, 부목에는 '所'이 없이 57개이며, 실제로는 58개이다. '壯'부는 凡53部라 하였으나, 부목에서는 '厓'이 빠져있어서 실제로는 54개이다.

모가 부에 귀속되는 기준은 모 자체의 독음이 아니라 모가 형성자의 소리 부분으로 쓰일 때의 소리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乃'이다. 『설문통훈정성』에서 제시한 '乃'의 독음은 반절법으로 '奴騰切'이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乃'는 '升'부에 속해있다. '乃'모 아래에 배속된 표제자들과 상고음 재구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이에 대해서는 少华(1989)도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다.

24) '騰'는 '黛(대; dài)'와 같다. 『광운』에서는 '乃'의 반절을 '奴亥切'로 제시하고 있다.

	乃	芎	訥	朸	鼐	仍	扔	孕
Karlgren	nəɡ	ȵiəŋ	-	-	nəɡ	ȵiəŋ	ȵiəŋ	di̯əŋ
王力	nə	-	-	-	nə	ȵĭəŋ	ȵĭəŋ	ʎĭəŋ
董同龢	nə̂ɡ	ȵjəŋ	ȵjəŋ	ȵjəŋ	nə̂ɡ	ȵjəŋ	ȵjəŋ	djəŋ
周法高	nəɣ	njiəŋ	njiəŋ	njiəŋ	nəɣ	njiəŋ	njiəŋ	riəŋ
李方桂	nəgx	njəng	njəng	njəng	nəgx	njəng	njəng	rəngh

〈표 3.4〉 '乃'모 표제자의 상고음 재구음

위 표를 통해 '乃'모 표제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귀납할 수 있다.

① 어두 자음은 치조 및 경구개에서 조음되며, 비음이 대부분이다.[25)]
② 주요모음은 중앙모음(schwa)이다.
③ 어말 자음은 없거나 연구개에서 조음되며, 연구개 비음이 대부분이다.

즉, 상고시대에 '乃'라는 시각부호는 위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음절을 대표했을 것이며, 주준성은 이에 따라 '乃'를 '升'부로 귀속시켰을 것이다.

다음으로 배열 순서를 살펴보자. 모든 부와 분부를 관통하는 모의 배열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어두 자음, 즉 성모가 유사한 모들이 모여 있는 경향성이 관찰된다. '豐'부를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자.[26)]

25) 'ȵ'는 중국어학계에서 사용되는 비표준 음성부호로, 경구개 비음을 나타내며, 국제음성부호(IPA)로는 'ɲ'라고 적는다.
26) 중고음 재구음은 이재돈(2007) 참고.

母	反切	중고음 성모	상고음 (王力)
東	得紅切	端	*tɔŋ
同	徒紅切	定	*dɔŋ
彤	徒冬切	定	*duŋ
中	陟躬切	知	*ťiuŋ
夂	職戎切	章	*ʈ̚ĭuŋ
冢	知隴切	知	*ťiwɔŋ
眾	之仲切	章	*ʈ̚ĭuŋ
蟲	直躬切	澄	*ďiuŋ
充	昌終切	昌	*ʈ̚ʰĭuŋ
舂	書容切	書	*ɕĭwɔŋ
工	古紅切	見	*kɔŋ
公	古紅切	見	*kɔŋ
容	余封切	以	*ʎĭwɔŋ
孔	康董切	溪	*kʰɔŋ
躬	居戎切	見	*kĭuŋ
廾	居竦切	見	-
共	渠用切	羣	*gĭwɔŋ
鬨	渠容切	羣	-
戎	如融切	日	*ȵ̚ĭuŋ
宂	而隴切	日	*ȵ̚ĭwɔŋ
軵	而隴切	日	-
亶	余封切	以	*ʎĭwɔŋ
邕	於容切	影	*0ĭwɔŋ
凶	許容切	曉	*xĭwɔŋ
尨	莫江切	明	*meɔŋ
冕	莫紅切	明	-
弄	盧貢切	來	*lɔŋ
丰	敷容切	滂	*pʰĭwɔŋ
封	府容切	幫	*pĭwɔŋ
豐	敷戎切	滂	*pʰĭuŋ
从	疾容切	從	*dzĭwɔŋ
叢	徂紅切	從	*dzɔŋ
宗	作冬切	精	*tsuŋ
囪	楚江切	初	-
雙	所江切	生	*ʃeɔŋ
竦	息拱切	心	*sĭwɔŋ
送	蘇弄切	心	*sɔŋ
夆	下江切	匣	-

〈표 3.5〉 '豐'부 소속 모의 성모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자질이 유사한 성모를 지닌 모들이 가까이에 분포하고 있다. ‘豐’부에서 이러한 규칙에 반하는 예는 ‘容’이 있다. ‘容’의 경우 古文이 ‘宀’을 형태 요소로, ‘公’을 소리 요소로 지닌다. 따라서 ‘公’ 뒤에 ‘容’이 배열된 것은 ‘容’이 ‘公’으로부터 소리를 얻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公	容	
	正篆	古文

〈표 3.6〉 ‘公’과 ‘容’의 소전 자형

이는 곧 다른 글자로부터 소리를 얻은 글자들도 모로 세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예로는 ‘郵’가 있다. ‘郵’는 ‘邑’을 형태 요소로, ‘垂’를 소리 요소로 지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모로 세워졌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주준성은 모의 배열에 있어서 독음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과정에서 한자 사이의 파생관계도 고려하였다.

한편, 『설문해자』에서 ‘부원(部員)’이 없는 부수가 있었던 것처럼[27], 『설문통훈정성』 역시 ‘자(子)’가 없는 모가 있다. 이렇게 단일 표제자가 하나의 모를 구성하는 경우 ‘A一名’이라고만 표시하며, ‘凡A之派皆衍A聲’는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彤 冢 孔 鬧 軵 亶 覓 竦 送 兢 冐 森 男 奚 火 闖 三 廿 卅 卌 品 疊 馽
閃 焱 广 爰 导 芟 凵 曄 聑 囟 品 聿 涉 灋 帀 辭 辤 醫 佩 毒 裘 牛 郵
婦 麥 戛 戟 肊 色 矢 敕 苟 彔 珊 牧 褒 牖 韭 盩 囚 手 爪 棗 艸 報 討

27) 三, 凵, 厶, 久, 才, 乇, 丞, 克, 彔, 耑, 丏, 目, 爲, 易, 莧, 能, 〈, 燕, 率, 它, 开, 四, 五, 六, 七, 甲, 丙, 丁, 庚, 壬, 癸, 寅, 卯, 未, 戌, 亥
이재혁(2017:186) 참조.

牢 臭 茜 逐 目 六 幺 杳 窅 皛 覞 褭 屎 了 料 敹 受 表 槩 盜 罹 杲 屮
伀 走 晝 馵 耇 戍 禿 戾 曲 粟 亍 壺 毋 初 素 圖 鹵 夃 兆 蠱 庫 普 芣
圉 車 尻 鼠 處 斝 叡 姦 疋 尺 彳 隻 蓏 臥 惢 瓦 詈 羈 醯 企 羋 乖 栻
覡 餮 位 贙 虫 軎 采 月 匚 禾 卟 計 棄 器 霓 脅 忍 盭 閉 轡 磊 枚 開
夔 菌 死 兕 夂 姦 屮 耿 鷃 旻 丿 暗 寤 去 突 實 一 抑 逸 匹 外 贅 砅
巛 葢 摯 鷙 吠 竄 雪 离 隉 耇 劣 弼 別 少 市 奪 亅 粵 罰 虩 閑 畢 宦
幻 邍 夏 擽 看 盥 短 宀 緜 片 鬼 殉 筭 穿 蠡 尟 焚 壺 乚 所 筋 巾 疢
飧 蚰 袞 畎 塵 燊 信 濬 廴 印 肩 麠 齔 丨 壺 亦 衙 轟 晶 炅 鳴 名 香
享 上 鬯 厓 匚 兵 秉 羹 慶

모를 표시하는 ‘AN名, 凡A之派皆衍A聲’이 등장하면 곧이어 ‘A’라는 한자가 표제자로 등장하여 해설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몇 예외가 존재한다. 예컨대 ‘互’모에서는 ‘笎’를 ‘互’대신 표제자로 넣었다. 마찬가지로, ‘橅’모에는 ‘橅’ 대신 ‘無’가 표제자로 선정되었으며, ‘普’모에서는 ‘竝’이, ‘弓’모에서는 ‘卲’이, ‘弼’모에서는 ‘弜’이 표제자로 선정되었다. 이외에 ‘夂’모의 경우 部目에는 ‘終’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비일관적인 모습이 보인다.

3.3. 표제자

3.3.1. 표제자의 귀속

각 부(部)와 분부(分部)의 아래에는 모(母)가 있으며, 각 모의 아래에는 개별 표제자들이 있다.『설문해자』에서 이 글자들은 형태 요소에 따라서 540개 부로 분류되어 배열되었다.『설문통훈정성』에서는 이 배열 순서를 버리고 표제자들을 소리에 따라 18개 운부로 나누고, 총 1145개 모 아래에 귀속시켰다. 예컨대 ‘豐’부의 ‘東’모 아래에는 다음 51개의 한자가 배속되었다.

東 棟 涷 凍 蝀 重 埬 種 踵 腫 種 惷 湩 緟 動 鍾 童 菫 衝 橦
穜 瘽 罿 僮 憧 潼 撞 曈 鐘 幢 龍 瓏 蘢 嚨 龔 龔 籠 龔 櫳 豅
寵 襱 龐 礱 瀧 豅 聾 聾 壠 隴 棟

각 부 별 표제자 수는 다음 표를, 모 별 표제자 수는 부록을 참고하라.

部	표제자 수		部	표제자 수	
豐		326	豫		705
升		133		澤	207
臨		266	隨		354
	習	148	解		311
謙		282		益	109
	嗑	135	履		883
頤		462		日	313
	革	151	泰		264
孚		578		月	264
	復	134	乾		903
小		373	屯		486
	犖	128	坤		326
需		312	鼎		302
	剥	171	壯		479
합계					9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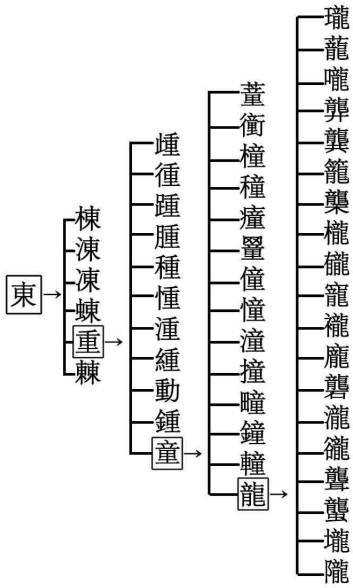
〈표 3.7〉 부 및 분부 별 표제자 개수

주목할 만한 점은, 낱자가 모에 귀속되는 기준이 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설문통훈정성』과 『설문해자』의 관계는 한자의 본의 측면에서만 논의되었다. 그러나 『설문통훈정성』은 한 발 나아가 『설문해자』의 소전을 형성자 구성요소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예컨대 '甫'는 '父'모에 속한다. 이는 해서를 기준으로 해서는 할 수 없는 분류이며, 『설문해자』의 소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父	甫

〈표 3.8〉 '父'와 '甫'의 소전 자형

이러한 관계는 때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타난다. 柯明傑(2008)는 위에서 언급한 '東'모에 속하는 한자들을 다음과 같이 계층화시켰다.



〈그림 3.1〉 '東'母의 계층구조 (柯明傑 2008)

'東'·'重'·'童'·'龍'을 소리 부분으로 하는 한자가 모두 '豐'부의 '東'모에 속하는 것은,『설문해자』에서 '重'·'童'·'龍'을 '東'에서 파생된 자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重: ……从壬<u>東</u>聲. ……
童: ……从辛, <u>重省</u>聲.
龍: ……从肉, 飛之形, <u>童省</u>聲. ……

東	重	童	龍

〈표 3.9〉 '東' 및 파생자의 소전 자형

3.3.2. 표제자의 해설

각 표제자는 해서와 소전의 두 형태로 제시된다. 만약 '古文'이나 '籀文'이 있는 경우, 이들 역시 첫머리에 함께 제시된다. 각 표제자 위에는 『평수운(平水韻)』 운부를 표시해두었다. 『평수운』은 『임자예부운략(壬子禮部韻略)』의 속칭으로, 근체시 압운의 규범이다. 시 창작에 주로 사용되는 『평수운』을 표기했다는 것은 주준성이 이 책의 실용성도 고려했음을 암시한다.

각 표제자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설문해자』의 해설
② 按語
③ 別義
④ 轉注
⑤ 叚借
⑥ 聲訓
⑦ 古韻
⑧ 轉音

가장 처음에는 『설문해자』의 해설과 주준성의 '按語'가 제시된다. 주준성은 기본적으로는 『설문해자』의 해설을 글자의 본의로 제시하나, 때때로 본인이 수정을 가하기도 한다.

① 『說文解字』: 東: 動也. 从木. 官溥說: 从日在木中.
『說文通訓定聲』: 東: 動也. 从木. 官溥說: 从日在木中.

②『說文解字』: 笠: 可以收繩也. 从竹, 象形, 中象人手所推握也.
『說文通訓定聲』: 笠: 所以糾繩也. 从竹, 象形, 中象人手所推握.
③『說文解字』: 乞: 玄鳥也. 齊魯謂之乞. 取其鳴自呼. 象形.
『說文通訓定聲』: 乞: 元鳥也. 齊魯謂之乞. 取其鳴自呼. 象飛之形.

①의 경우『설문해자』의 해설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②의 경우 주된 해설을 바꾸었다. 가능성을 나타내는 '可以'가 수단을 나타내는 '所以'로 바뀌었다. ③의 경우 해설을 수정하는 동시에 보충설명을 추가하였다. '玄鳥'는 '元鳥'가 되었고, '象形'이라는 해설은 '象飛之形'으로 구체화되었다.

『설문해자』의 해설 뒤에는 주준성의 의견이 등장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說文解字』: 豐: 豆之豐滿者也. 从豆, 象形.
『說文通訓定聲』: 豐: 豆之豐滿者也. 从豆, 象形. 按: 从豆从山, 會意. 山取其高大. 䜌象滿形. ……

주준성은 여기에서 우선 '豐'에 대한 허신의 해설과 분석을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주준성의 독창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說文解字』: 宋: 居也. 从宀从木. 讀若送.
『說文通訓定聲』: 宋: 居也. 从宀从木. 讀若送. 按: 松省聲. 今附于此. ……

이 견해에 의하면 '宋'은 소리 요소로 생략된 '松'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별의(別義)', '전주(轉注)', '가차(叚借)', '성훈(聲訓)'을 살펴보자. 주준성의 정의에 따르면 '전주'란 곧 인신(引伸)을 말하며, '가차'란 동음통가를 말한다. 그리고 '별의'는 이 둘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글자에 부여된

의미를 말한다. ‘성훈’이란 인성구의의 훈고로, 완전히 동음은 아니지만 유사한 독음의 한자로 특정 글자를 풀이한 예를 제시하였다.

駒: 馬白額也. 从馬的省聲. 按勺聲. ……【別義】說文一曰駿也.
龍: 鱗蟲之長. ……【轉注】『虞書』: 山龍華蟲. 『廣雅』釋言: 山龍彰也. 又『釋詁』一: 龍君也. ……
重: 厚也. 从王東聲. ……【叚借】爲緟. 『廣雅』釋言: 重, 再也.
東: 動也. ……【聲訓】『漢書』律厤志: 東, 動也. 『呂覽』仲春: 命田舍東郊. 注: 東郊, 農郊也.

마지막으로 ‘고운(古韻)’과 ‘전음(轉音)’을 살펴보자. ‘고운’이란 『시경』을 비롯한 선진문헌에서의 압운을 뜻한다.

東: ……【古韻】『詩』 「小星」叶: 東公同; 「旄邱」叶: 戎東同; 「桑中」叶: 葑東庸; 「伯兮」叶: 東蓬容; 「采苓」叶: 葑東從; 「東山」叶: 東濛; 「車攻」叶: 攻同龐東; 「大東」叶: 東空; 「閟宮」叶: 蒙東邦同從功; 『楚辭』「哀郢」叶: 江東.

위 표시한 부분에 의하면 『시경』의 「소성」이라는 시에서는 ‘東’, ‘公’, ‘同’이 서로 압운된다. 이는 시 본문에서 확인된다.

嘒彼小星, 三五在東.
肅肅宵征, 夙夜在公, 寔命不同.
嘒彼小星, 維參與昴.
肅肅宵征, 抱衾與裯, 寔命不猶. (『詩經』「小星」)

‘전음(轉音)’이란 원칙적으로 압운이 되지 않지만 압운이 된 경우를 말한다.

夂(終): ……【轉音】『詩』 「蕩」叶: 諶終; 按: 讀如斟也

위 표시한 부분에 의하면 『시경』의 「탕」이라는 시에서는 '諶', '終'이 서로 압운된다. '諶'은 '臨'부에 속하고 '終'은 '豐'부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두 글자는 압운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실제로는 압운이 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 蕩蕩上帝, 下民之辟.
> 疾威上帝, 其命多辟.
> 天生烝民, 其命匪**諶**.
> 靡不有初, 鮮克有**終**. (『詩經』「蕩」)

이에 대해 주준성은 '終'이 이 시에서는 '斟'과 같이 읽혔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시에 따라 임시로 한자의 발음을 다르게 읽었을 것이라는 주희(朱熹) 등의 협음설(叶音說)과 일치한다. 이러한 견해는 당송대에 유행했으나, 후대에 철저히 반박당했다. 명대에 초횡(焦竑)은 협음설에 대해 『초씨필승(焦氏筆乘)』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 如此則東亦可以音西, 南亦可以音北, 上亦可以音下, 前亦可以音後, 凡字皆無正呼, 凡詩皆無正字矣.[28]
>
> 만약 그렇다면 '東'도 '西'라고 소리 날 수 있는 것이고, '南'도 '北'이라고 소리 날 수 있는 것이며, '上'도 '下'라고 소리 날 수 있는 것이고, '前'도 '後'라고 소리 날 수 있는 것이니, 모든 글자에 바른 소리가 없고, 모든 시에 바른 글자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17세기에 왕부지(王夫之) 역시 『시경협운변(詩經叶韻辨)』에서 이러한 견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29] 이러한 압운의 사례는 앞에서 논의하였듯 인운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준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8) 董同龢(民國78:238)에서 재인용.
29) 张民权(2000).

4. 『설문통훈정성』의 고음 체계

4.1. 운부

주준성은 『시경』 등 선진문헌의 압운 현황을 참고하여 고운을 18부로 나누었고, 인접한 부 사이에는 '음전'의 관계가 존재한다.

주준성은 『설문통훈정성』의 각 항목에서 선진문헌 압운현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주로 『시경』에서 추출되었으며, 그 외 문헌으로는 『국어(國語)』, 『초사(楚辭)』, 『회남자(淮南子)』, 『삼략(三略)』, 『문자(文子)』, 『고당부(高唐賦)』, 『급취편(急就篇)』, 『대재(大戴)』, 『주역(周易)』, 『한비자(韓非子)』, 『여씨춘추(呂氏春秋)』,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순자(荀子)』, 『주서(周書)』, 『상서(尙書)』, 『영추(靈樞)』 등이 있다.

다음 '豐'부를 통해 주준성이 정리한 고운(古韻)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항목	압운자
東	公 同 戎 葑 庸 蓬 容 從 濛 攻 龐 空 蒙 邦 功 江
棟	重
蝀	東
重	雝 勇 恐 動 用 寵 棟
腫	恐 奉 寵 踊 冢
種	勇
動	共 庞 龍 勇 竦 總 恐 重 通
童	松 龍 充
衝	墉
瘇	勇
罿	庸 凶 聡

항목	압운자
僮	杠 幢 縱 工 筩 同 雙 龍 罋 容 兇
憧	空
撞	攻 功
鐘	樅 鏞 廱 逢 公
龍	松 充 童 共 厖 勇 動 竦 總 僮 杠 幢 縱 工 筩 同 雙 罋 容 兇
寵	凶 邦 功 重 共 恐 奉 踊 腫 冢
襱	攻 同 龐 東
隴	膿
同	東 公 戎 功 豵 龐 濃 沖 雝 蓬 邦 從 蒙 通
恫	公 邦
中	窮 功 訟 凶 衆 通 邦 宮 躬 降 蠱
仲	宋 忡 蟲 螽 降 戎
忠	窮 隆
忡	蟲 螽 降 仲 宋 戎 中 窮
沖	濃 雝 同
用	從 卬 勇 重 動 誦
通	同 中 窮 工 動 功
踊	恐 奉 寵 腫
誦	訟 邦 用
筩	僮 杠 幢 縱 工
勇	尰 共 厖 龍 動 竦 緫 恐 重 種
庸	葑 東 罿 凶 聰 雙 從 降
傭	訟
墉	訟 從 衝 崇
鏞	樅 鏞 廱
夂	融
螽	蟲 忡 降 仲 戎
冬	窮

항목	압운자
冢	恐 奉 寵 踊 腫
眾	中 功 從 宮
漮	眾 宗 降 崇
蟲	螽 忡 降 仲 戎 蜂
融	終
充	松 龍 童
工	通 功 鴻 江
訌	共 邦
攻	同 龐 東 撞 功
杠	僮 幢 縱 工 筩 同 雙 龍 甕 容
邛	從 用 共
空	東 憧
江	東 洶 功 鴻 工 又 可 從 凶
功	同 豵 公 豐 蒙 東 邦 從 窮 中 凶 寵 衆 鴻 工 江 攻 撞
恐	動 勇 重 奉 寵 踊 腫 冢
控	送
鴻	公 功 工 江
公	僮 縫 緦 東 同 功 豵 恫 邦 鐘 廱 逢 鴻 雝 茸 從
訟	墉 從
松	龍 充 童
宋	仲 忡
容	恭 從 明 聰 東 蓬 崇 窮
孔	總
躬	中 降
窮	冬 窮 中 功 通 降 慟 忠 容 沖 宗
宮	中 雍 眾
共	邛 訌 邦 厖 龍 勇 動 竦 總 寵
巷	丰 送 縱 衖

항목	압운자
戎	東 同 蟲 螽 忡 降 仲 幢
雝	邦 雍 禮 重 葦 濃 沖 同 容 公 逢 蒙 宮
饔	聰
罋	僮 杠 幢 縱 工 筩 同 雙 龍 甕 容 兇
癰	膿
廱	樅 鏞 鐘 逢 公 東
凶	罿 庸 聰 寵 邦 功 中 衷 從 江
訟	誦 邦
洶	江
兇	僮 杠 幢 縱 工 筩 同 雙 龍 罋 容
厖	共 龍 勇 動 竦 總
丰	巷 送
奉	恐 寵 踊 腫
邦	雍 誦 訟 蓬 同 從 公 恫 訌 共 蒙 東 功 凶 寵 中
葦	雝
逢	從 同 彊 鐘 廱 公 蒙 雍 逢
蓬	豵 東 容 邦 同 從
縫	總 公
蠭	蜂 蟲
葑	東 庸 從
豐	功 崇
從	恭 明 聰 容 墉 訟 雙 庸 用 邛 蓬 邦 同 蒙 東 功 茸 公 眾 衷 凶 江
豵	蓬 同 功 公
縱	衖 僮 杠 幢 工 筩 同 雙 龍 罋 容 兇
蒙	東 邦 同 從 功 逢 雍
幪	唪
濛	東
宗	淙 降 崇 窮

항목	압운자
崇	淙 宗 降 功 豐 墉 容
蔥	雙
聰	恭 從 明 容 罿 庸 凶 饔
總	縫 公 勇 動 竦 孔
茸	公 從
禮	雝
猭	濃 沖 雝 同
膿	癰 隴
雙	庸 從 僮 杠 幢 縱 工 筩 同 龍 罋 容 兇 蔥
竦	勇 動 總
送	控 丰 巷 用
降	蟲 螽 忡 仲 戎 淙 宗 崇 中 窮 慟 庸
隆	忠

〈표 4.1〉 '豐'부의 압운 관계

이들의 압운 상황은 다음의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룹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東 棟 蝀 重 腫 種 動 童 衝 瘇(尰) 罿 僮 憧 撞 鐘 龍 寵 襱 同 恫 中 仲 忠 忡 沖 用 通 踊 誦 筩 勇 庸 傭 墉 鏞 螽 冬 冢 眾 潼 蟲 充 工 訌 攻 杠 邛 空 江 功 恐 控 鴻 公 訟 松 宋 容 孔 躬 窮 宮 共 巷 戎 雝 饔 罋 廱 凶 詾 洶 兇 厖 丰 奉 邦 菶 逢 蓬 縫 蠭 葑 豐 從 豵 縱 蒙 濛 宗 崇 蔥 聰 總 茸 禮 猭 雙 竦 送 降 隆	膿 癰 隴	幪 唪	夂(終) 融

〈표 4.2〉 '豐'부의 압운 그룹

그룹 A의 구성원은 서로 압운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를 통해 건너서 연결된 글자들이다. 그룹 B, C, D는 소수의 글자만이 서로 압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글자들은 단옥재가 주장한 '同聲必同部'의 원칙이 없었다면 독립된 부로 각각 세워졌을 것이다. 단옥재의 원칙이 있었기에 그룹 B, C, D는 그룹 A와 같은 부로 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주준성이 단옥재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부와 분부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박홍수(1994[2006]:215)는 이를 "그들과 양성운・음성운 간의 관계를 표시"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부와 분부 사이에는 하나의 일관적인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양성운과 음성운을 나누어보면 일종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는 있다.

우선 양성운을 살펴보자. 양성운 중 /*-m/ 운미를 지닌 '臨'부와 '謙'부만이 분부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이 거느리는 '習'과 '嗑' 분부는 모두 /*-p/ 운미를 지닌다. /*-m/과 /*-p/는 구강과 비강의 차이만 있을 뿐, 조음 부위와 방법이 동일하다. 또한 부와 분부의 중고음 운섭도 '深'과 '咸'으로 일치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적어도 중고음의 관점에서는 부와 분부의 주요모음이 유사하며 운미도 체계적으로 대응함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음성운을 살펴보자. 만약 위와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면, 부와 분부의 주요모음은 유사해야 하며, /*-ŋ/이 /*-k/에 대응되고 /*-n/이 /*-t/에 대응되는 등의 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음성운은 모두 모음 운미로 끝나는 운이다. 즉, 음성운에 종속된 분부에는 위와 같은 대응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주준성은 음양이분법을 주장하던 학자들의 견해들을 받아들여 이와 같이 구성한 듯하다. 고염무(顧炎武)부터 왕리(王力)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선진문헌의 압운 자료를 귀납하여 상고음의 운부를 나누었다. 다음은 이재돈(2007:277-278)에서 제시한 각 학자들의 분운 현황이다.[30]

30) 단, 주준성의 分部는 필자가 따로 표기하였다. 또한 '墮'와 '儒'는 각각 '隨'와 '需'로 수정하였다.

顧炎武	江永	戴震	段玉裁	孔廣森	王念孫	江有誥	章炳麟	黃侃	朱駿聲	董同龢	王力
東	東	翁	東	東	東	東	東	東	豐	東	東
				冬		中	冬	冬		中	(侵)
陽	陽	央	陽	陽	陽	陽	陽	唐	壯	陽	陽
耕	庚	嬰	庚	丁	耕	庚	青	青	鼎	耕	耕
蒸	蒸	膺	蒸	蒸	蒸	蒸	蒸	登	升	蒸	蒸
眞	眞	殷	眞	辰	眞	眞	眞	先	坤	眞	眞
			諄		諄	文	諄	魂痕	屯	文	文
	元	安	元	元	元	元	寒	寒桓	乾	元	寒
侵	侵	音	侵	侵	侵	侵	侵	覃	臨/習	侵	侵
		邑		合	緝	緝	緝	合		緝	緝
	覃	醃	覃	談	談	談	談	添	謙/嗑	談	談
		諜			盍	葉	盍	帖		葉	葉
支	支	娃	支	支	支	支	支	齊	解/益	佳	支
		戺						錫			錫
		衣	脂	脂	脂	脂	脂	灰	履/日	脂	脂
											微
		乙			至		隊	沒		微	物
							至	屑			質
		靄			祭	祭	泰	曷末	泰/月	祭	月
		遏									
		噫	之	之	之	之	之	咍	頤/革	之	之
		億						德			職
魚	魚	烏	魚	魚	魚	魚	魚	模	豫/澤	魚	魚
		埡						鐸			鐸
歌	歌	阿	歌	歌	歌	歌	歌	歌	隨	歌	歌
蕭	蕭	夭	蕭	宵	宵	宵	宵	豪	小/犖	宵	逍
		約						沃			藥
	侯	謳	尤	幽	幽	幽	幽	蕭	孚/復	幽	幽
											覺
		屋	侯	侯	侯	侯	侯	侯	需/剥	侯	侯
								屋			屋
10	13	25	17	18	21	21	23	28	18	22	29

〈표 4.3〉 학자 별 분운 현황(이재돈 2007:277-278)

표를 살펴보면, 대진이 서성과 입성으로 나눈 부를 주준성도 부와 분부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범례에서 밝혔듯 주준성이 대진의 영향을 직

접적으로 받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주준성은 입성을 특별하게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부의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다. 입성을 독립시키지 않은 학자들은 입성 글자들을 서성 운부에 귀속시켰는데, 주준성의 주석에서 밝히는 대응관계는 이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음양입의 삼중대립을 주장한 대진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이중대립을 주장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주준성의 주석을 참조하여 다시 음성운의 분부를 대응시켜보자.

부	운섭	분부	운섭	주석	비고
豐	通			分部同孚需, 轉升臨	-
升	曾			分部同頤, 轉臨謙	-
臨	深	習	深	分部習, 臨轉謙, 習轉頤孚	習/*-p/ - 臨/*-m/
謙	咸	嗑	咸	分部嗑, 嗑轉頤孚	嗑/*-p/ - 謙/*-m/
頤	止	革	梗	分部革, 轉孚小需豫	革/*-k/ - 升/*-ŋ/
孚	遇	復	通	分部復, 轉小需豫	復/*-k/ - 豐/*-ŋ/
小	效	犖	江	分部犖, 轉需豫	犖/*-k/ - 壯/*-ŋ/
需	遇	剥	江	分部剥, 轉豫隨解	剥/*-k/ - 豐/*-ŋ/
豫	遇	澤	梗	分部澤, 轉隨解履	-
隨	止			分部同豫, 轉解履乾	-
解	蟹	益	梗	分部益, 轉履泰乾	益/*-k/ - 鼎/*-ŋ/
履	止	日	臻	分部日, 轉泰乾屯	日/*-t/ - 屯坤/*-n/
泰	蟹	月	臻	分部月, 轉乾屯	月/*-t/ - 乾屯/*-n/
乾	山			分部同泰, 轉屯坤壯	-
屯	臻			分部同履泰, 轉坤鼎壯	-
坤	臻			分部同履, 轉鼎壯豐	-
鼎	梗			分部同解, 轉壯豐	-
壯	宕			分部同小, 轉豐升	-

〈표 4.4〉 부와 분부의 분포 및 대응관계

각 부의 첫머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分部同A'를 살펴보면, /*-ŋ/ 운미를 지닌 '豐', '升', '鼎', '壯'부는 '孚', '需', '頤', '解', '小'부에 대응되고 있으

며, 이들 부의 분부는 ‘復’, ‘剥’, ‘革’, ‘益’, ‘犖’으로, 모두 /*-k/ 운미를 지닌다. /*-ŋ/과 /*-k/은 위에서 논의한 /*-m/과 /*-p/의 관계와 동일하게, 구강과 비강의 차이만 있을 뿐, 조음 부위와 조음 방법의 같다. 마찬가지로 /*-n/ 운미를 지닌 ‘乾’, ‘屯’, ‘坤’부는 ‘泰’, ‘履’부에 대응되고 있으며, 이들 부의 분부는 ‘日’, ‘月’로, 모두 /*-t/ 운미를 지닌다. /*-n/과 /*-t/도 동일하게 구강과 비강의 차이만 있을 뿐, 조음 부위와 조음 방법의 같다. 즉 이러한 구성은 주준성이 선대 학자들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준성 이후 黃侃도 28운을 나누었으며, 王力(1963[2013]:155)도 유사하게 29운을 나누었다. 王力의 분운은 양성운・음성운・입성운의 대응관계가 잘 드러난다. 다음 표를 참고하라.

	음성운	입성운	양성운
一	1. 之部 ə	2. 職部 ək	3. 蒸部 əŋ
二	4. 幽部 əu	5. 覺部 əuk	-
三	6. 宵部 au	7. 藥部 auk	-
四	8. 侯部 o	9. 屋部 ok	10. 東部 oŋ
五	11. 魚部 a	12. 鐸部 ak	13. 陽部 aŋ
六	14. 支部 e	15. 錫部 ek	16. 耕部 eŋ
七	17. 歌部 ai	18. 月部 at	19. 元部 an
八	20. 脂部 ei	21. 質部 et	22. 眞部 en
九	23. 微部 əi	24. 物部 ət	25. 文部 ən
十	-	26. 緝部 əp	27. 侵部 əm
十一	-	28. 葉部 ap	29. 談部 am

〈표 4.5〉 상고음 운부(王力 1963[2013]:155)

이를 주준성의 운부에 대응시켜보자.[31)]

	음성운	입성운	양성운
一	5. 頤	5'. 革	2. 升
二	6. 孚	6'. 復	-
三	7. 小	7'. 犖	-
四	8. 需	8'. 剥	1. 豐
五	9. 豫	9'. 澤	18. 壯
六	11. 解	11'. 益	17. 鼎
七	10. 隨	-	-
	13. 泰	13'. 月	14. 乾
八	12. 履	12'. 日	16. 坤
九	-	-	15. 屯
十	-	3'. 習	3. 臨
十一	-	4'. 嗑	4. 謙

〈표 4.6〉『설문통훈정성』 부와 분부의 대응 관계

王力가 제시한 음양입의 삼중 대립 체계에 주준성의 체계를 대입하면 부와 분부 사이의 관계가 더욱 명확해진다. '豐'부 첫머리에는 "分部同孚需"라고 되어있는데, 이 중 "需"는 '豐'과 '需'가 같은 주요모음을 지니며, 대응되는 입성운으로 '剥'을 공유한다는 뜻이며, "孚"는 '豐'부가 '孚'부 및 '復' 분부에도 대응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升'부 첫머리에는 "分部同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升'부와 '頤'부가 같은 주요모음을 지니며, 대응되는 입성운으로 '復'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분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성운이나, '習'부와 '嗑'부의 경우 대응되는 음성운이 없기에 양성운이 직접 분부를 지니게 되었다.

주준성이 음양입의 삼중 대립이 아니라 부에 종속된 분부의 형태로 이중 대립을 설정한 것은 그 당시 청대 고음학의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청대 고음학자들 사이에는 입성의 지위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가 없었다. 王力(1963

31) 박홍수(1994[2006]:214-215) 참조.

[2013]:162-164)은 이를 크게 '陰陽兩分法'과 '陰陽入三分法'의 두 파벌로 나누었다. '陰陽兩分法'을 지지한 학자로는 단옥재, 공광삼 등이 있다. 이들은 선진문헌에서 입성운과 음성운이 압운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입성운을 음성운에 귀속시켰다. 뒤이어 등장한 '陰陽入三分法'을 지지한 학자로는 강영과 대진이 있다. 이들은 음운체계의 체계성을 위해 입성을 분리시켰다. 王力(1963[2013]:163)는 이를 운부 체계와 운모 체계의 대립으로 보았다. 운부 체계를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함께 압운이 된다면 같은 운부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반대로 언어의 운모 체계를 정리하는 입장이라면 기준으로 삼은 자질에 따라 이를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 학자를 모두 계승하고자 한 주준성은 곤란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등장한 것이 입성운을 세우되 완전히 음성운에서 독립시키지 않는 '분부'를 세우는 참신하고도 절충적인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참신함에도 불구하고 주준성의 운부 설정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여전히 이중대립 체계에 머물러있다. 위에서 제시한 王力의 삼중대립 구도는 비록 빈칸은 존재하지만 음성운・양성운・입성운이 가지런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주준성은 이러한 삼중대립을 염두에는 두었지만 결국은 부에 부속된 분부를 세우는 것에 그쳤으며, 일부 부에는 분부가 있고, 일부 부에는 분부가 없는 비대칭성을 낳게 되었다. 둘째, 비대칭성을 무리하게 해결하려 하였다. 각 부 첫머리에 '分部同A'라 적혀있는 부들은 분부를 직접 거느리지는 않으나, 주요모음의 유사성 때문에 A부와 분부를 공유한다. 그러나 '豐'부와 '屯'부는 두 개의 부를 참조하도록 되어있다. '豐'부의 경우 '孚'부와 '需'부를 참조하도록 되어있는데, '需'부는 대응관계를 고려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나, '孚'의 경우 무리하게 공란을 제거하기 위해 억지로 연결시킨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屯'부는 '履'부와 '泰'부에 대응되어 있는데, '泰'부는 이미 '乾'부에, '履'부는 이미 '坤'부에 대응되어 있다. 따라서 '屯'부가 굳이 두 분부에 대응될 필요가 없다. 셋째, 청대의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음의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압운은 주요모음과 운미가 같을 것을 요구하나, 개음이 같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압운자료만을 근거로 해서는 개음・운복・운미를 포괄하는 완정한 운모체계를 재구성할 수 없으며, 각각의 운부에는 개음을 동반하는 운모와 개음이 없는 운모가 뒤섞여 있을 것이다.

한편, 주준성의 운부 설정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예컨대 汪少华(1989:18)는 '東冬不分'을 주준성의 명확한 결점이라고 지적하였다. '東冬分立'은 공광삼이 처음으로 주장한 것으로, 郑张尚芳(2003[2013])에 의하면 '東'과 '終(冬)'[32]에는 주요모음의 차이가 있다. 즉 위 주장은 주준성이 이 말은 곧 '豐'부를 둘로 나누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준성의 논거를 모두 수용한다면 '東'과 '冬'은 같은 부에 속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冬	**『詩』「谷風」叶: 冬窮**
窮	**『詩』「谷風」叶: 冬窮; 『易』「需」叶: 窮中功**; 「節」叶: 中窮通; 『楚辭』「雲中君」叶: 降中窮憱; 「卜居」叶: 忠窮; 『高唐賦』叶: 容窮; 『老子』「洪德」叶: 沖窮; 『周書』「太子晉」叶: 窮宗
功	『詩』「七月」叶: 同功豵公; 「文王有聲」叶: 功豐; **「閟宮」叶: 蒙東邦同從功**; **『易』「需」叶: 窮中功**; 「師」叶: 凶寵邦功; 「解」叶: 衆中功; 『荀子』「成相」叶: 功鴻工江; 『秦策』「蘇秦始將連横章」叶: 攻撞功
東	『詩』「小星」叶: 東公同; 「旄邱」叶: 戎東同; 「桑中」叶: 葑東庸; 「伯兮」叶: 東蓬容; 「采苓」叶: 葑東從; 「東山」叶: 東濛; 「車攻」叶: 攻同龐東; 「大東」叶: 東空; **「閟宮」叶: 蒙東邦同從功**; 『楚辭』「哀郢」叶: 江東

〈표 4.7〉 '冬'과 '東'의 압운 관계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시경』의 압운 방식에 견해, 준거로 하는 문헌의 범위 등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학자가 압운자라고 주

32) 郑张尚芳(2003[2013])은 '東'과 '冬'의 현대음이 같아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이름인 '冬' 대신에 '終'을 사용한다.

장하는 글자가 다른 학자의 입장에서는 압운자가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위의 경우 논거로 사용된『주역』을 준거 집단에서 제외한다면 '東'과 '冬'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汪少华(1989:18)의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4.2. 모와 성모

부의 설정이 그랬던 것과 같이, 모의 배열도 주준성이 생각하는 고음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각 부 안의 모 배열을 통하여 주준성이 생각하는 성모(聲母)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그러나 상고음의 성모 연구는 쉽지 않다. 이는 선진문헌의 압운을 주된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운모와 달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상고시대에는 운서가 없었기에 그 당시의 음계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며, 또한 연구가 일어났던 청대에도 음성기호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음가를 추정한다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에 본고는 이에 중국어의 음운 변동이 집단적이고 규칙적이라는 데에서 착안하여 우선 중고음을 대표하고 있는『광운』의 자모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자모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33)]

33) 이재돈(2007:146)과 Pan & Zhang(2015:85)을 참조.

脣音	幇 滂 并 明
舌頭音	端 透 定 泥
舌上音	知 徹 澄 孃
齒頭音	精 淸 從 心 邪
正齒音(照二)	莊 初 崇 生
正齒音(照三)	章 昌 船 書 常
牙音	見 溪 羣 疑
喉音	云 以 影 曉 匣
半舌	來
半齒	日

〈표 4.8〉 중고음 성모

하나의 부 안에는 유사한 자질을 지닌 모(母)들 끼리 모여있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비록 모든 부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잘 관찰되지는 않으나, 경향성이 나타나는 부에서는 그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보인다. 경향성을 보이는 부로는 '豐'·'升'·'臨之習'·'頤'·'頤之革'·'孚'·'小'·'需'·'需之剥'·'豫'·'豫之澤'·'隨'·'解'·'履'·'履之日'·'泰'·'泰之月'·'乾'·'屯'·'坤'·'鼎'·'壯' 등 22개 부와 분부가 있다. 주준성은 비록 모의 배열에 있어서 성모를 고려하기는 했지만 이를 집필에 있어서 원칙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6개의 부와 분부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경향성이 보이는 부와 분부에서도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주준성이 성모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삼을 만큼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먼저 '豐'부를 살펴보자.

部	母	반절상자의 성모	그룹
豐	東	端	B*o*
豐	同	定	B*o*
豐	彤	定	B*o*
豐	中	知	C*o*
豐	夂	章	C*o*
豐	冢	知	C*o*
豐	眾	章	C*o*
豐	蟲	澄	C*o*
豐	充	昌	C*o*
豐	舂	書	C*o*
豐	工	見	E*o*
豐	公	見	E*o*
豐	容	以	I
豐	孔	溪	E*o*
豐	躬	見	E*o*
豐	廾	見	E*o*
豐	共	羣	E*o*
豐	鬨	羣	E*o*
豐	戎	日	H
豐	宂	日	H
豐	軵	日	H
豐	亶	以	I
豐	邕	影	F
豐	凶	曉	F
豐	尨	明	A
豐	覓	明	A
豐	弄	來	G
豐	丰	滂	A
豐	封	幫	A
豐	豐	滂	A
豐	从	從	D
豐	叢	從	D
豐	宗	精	D
豐	囪	初	D
豐	雙	生	D
豐	竦	心	D
豐	送	心	D
豐	夆	匣	F

〈표 4.9〉 '豐'부의 성모 그룹

‘豐’부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知’와 ‘章’이 번갈아 나옴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중고음에서 [+파열][-기식][-유성][-전설]의 공통 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히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澄’, ‘昌’ 중 ‘澄’는 중고음에서 ‘知’와 유성성만 차이를 보이며, ‘昌’은 ‘章’과 기식성만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음위치가 근접함과 조음방법의 유사성을 근거로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 수 있겠다. 뒤이어 ‘見’, ‘溪’, ‘羣’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설근음, 즉 연구개 파열음이다. 따라서 ‘公’에서 소리를 얻은 ‘容’이 중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을 근거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조금 더 아래에서는 ‘幫’, ‘滂’, ‘明’이 나오는데, 중간의 ‘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음][+파열]의 자질을 공유한다. 따라서 이들도 하나로 묶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從’, ‘精’, ‘初’, ‘生’, ‘心’ 역시 [+마찰][+전설]이라는 공통 자질로 묶을 수 있다. ‘豐’부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유사한 성모의 사례를 등장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간	성모	비고
1-3	端 定	舌頭音
4-10	知 章 澄 昌 書	舌上音, 正齒音(照三)
11-18	見 溪 羣	牙音. 13 제외
19-21	日	半齒
28-30	幫 滂	脣音
31-37	從 精 初 生 心	齒頭音, 正齒音(照二)

〈표 4.10〉 ‘豐’부의 구간 별 성모 배열

위를 통해 주준성은 음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조음 부위를 활용하였으며, 이것이 대체로 중고음의 분류와 맞아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주준성이 『광운』이 반영하고 있는 음운체계와 상고시대의 음운체계가 다름을 인식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 영향을 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舌上音과 正齒音(照三) 계열이 하나로 묶이고, 齒頭音과 正齒音(照二) 계열이 하나로 묶인다는 점이다. 중고음의 체계에서는 이들이 명백히 분리되므로, 이는 주준성이 생각한 상고음을 반영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전체 분포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본고는 주준성의 성모를 다음의 9개 군으로 나누었다.

	구강(O)		비강(N)		비고
A군	幇 滂 并		明		脣音
B군	B_O	端 透 定	B_N	泥	舌頭音
C군	C_O	知 徹 澄 章 昌 船 書 常	C_N	孃	舌上音 正齒音(照三)
D군	精 清 從 心 邪 莊 初 崇 生		-		齒頭音 正齒音(照二)
E군	E_O	見 溪 羣	E_N	疑	牙音
F군	影 曉 匣 云		-		喉音
G군	來		-		날자군
H군	日		-		
I군	以		-		

〈표 4.11〉 주준성의 성모 그룹

A군의 경우 구강음과 비음을 막론하고 네 개 성모가 뭉쳐있는 경향이 있다. B・C・E군은 구강음과 비음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어 각각 두 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G・H・I군은 다른 성모와 함께 등장하지 않고 해당 성모끼리만 뭉쳐있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臨(習 分部)', '乾'의 두 부를 예시로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자. 먼저 '臨'부의 '習'분부를 살펴보자.

部	分部	母	반절상자의 성모	그룹
臨	習	入	日	H
臨	習	十	常	C_O
臨	習	廿	日	H
臨	習	卅	心	D
臨	習	卌	生	D
臨	習	習	邪	D
臨	習	集	從	D
臨	習	㬎	清	D
臨	習	品	莊	D
臨	習	厶	從	D
臨	習	㬎	疑	E_N
臨	習	翌	生	D
臨	習	疊	定	B_O
臨	習	沓	定	B_O
臨	習	譶	定	B_O
臨	習	龖	定	B_O
臨	習	及	羣	E_O
臨	習	卒	孃	C_N
臨	習	帣	知	C_O
臨	習	立	來	G
臨	習	邑	影	F

〈표 4.12〉 '臨'부 '習'분부의 성모 그룹

'卅'부터 '厶'까지는 모두 [+마찰][+전설]이므로, '豐'부에서 언급된 모(母)들과 함께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그 뒤에는 '定'이 모여 나오는 모습이 관찰된다.

다음으로 '乾'부를 살펴보자.

部	母	반절상자의 성모	그룹
乾	寒	匣	F
乾	安	影	F
乾	萑	匣	F
乾	莧	匣	F
乾	丸	匣	F
乾	皿	曉	F
乾	元	疑	E_N
乾	冤	影	F
乾	夗	影	F
乾	亘(亘)	心	D
乾	暵	曉	F
乾	厂	曉	F
乾	反	並	A
乾	肭	影	F
乾	虩	疑	E_N
乾	焉	云	F
乾	衍	以	I
乾	燕	影	F
乾	次	邪	D
乾	閑	匣	F
乾	畢	匣	F
乾	顯	曉	F
乾	憲	曉	F
乾	縣	匣	F
乾	閔	匣	F
乾	妖	孃	C_N
乾	宦	匣	F
乾	幻	匣	F
乾	虞	疑	E_N
乾	原	疑	E_N
乾	邊	疑	E_N
乾	夏	曉	F

部	母	반절상자의 성모	그룹
乾	肰	日	H
乾	戾	日	H
乾	善	常	C_O
乾	幵	見	E_O
乾	畫	溪	E_O
乾	罔	見	E_O
乾	肩	見	E_O
乾	閒	見	E_O
乾	柬	見	E_O
乾	擧	見	E_O
乾	建	見	E_O
乾	見	見	E_O
乾	干	見	E_O
乾	辛	溪	E_O
乾	看	溪	E_O
乾	侃	溪	E_O
乾	肙	影	F
乾	官	見	E_O
乾	毋	見	E_O
乾	卵	來	G
乾	盥	見	E_O
乾	耑	端	B_O
乾	丹	端	B_O
乾	旦	端	B_O
乾	短	端	B_O
乾	彖	透	B_O
乾	華	幫	A
乾	般	幫	A
乾	半	幫	A
乾	扶	並	A
乾	萬	明	A
乾	芇	明	A

部	母	반절상자의 성모	그룹
乾	曼	明	A
乾	采	並	A
乾	覓	並	A
乾	宀	明	A
乾	緜	明	A
乾	鼻	明	A
乾	面	明	A
乾	片	滂	A
乾	緜	並	A
乾	煩	並	A
乾	楙	並	A
乾	丮	滂	A
乾	叙	從	D
乾	殉	從	D
乾	贊	精	D
乾	椒	心	D
乾	筭	心	D
乾	算	心	D
乾	祘	心	D
乾	爨	清	D
乾	彝	書	C*o*
乾	扇	書	C*o*
乾	山	生	D
乾	刪	生	D
乾	弼	崇	D
乾	頗	崇	D
乾	叀	章	C*o*
乾	豎	知	C*o*
乾	延	徹	C*o*
乾	穿	昌	C*o*
乾	斷	定	B*o*
乾	戔	從	D

部	母	반절상자의 성모	그룹
乾	雋	從	D
乾	泉	從	D
乾	全	從	D
乾	前	從	D
乾	薦	精	D
乾	廛	澄	C_O
乾	連	來	G
乾	聯	來	G
乾	䜌	來	G
乾	鬲	來	G
乾	𪉖	心	D
乾	尠	心	D
乾	𡨦	曉	F

〈표 4.13〉 '乾'부의 성모 그룹

우선 '匣', '影', '曉'가 몰려나오는 구간이 관찰된다. 이들은 모두 후음이므로 큰 무리 없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다음으로 '見'과 '溪'가 연속되는 구간이 보인다. 이들 역시 '豐'부에서 연구개 파열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아래에는 '幫', '滂', '並', '明'이 연속되는 구간이 있다. 이들은 모두 순음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從', '精', '心', '淸'이 나오는 구간이 보인다. 이들도 '豐'부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마찰][+전설]이라는 공통 자질로 묶을 수 있다.

이상으로 주준성의 모(母) 배열 순서를 근거로 하여 주준성이 생각하는 성모의 그룹을 살펴보았다. 주준성은 순음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구강음과 비음을 구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룹화의 기준으로 주로 조음부위를 활용하고 있다. 그 외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설상음・정치음(三等)과 치두음・정치음(二等)이 각각 합쳐져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후대 학자들의 설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

우선 전대흔(錢大昕)의 설을 살펴보자. 전대흔은 주준성의 스승으로, 운부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던 청대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성모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다. 전대흔의 연구에 의하면 중고음에 있는 설두음(端系)과 설상음(知系)은 상고시대에 구분되지 않았다. 또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설두음(端系)와 정치음 중 三等(章系)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34] 그렇다면 설상음(知系)과 정치음 三等(章系)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가까운 관계가 있게 된다. 『설문통훈정성』에서는 설상음과 정치음 三等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있는데, 설두음과 설상음을 한 그룹으로 묶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스승 전대흔의 연구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황간(黃侃)의 설을 살펴보자. 황간은 "해성자, 성훈, 이문 등 고대 자료와 현대 방언 등 자료"를 통해 볼 때 "상고 시기에 照二 '莊'계와 치음인 '精'계 사이에 음운상의 구별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35] 이는 우리가 위에서 그룹으로 귀납한 결과와 상통한다. 일반적으로 '莊'계와 '精'계를 하나의 성모로 보는 것은 황간이 처음이라고 보고 있으나, 본고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그 원류는 주준성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다.

청대 고음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구체적 음가를 표기할 수 있는 부호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운모와 달리 연구를 위한 자료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개별 음의 재구를 바라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그룹화된 사고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며, 그 자체로도 충분히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슷한 자질을 지닌 음들이 군집을 이루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준성 역시 각 성모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34) 이재돈(2007:285-288) 참조.

35) 이재돈(2007:287) 참조.

5. 결론

본고는 주준성의 『설문통훈정성』의 체례와 그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주준성의 상고음 체계를 고찰하였다.

『설문통훈정성』의 제목은 본의와 자형의 측면에서 『설문해자』와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설문', 여러 문헌에서 추출한 근거를 활용하여 본의・가차의・인신의를 밝히는 '통훈', 그리고 자형을 통해 낱자를 소리를 통해 묶는 '정성'으로 되어 있다. 이 세 측면은 『설문통훈정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나, 「자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준성 본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정성', 곧 상고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통훈정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통훈'의 측면에 주목하였으며, '정성' 부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이에 청대 학술사의 맥락에서 주준성과 『설문통훈정성』의 위치를 새로이 자리매김하고, 『설문통훈정성』의 체례를 소리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체례의 분석을 통해 주준성이 생각하는 상고음의 체계를 엿보았다.

『설문통훈정성』의 체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설문통훈정성』은 『설문해자』의 구성방식인 형태 요소에 근거한 540개의 부를 해체하고, 18개의 운부로 모든 글자를 새로이 엮었다. 이러한 운부 설정의 근거는 『시경』을 비롯한 선진문헌이다. 이는 자서이면서도 운서인 『설문통훈정성』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서」에서 언급한 "경서의 운으로 무리의 소리를 정한다[以經之韻定眾聲]"와 상통한다.

둘째, 『설문통훈정성』에서 인접한 운부들 사이에는 음전(音轉)의 관계가 있다. 즉, 인접한 운부들 사이에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압운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자서」의 "통전의 이치에 따라 바른 소리와 바뀐 소리를 정한다[以通轉之理定正聲變聲]"라는 말에도 반영되어 있다.

셋째, 『설문통훈정성』의 각 운부 안의 글자들은 동일한 소리 요소를 공유하는 '모(母)'로 그룹화 되어있다. 이는 「자서」에서 밝힌 대로 "글자의 몸에 따라 하나의 소리를 정한다[以字之體定一聲]"는 원칙이 반영된 결과이다.

넷째, 『설문통훈정성』에서 각 모들은 유사한 성모를 지닌 것끼리 모여 있는 경향성이 있다. 비록 이는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준성이 생각하는 상고 성모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설문통훈정성』이 담고 있는 상고 음운 체계와 그 학술사적 맥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통훈정성』은 입성의 처리에 있어서 절충적인 위치에 있다. 학술사적으로 당시에는 입성이 음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입성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다. 주준성은 기본적으로 입성을 음성운 안에 귀속시키되, 그 안에서 분부를 나누어 구분하는 방법을 취했다.

둘째, 『설문통훈정성』은 직접적으로 음성과 양성을 대응시키지는 않았지만, 각 부 머리의 주석을 통해 그 대응관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분부가 없는 부의 첫 부분에는 '分部同A'라는 표기가 있는데, 이는 A부와 분부를 공유한다는 뜻이다. 이는 입성을 음성운과 양성운 모두에 대응시킨 강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셋째, 주준성은 知계 성모와 章계 성모를 유사하다 여겼으며, 精계 성모와 莊계 성모를 유사하다 여겼다. 知계와 章계의 관계는 전대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精계와 莊계의 관계는 지금까지는 황간이 최초로 제시하였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설문통훈정성』에 반영된 성모 체계를 고려하면, 이 설의 원류는 주준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설문통훈정성』의 체례와, 체례가 담고 있는 음운 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설문통훈정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진일보한 연구를 위한 기초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각 문헌의 漢字는 출판시의 자형을 기준으로 기록하였으며, 각 항목은 저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우선 배열하였다. 신해혁명 이후의 중화권 저자는 한어병음을 기준으로 정렬하였다.

[漢] 孔安國 傳, [唐] 孔穎達 疏,『尙書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漢] 毛亨 傳, [漢] 鄭玄 箋, [唐] 孔穎達 疏,『毛詩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漢] 許愼 撰, [宋] 徐鉉 校,『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2013.

[漢] 許愼 撰, [淸] 段玉裁 注,『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淸] 朱駿聲,『說文通訓定聲』道光二十八年刻本.

[淸] 朱駿聲,『說文通訓定聲』臨嘯閣本
(董蓮池 主編,『說文解字硏究文獻集成 古代卷』 第五冊, 北京: 作家出版社, 2006.)

[淸] 朱駿聲,『說文通訓定聲』臨嘯閣 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2016.

[淸] 朱駿聲,『說文通訓定聲』影印本
(朱鏡蓉 參訂, 臺北: 世界書局, 民國74年)

박홍수,『朱駿聲說文學硏究』, 國立臺灣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94. (『《說文通訓定聲》硏究』, 香港: 香港文匯出版社, 2006.)

박홍수,「《說文通訓定聲》의 가치와 영향」,『中國學硏究』第10輯, 1995, 251-267.

박홍수,「朱駿聲 說文學의 創見」,『中國語文學』第25輯, 1995, 179-192.

박홍수, 「《說文通訓定聲》 體例 考」,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第30輯, 1997, 205-220.

박홍수,「朱駿聲《說文》學의 成就」,『中國語文學誌』第5輯, 1998, 275-305.

박홍수,「从右文说看《说文通训定声》」,『南京师范大学文学院学报』, 2001.04, 61-66.

박홍수,「《说文通训定声》在汉字研究上的意义」,『中国文字研究』, 2009.01, 92-97.

박홍수, 「『說文通訓定聲』的字義系統」, 『中國研究』 第45卷, 2009, 191-199.
신원철, 『《經傳釋詞》에 나타난 因聲求義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재돈, 『중국어음운학』, 서울: 학고방, 2007.
이재혁, 「以函數試析《說文解字》 —— 組合拆分關係的再理解」, 『漢字研究』 Vol.9.3, 2017, 179-197.

Pan & Zhang. "Middle Chinese Phonology and Qieyun" in Wang & Sun (eds.). *The Oxford Handbook of Chinese Linguis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80-90.
董国华, 『汉字谐声与古音研究史论』, 福建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2014.
董同龢, 『漢語音韻學』, 臺北: 文史哲出版社, 民國78.
郭錫良 外, 『古代漢語』, 北京: 商務印書館, 2009.(初版: 1981).
(중국 고대 언어와 문헌 연구공동체 학이사 譯, 『고대중국어: 한문학습의 길잡이』, 2012.)
郭沫若 主編,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編, 『甲骨文合集』, 上海: 中華書局, 1982.
郭在貽, 『訓詁學』 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2005.
何久盈, 『中国古代语言学史』 第4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3. (初版: 1985)
胡奇光, 『中國小學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7.
(이재석 譯, 『中國小學史』, 서울: 동문선, 1997.)
柯明傑, 『朱駿聲《說文通訓定聲》之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2008.
柳苗苗, 「《说文通训定声》"工"部字声符表义研究」, 『文教资料』 2013年 第31期, 2013, 155-156.
羅卓文, 「朱駿聲及其《六十四卦經解》述要」, 『通識教育學報』 第14期, 2008, 33-61.
牛夢倩, 『《說文通訓定聲》陽聲韻部同族詞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8.
鍾哲宇, 「清代至近代《說文》學之轉向: 論朱駿聲《說文通訓定聲》學術地位之變化」, 『東吳中文學報』 第30期, 2015.11, 269-291.
少华, 「《说文通训定声》声符的数目」, 『辞书研究』, 1989, 47.
王达津 主编, 南开大学古籍整理研究所 选编, 『清代经部序跋选』, 天津: 天津古籍出

版社, 1991.
汪少华,「朱骏声的古韵研究贡献」,『江西教育学院学报』, 1989, 14-18.
王素敏,『朱骏声的转音理论及其古韵分部』, 华中科技大学 硕士学位论文, 2010.
王力,『中国语言学史』, 北京: 中华书局, 2013. (初版: 1981)
王力,『汉语音韵』, 北京: 中华书局, 2013. (初版: 1963)
杨剑桥,「《说文通训定声》"自叙"注」,『语言研究集刊』, 2009, 332-342.
杨淑丽,『《说文通训定声》声符研究浅探』, 湖南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8.
张民权,「王夫之《诗经叶韵辨》述评」,『语言研究』, 2000 第1期, 102-106.
郑张尚芳,『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3. (初版: 2003)

『中國基本古籍庫』,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부록 1〕『說文通訓定聲』「自敘」 譯注

說文通訓定聲自敘

1

天地間有形而後有聲, 有形聲而後有意與事. 四者, 文字之體也.
意之所通而轉注起焉, 聲之所比而假借生焉. 二者, 文字之用也.
하늘과 땅 사이에 모양이 있은 뒤에 소리가 있고, 모양과 소리가 있은 뒤에 뜻과 일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문자의 몸이다.
뜻이 통하는 바에서 전주가 일어나고, 소리가 비하는 바에서 가차가 생겨난다. 이 두 가지는 문자의 쓰임이다.

☞ 흔히 한자의 구성요소를 형・음・의라 한다. 주준성의 인식에 따르면 이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있다. 가장 먼저 모양이 있는데, 이는 초기의 한자가 상형자에서부터 시작했음을 언급한 것이다. 모양 다음에는 소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한자의 표음적 기능이 회의자나 지사자보다 먼저 생겨난 것이라는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주준성이 말하는 '전주'란 곧 인신이며 '가차'란 동음통가이다.

☞ 이 구절은 육서에 대한 여러 학설 중 四體二用說을 반영하고 있다. 사체이용설이란 상형・지사・회의・형성・전주・가차의 여섯 가지 중 앞의 넷이 문자의 분류이고 뒤의 둘이 문자의 활용이라는 견해이다.

☞ 『설문통훈정성』「자서」의 글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두 문장씩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竊謂轉注肇於黃倉, 形體寡而衍義;
假借濫於秦火, 傳寫雜而失真.
내 생각에, 전주는 황제와 창힐에서 시작된 것으로, 형체는 적은데 뜻이 넘치

는 것이며, 가차는 진나라의 불길에서 시작된 것으로, 잡스럽게 베껴 쓰다가 참된 것을 잃은 것이다.

☞ 전설에 의하면 창힐(蒼頡)은 황제(黃帝)의 좌사(左史)였는데, 눈이 네 개였다. 흔히 한자의 탄생과 관련된 설화에서 한자의 창조자로 언급된다. 일각에서는 만약 창힐이 존재했다면, 그가 한자를 직접 창조했다기보다는 정리 작업에 종사한 지식인이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 형체가 적은데 뜻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의 시각부호에 부여된 의미가 많다는 것이다. 어떠한 한자에는 본래 본의만 존재했을 것이나, 의미의 확장이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 잡스럽게 베껴 썼다는 것은 곧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글자로 원본의 글자를 대체하였음을 나타낸다.

而幻丸之屬, 反正推移, 造字之轉注, 不離乎指事也.

咸需之倫, 悉頴通變, 造字之假借, 不外乎諧聲也.

'幻'과 '丸'의 부류는 바른 것을 뒤집어 미루어 옮겨지니, 조자의 전주는 지사를 떠날 수 없다.

'咸'과 '需'의 부류는 '悉'과 '頴'로 통하여 변하니, 조자의 가차는 해성 밖에 있지 않다.

☞『說文解字』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幻, 相詐惑也. 从反予.

丸, 圜, 傾側而轉者. 从反仄.

이 두 글자는 모두 기존에 존재하던 지사자를 뒤집은 것이다. 이는 인신이 이루어질 때 자형에 회전 등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說文解字』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咸, 皆也. 悉也. 从口从戌. 戌, 悉也.

需, 頴也. 遇雨不進, 止頴也. 从雨而聲.

'咸'과 '需'는 각각 '悉'과 '頴'로 풀이된다. '咸'에 대해 주준성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許意以戌爲悉, 謂造字之叚借. 愚按: 造字有省文之叚借無聲近之叚借. 如會之曾卽增, 艮之七卽比, 望之壬卽廷, 制之未卽味, 辭・辟之辛卽辠, 皆省文也. 造字不

得有聲近之借. 竊謂, 咸者, 鹹字之古文, 齧也.

허신의 뜻은 '戌'이 '悉'라고 여긴 것으로, 조자의 가차를 말한 것이다. 내 생각에 조자에 있어서 글자를 생략한 가차에는 소리가 가까운 가차가 없다. 예컨대 '會'의 '曾'은 곧 '增'이고, '艮'의 '七'은 곧 '比'이고, '望'의 '壬'은 곧 '廷'이고, '制'의 '未'는 곧 '昧'이고, '辭'와 '辟'의 '辛'은 곧 '辠'이다.

주준성은 가차에 대해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이 가까운 것이 상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至於叢脞、參差, 連綿而始肖其誼;

弟兄、爾汝, 依託而本無其文.

'叢脞'와 '參差'는, 연면한 것으로 처음부터 그 뜻을 본뜬 것이고, '弟兄'과 '爾汝'는 의탁한 것으로 본래 그 글자가 없는 것이다.

☞ 연면사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다음절 단어이다. 고대 중국어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나, 간혹 다음절 단어가 있다. 이들을 개별 글자로 나누어 분석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주준성은 이 단어들이 한자의 의미와 관계없이 소리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으며, 합성어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 『설문해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弟, 韋束之次弟也.

兄, 長也.

爾, 麗爾, 猶靡麗也.

汝, 水. 出弘農盧氏還歸山, 東入淮.

이들은 친족의 명칭이나 인칭대명사로, 글자의 본의와 무관하게 소리에 의하여 글자가 부여되었다.

取類多耑, 拘虛少悟.

부류를 취하는 데에 마음대로 함이 많으면, 헛된 것에 얽매여 깨달음이 적다.

☞ '耑'은 '專'과 같다.

☞ 위에서 논의하였듯 자형과 관계없이 글자가 부여된 단어들을 분석할 때에 소리에 주목하지 않고 억지로 자형을 끌어들여 해설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不知假借者, 不可與讀古書.
不明古音者, 不足以識假借.
가차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옛 책을 읽을 수 없다.
고음에 밝지 못한 자는 가차를 알 수 없다.

☞ '與'는 '以'와 같다.
『禮記』「玉藻」: 大夫有所往, 必與公士爲賓也.
王引之『經傳釋詞』卷一: 言必以公士爲擯也.

☞ 두 구절을 엮어서 생각하면 곧 고음에 밝지 않으면 옛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此《說文通訓定聲》一書所爲記也.
이것이 이 <설문통훈정성>이라는 책을 쓴 이유이다.

夫三代秦漢之嬗, 聲以世遷,
九州南北之迢, 言因方易.
무릇 삼대와 진한의 변화에 따라, 소리는 세세로 옮아가고, 구주와 남북의 차이에 따라 말은 곳곳마다 바뀐다.

☞ 嬗: 변화
☞ 迢: 요원함
☞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언어가 변화함을 나타낸 것이다.

欲撟古今之舌而出於一軌, 固所不能;
將執經史之文而歙以一筒, 尤有不可.
고금의 말을 바로잡고자 하나, 하나의 궤에서 나오면 참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경사의 글을 잡고서 하나의 대통으로 불고자 하면 더욱 안 되는 것이다.

☞ '歙'는 '吹'와 같다.

然則當如之何?
曰：以字之體定一聲,
以經之韻定眾聲,
以通轉之理定正聲、變聲,
三者皆從其朔而已.
그렇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글자의 몸에 따라 하나의 소리를 정하고, 경서의 운에 따라 무리의 소리를 정하고, 통전의 이치에 따라 바른 소리와 바뀐 소리를 정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모두 그 근본을 따르는 것일 따름이다.

☞ 이 구절은 『설문통훈정성』의 체례에도 반영되어있다.
☞ 글자의 몸에 따라 하나의 소리를 정한다는 것은 성부(聲符)를 공유하는 한자들을 '모(母)'를 기준으로 모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서의 운에 따라 무리의 소리를 정한다는 것은 선진문헌의 압운 현황을 분석하여 운부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통전의 이치에 따라 바른 소리와 바뀐 소리를 정한다는 것은 인접한 운부 사이에 '전음(轉音)'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曷言乎, 以字之形定一聲也?
글자의 모양에 따라 하나의 소리를 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東、重、童、龍, 數傳只循其舊;
朿、帝、啻、適, 萬變不離其宗.
'東', '重', '童', '龍'은 여러 번 전해져도 그 본래의 것을 따르며, '朿', '帝', '啻', '適'은 수없이 변해도 그 근본을 떠나지 않는다.

☞ 『설문해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重, 从壬東聲.

童, 从辛重省聲.

龍, 从肉, 飛之形, 童省聲.

이들은 모두 '東'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글자들이며, 모두 첩운관계에 있다.

☞『설문해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帝, 从丄朿聲.

啻, 从口帝聲.

適, 从辵啻聲.

이들은 모두 '朿'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글자들이며, 모두 쌍성관계에 있다.

融、強, 秋、梓之省文, 徵諸古籀.

迹、狄, 豐、農之庳響, 正於昔聞.

'融'・'強', '秋'・'梓' 등의 생략된 글자는 옛 주문으로부터 뽑아오고, '迹'・'狄', '豐'・'農' 등의 본래 소리는, 예로 들은 바로부터 바로잡았다.

☞ '融( )'의 주문(籀文)은 ' '로, 소리부분인 '蟲'을 더 잘 보여준다. 즉, 정전(正篆)보다 주문이 더 소리를 잘 보여주면 이를 우선적으로 취했다는 것이다.

☞ 庳: 시작

豕、冢, 兀、元, 轉由一語;

朱、權, 廿、竊, 從豈兩聲.

'豕'・'冢', '兀'・'元'은 하나의 말에서 옮겨진 것이다. '朱'・'權', '廿'・'竊'가 따르는 것은 어찌 두 개의 소리이겠는가.

☞ 주준성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冢, 高墳也. 从勹豕聲. 冢豕, 一聲之轉.

중고음에서 '豕'는 성모가 '書', 운모가 '紙'이고, '冢'은 성모가 '知', 운모가 '腫'이며, '豕'은 성모가 '徹', 운모가 '燭'이다. 즉, '冢'과 '豕'은 모두 설상음(舌上音) 성모와 아음(牙音) 운미를 지닌다. 반면 '豕'는 정치음(正齒音) 성모에 음성운이다. '一聲之轉'이라는 말에서 미루어볼 때, 둘 사이에는 음운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서」의 '豕'는 '豕'으로 써야 마땅하다.『淸代经部序跋选』에서는 '豕'로 쓰고 있는 반면, 杨剑桥(2009)에서는 '豕'

로 쓰고 있다. 이는 특정 판본의 활자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 중고음에서 '兀'은 성모가 '疑', 운모가 '沒'이며, '元'은 성모가 '疑', 운모가 '元'이다. 둘은 같은 성모를 공유한다. '兀'은 '履'부에 속하고 '元'은 '乾'부에 속하는데, '履'부의 주석에는 '轉泰乾屯'이라 되어있다. 즉, 두 글자가 속한 운부끼리는 음전의 관계가 존재한다.

☞ 『설문해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韰, 墜也. 从韭. 次朱皆聲.

竊, 盜自中出曰竊. 从穴从米. 离廿皆聲. 廿, 古文疾. 离, 古文偰.

즉, 허신은 '韰'와 '竊'을 모두 두 개의 소리 부분을 가진 글자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杨剑桥(2009)는 주준성의 풀이를 인용하여, 주준성이 이러한 허신의 분석에 반대하여 두 글자 모두 하나의 소리 부분만을 가진다고 주장했음을 지적하였다. 주준성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韰, …… 按: 从韭从次, 會意. 細切勻之有敘也. 朱聲. 『說文』云'兩聲'者, 韰竊二文. 离亦非聲也.

竊, …… 按: 廿者, 卄字. 古文或借'廿'爲'疾'耳. 廿疾雙聲. 此字當訓"蟲私取米食也". 从禼从穴米, 會意. 以米爲穴也. 𥫗省聲.

呂、鬲、容、尊, 於重文而得母;

棘、弓、卯、鼂, 因闕讀而疑音.

'呂'·'鬲'·'容'·'尊'은 중문(重文)으로부터 모(母)를 얻고, '棘'·'弓'·'卯'·'鼂'은 읽는 법이 빠져있어 소리를 의심한다.

☞ 주준성은 고문(古文)이나 주문(籀文)과 같은 중문(重文)이 소리를 정전(正篆)보다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경우 중문을 정전보다 우선시하였다.

☞ 『설문해자』에서 '棘'·'弓'·'卯'·'鼂'은 모두 발음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此齊桓伐莒之謀, 東郭能言其狀;

光武命名之義, 九禾可訂其聲者也.

이는 제(齊) 환공(桓公)이 거(莒)를 벌하려는 계략을 동곽(東郭) 씨가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며, 광무제가 이름 붙여진 이유를 '九禾'를 통해 그 소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 東郭: 東郭牙

『여씨춘추(呂氏春秋)』「중언(重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齊桓公與管仲謀伐莒, 謀未發而聞於國, 桓公怪之曰: "與仲父謀伐莒, 謀未發而聞於國, 其故何也?" 管仲曰: "國必有聖人也." …… 少頃, 東郭牙至.管仲曰 : 「此必是已.」…… 管子曰: "子邪言伐莒者?" 對曰: "然." …… 管仲曰: "我不言伐莒, 子何以意之?" 對曰: " …… 君呿而不吟, 所言者'莒'也. …… 臣故言之." 凡耳之聞以聲也, 今不聞其聲, 而以其容與臂, 是東郭牙不以耳聽而聞也.

제환공이 관중과 거나라를 칠 계획을 논의하였는데, 논의한 내용을 공포하지 않았는데도 나라에 소식이 퍼졌다. 환공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말했다. "당신과 거나라를 칠 계획을 논의하였는데, 논의한 내용을 공포하지 않았는데도 나라에 소식이 퍼졌으니, 이는 어찌된 까닭이오?" 관중이 말했다. "반드시 나라에 성인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잠시 후 동곽아가 도착했다. 관중이 말했다. "반드시 이 사람이 맞을 것이다." …… 관중이 말했다. "당신이 거나라를 치는 것에 대해서 떠들고 다닌 사람이오?" [동곽아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 관중이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거나라를 칠 것이라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추측하였소?" 그가 대답하였다. " …… 임금께서 입을 크게 벌리시고 입을 다물지 않으셨으니, 말한 것은 '거나라'일 것입니다. …… 신은 그렇기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릇 귀는 소리를 듣는다. 지금 소리를 듣지 않고 얼굴과 팔을 들었으니, 이는 동곽아가 귀로 듣지 않고도 들은 것이다.

☞ 한(漢) 광무제(光武帝)의 휘(諱)는 '秀'이다. 『후한서(後漢書)』「광무제기하(光武帝紀下)」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皇考南頓君初爲濟陽令, 以建平元年十二月甲子夜生光武於縣舍, 有赤光照室中. 欽異焉, 使卜者王長占之. 長辟左右曰: "此兆吉不可言." 是歲縣界有嘉禾生, 一莖九穗, 因名光武曰秀.

돌아가신 남돈군(南頓君; 유흠; 劉欽)이 처음 제양 현령이 되었을 때, 건평 원년 12월 갑자일 밤에 현사에서 광무제를 낳으셨는데, 방에 붉은 빛이 내리쬐었다. 유흠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점쟁이 왕장에게 점을 치게 하였다. 왕장이 측근들을 피하여 말하였다. "이 점괘는 말하지 못할 정도로 길하오." 이 때 현의 경계에 가화(嘉禾)가 자라났는데, 한 줄기에 이삭이 아홉이나 달렸다. 그래서 광무제의 이름을 '秀'라 하였다.

이에 대해 주준성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秀, 上諱. 按: 此字許君避光武諱, 不書不著說解. 漢時諱秀之字爲茂也. …… 考光武生濟陽縣舍, 是歲縣有嘉禾, 一莖九穗, 因名秀. 據此, 以禾九爲說, 疑字體从禾九聲也.

이는 곧 '秀'가 '九'로부터 소리를 얻었다는 것이다. '秀'와 '九'는 모두 '孚'부에 속한다.

3

曷言乎, 以經之韻定眾聲也?

경서의 운으로 여러 소리를 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火諧衣穉, 知與燬字同訝;

朝叶苗高, 信自舟聲少變.

'火'가 '衣'・'穉'와 해성이니 '燬'자와 같은 소리임을 알며, '朝'가 '苗'・'高'와 협운이니 '舟'의 소리로부터 변함이 적음을 믿는다.

☞ '火'와 '燬'는 『설문해자』에서 호훈(互訓) 관계에 있다.

☞ 『설문해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鞠(朝), 旦也. 从倝舟聲.

즉, '朝'는 '舟'에서 소리를 얻은 것이다.

侮雖每而異母, 朋尤鳳而殊風, 音別求裘, 部分戲雀.

'侮'는 비록 '每'에서 소리를 얻었으나, '母'가 다르고, '朋'은 '鳳'이지만 '風'이 다르니, 소리는 '求', '裘'를 구분하고, 부는 '戲', '雀'을 나눈다.

☞ 『설문해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侮, 傷也. 从人每聲.

☞ 『설문해자』에 의하면 '朋'은 '鳳'의 고문이다.

☞ 杨剑桥(2009)에 의하면 '侮'는 '需'부이나 '每'는 '頤'부이고, '朋'은 '升'부이나

'鳳'은 '臨'부이며, '求'는 '孚'부이나 '裘'는 '頤'부이고, '戲'은 '泰'부이나 '雀'은 '小'부이다.

그러나 '截'과 '雀'은 모두 '小'부의 '犖' 분부에 속한다. 汪少华(1989)는 「자서」에서 부를 구분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부에 귀속시킨 주준성의 비일관성을 비판한 바 있다.

或句中而安韻, 召旻歲旱之章;

或一語而成歌, 周頌駿奔之什.

혹 구절 중에서 압운을 하기도 하니, 「召旻」 중 「歲旱」의 장이요, 혹 하나의 말로 노래를 이루기도 하니, 「周頌」의 「駿奔之什」이라.

☞ 『시경(詩經)』 「대아(大雅)」 「소민(召旻)」의 '歲旱'장은 다음과 같으나, 어떻게 압운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如彼歲旱, 草不潰茂.

如彼棲苴.

我相此邦, 無不潰止.

杨剑桥(2009)에 의하면 고염무는 이 장에 운자가 없다고 보았으며, 주준성은 '潰'를 운자로 보았다. 주준성의 견해에 따르면 각 구의 세 번째 글자인 '潰'가 압운되었으므로 구중운(句中韻)이 된다.

☞ '駿奔'은 『시경』 「주송(周頌)」 「청묘(淸廟)」에 보이며,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於穆清廟, 肅雝顯相.

濟濟多士, 秉文之德.

對越在天, 駿奔走在廟.

不顯不承, 無射於人斯.

하나의 말로 노래를 이룬다는 것은 시가 한 장(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杨剑桥(2009)에 의하면 '一語而成歌'의 의미는 해당 시에 운자가 없다는 것이다.

靡膴、伊淢, 腜洫, 當證之韓嬰;

螟螣、春揄, 蟦舀, 堪稽于許慎.

'靡膴'와 '伊淢'은 '腜'와 '洫'로, 마땅히 한영(韓嬰)으로 증명하며, '螟螣'과 '春

揄'는 '蟦'과 '舀'는 능히 허신에게로 상고할 수 있다.

☞ 한영(韓嬰)은『한시내전』과『한시외전』을 지었으나『한시내전』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靡膴'는『시경』「소민(小旻)」편, '伊淢'은「문왕유성(文王有聲)」편에 등장한다.

杨剑桥(2009)에 의하면『한시외전』에는 '靡膴'의 '膴'가 '腜'로 되어있으며, '伊淢'의 '淢'이 '膴'로 되어있다. 전래본『시경』의 원문에서 이들은 해당 장에서 압운되지 못하나,『한시외전』의 글자를 따르면 압운이 가능하다.

☞ '螟螣'은『시경』「대전(大田)」편, '春揄'는 '或春或揄'의 형태로「生民」편에 등장한다.

杨剑桥(2009)에 의하면『설문해자』에서 '螟螣'은 '螟蟦'으로, '或春或揄'는 '或簸或舀'로 인용되어 있다. 이들 역시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설문해자』에 인용된 글자를 따라야 자연스럽게 압운된다.

考工鄭注, 其鎛斯掤;
屈子王箋, 誶予不顧.
考工의 정현 주에서는 '其鎛斯掤'라 하였고,
屈子의 왕일 전에서는 '誶予不顧'라 하였다.

☞ 두 구절 모두 주석에서『시경』을 인용한 사례를 든 것이다. '考工鄭注'는『주례(周禮)』의「고공기(考工記)」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석을 말한다. '屈子王箋'은 왕일(王逸)의『초사장구(楚辭章句)』를 말한다.「양사(良耜)」편에서는 '其鎛斯趙'가 등장하고,「묘문(墓門)」편에는 '訊予不顧'가 등장한다. '趙'와 '掤'는 독음이 가까우며, '誶'와 '訊'은 쌍성이다.

焞爲推而怛爲慙, 可讀班書;
答爲對而睪爲筴, 當從古寫.
'焞'이 '推'이고 '怛'이 '慙'라는 것은 반고의『한서(漢書)』를 읽으면 되고, '答'이 '對'이고 '睪'이 '筴'이라는 것은, 옛 필사를 마땅히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 杨剑桥(2009)에 의하면『시경』「채기(采芑)」편에서 '焞'은 출운(出韻)이나,『한서』「위현전(韋賢傳)」에서 인용한 바에서는 '推'로 되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압운된다. 마찬가지로『시경』「비풍(匪風)」편에서 '怛'은 출운이나,『한서』「왕

공양공포전(王貢兩龔鮑傳)」에서는 '慰'로 인용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압운된다.

다만『武英殿二十四史』본『한서』에서는 '怛'이 그대로 되어있다.

☞ 杨剑桥(2009)에 의하면『시경』「우무정(雨無正)」편에서 '答'은 출운이나,『한서』「가추매로전(賈鄒枚路傳)」에서 인용한 바에서는 '對'로 되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압운된다. 마찬가지로『시경』「체두(杕杜)」편에서 '睘'은 출운이나, 장형(張衡)의『사현부(思玄賦)』에서 인용한 바에서는 '煢'으로 되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압운된다. 이들은 옛 필법으로 추정된다.

淺幭即群經之辟, 脩翹誤俗字之翛.

'淺幭'은 곧 여러 경전의 '辟'이고, '脩翹'는 잘못되어 속자의 '翛'가 되었다.

☞ '淺幭'는 '淺辟'로도 쓰며,『시경』「한혁(韓奕)」편에 등장한다. '脩翹'는 '予尾翛翛, 予室翹翹'의 형태로『시경』「치효(鴟鴞)」편에 등장한다.

杨剑桥(2009)에 의하면 주준성은 출운인 '幭'이 곧 '辟'이라고 보았으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압운이 된다. 또한 주준성은 '翛'를 '脩'의 잘못이라 보았다.

求福不那, 易儺而語言方合;

飲酒之餼, 變餚而義訓始通.

'求福不那'라는 구절에서 '儺'로 바꾸면 말이 비로소 맞고,

'飲酒之餼'라는 구절에서 '餚'로 바꾸면 뜻이 비로소 통한다.

☞『시경』「한록(旱麓)」편에는 '求福不回'가 있으며,「상호(桑扈)」편에는 '受福不那'가 있다.『설문해자』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魖, 見鬼驚詞. 从鬼, 難省聲. 讀若詩'受福不儺'."라 하였다.

☞『시경』「상체(常棣)」편에는 '飲酒之飫'라고 되어있다.『설문해자』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餼, 燕食也. 从食芺聲. 詩曰: '飲酒之餼'."라 하였다.

杨剑桥(2009)에 의하면 '餼'는 오늘날 '飫'라고 쓰며,『설문해자』의 풀이를 고려할 때, 의미적으로 '飲酒之飫'는 '飲酒之餚'가 되어야 한다.

此郭商之誦湯, 可用九有爲九域;

楚莊之偁武, 疑以一句爲一章者也.

이는 鄣商이 탕을 노래함에 九有를 써서 九域가 되게 하는 것이고,
楚莊이 武를 이야기함에 의심컨대 一句를 一章으로 하는 것이다.

☞ '鄣'는 은나라 봉국(封國)의 이름이다.

☞ 『시경』 「상송(商頌)」 「현조(玄鳥)」편에 '奄有九有'라 되어있는데, 『모시(毛詩)』에서는 "九有, 九州也"라고 해석하고 있다.

☞ 杨剑桥(2009)에 의하면 주준성은 허신이 『설문해자』에서 '武'에 대해 『좌전』을 인용하여 '止戈爲武'의 회의자로 본 것에 반대하였다. 주준성은 '止戈爲武'를 본의의 해설이 아니라 아래에 이어질 내용에 대한 개괄이라 주장하였다.

4

曷言乎, 以通轉之理定正聲、變聲也?
통전의 이치로 바른 소리와 변한 소리를 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關叔即爲管叔, 甫侯本是呂侯;
驩兜匪異渾敦, 屠蒯原同杜蕢.
'關叔'은 곧 '管叔'이고, '甫侯'는 본래 '呂侯'이다.
'驩兜'는 '渾敦'과 다르지 않고, '屠蒯'는 '杜蕢'와 같은 것이다.

☞ 『묵자(墨子)』에서 '關叔'이라고 되어있는 인명은 타 문헌에서는 '管叔'으로 되어있다.

☞ 杨剑桥(2009)는 『시경』 「숭고(崧高)」편의 '甫'가 곧 '甫侯'이며, 모형(毛亨)의 전(傳)에서 이를 '呂侯'라 여겼다고 하였으나, 해당 편의 모전(毛傳)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공영달(孔穎達)의 『모시정의(毛詩正義)』에서 정현(鄭玄)의 전(箋)에 소(疏)를 달면서 공안국(孔安國)의 설을 인용하여 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공영달의 『상서정의(尙書正義)』의 「여형(呂刑)」편을 보면, 공안국의 전(傳)에 "후에 보후가 된다. 그래서 혹 「보형」이라 칭하기도 한다[後爲甫侯, 故或稱「甫

刑」]"고 되어있다. 이에 대한 공영달의 소(疏)에 "'呂'는 곧 '甫'이다[呂即甫也]"라고 되어있다.

荄滋易言箕子, 伊尹詩頌阿衡;
連山禮箸厲山, 帝俊書稱帝舜.
'荄滋'는 『주역(周易)』에서 '箕子'를 말하고, '伊尹'은 『시경』에서 '阿衡'이라 칭해지며,
'連山'을 『예기(禮記)』에서는 '厲山'이라 하며, '帝俊'을 『상서(尙書)』에서는 '帝舜'이라 부른다.

若茲之類, 厥有三端.
이러한 종류로는 모두 세 방면이 있다.

☞ 여기서 언급하는 세 방면은 동음(同音), 첩운(疊韻), 쌍성(雙聲)을 이야기한다.
☞ 중국어의 음절구조는 전통적으로 성모(聲母; initial)와 운모(韻母; final)의 분절음(segmental) 요소와 성조(聲調)라는 초분절음(suprasegmental) 요소로 분석된다. 성모는 어두의 자음이며, 운모는 성모 이후의 모든 요소이다. 성모와 운모가 모두 같으면 동음이고, 운모가 같으면 첩운이며, 성모가 같으면 쌍성이다.

4.1

其同音者:
음이 같은 것.

扶服、蒲伏, 與匍匐而兼偁;
過迆、逶迆, 偕委蛇而並用.
'扶服'과 '蒲伏'은 '匍匐'과 겸칭이고, '過迆'와 '逶迆'는 '委蛇'와 함께 쓴다.

气借氣而餼出, 艸假草而皁興.
'气'가 '氣'를 빌려 '餼'가 나오고, '艸'가 '草'를 빌려 '皁'가 나온다.

鄦國爲許, 而三傳皆同 ;
頌兒作容, 而四始代誦.
'鄦國'은 '許'이니, 三傳에서 모두 같고,
'頌兒'를 '容'이라 하니, 四始에서 대대로 이렇게 읽는다.

☞ 『설문해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鄦, 炎帝太嶽之胤, 甫侯所封, 在潁川. 从邑無聲. 讀若許.
頌, 兒也. 从頁公聲.
'容'의 고문은 '公'을 소리요소로 지닌다.

☞ '三傳'이란 '춘추삼전'을 말한다.

☞ '四始'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① 風, 小雅, 大雅, 頌
② 風, 小雅, 大雅, 頌의 첫 번째 편
③ 大雅의 「大明」와 小雅의 「四牡」, 「南有嘉魚」, 「鴻雁」

種、穜, 酢、醋, 因音而互譌;
悉、愛, 悳、憂, 以聲而昧本.
'種'·'穜', '酢'·'醋'은 소리로 인해 서로 잘못 쓰이고,
'悉'·'愛', '悳'·'憂'는 소리 때문에 근본을 속인다.

疇、鬯, 害、曷, 語詞, 不必元文;
叔、少, 昆、暈, 稱謂, 相承別字, 是也.
'疇'·'鬯', '害'·'曷'은 허사로, 반드시 元文은 아니며, '叔'·'少', '昆'·'暈'은 호칭으로, 다른 글자를 서로 받드니, 이것들이 그 예이다.

☞ 반드시 元文이 아니라는 것은, 이들은 자형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4.2

其疊韻者:
첩운인 것

洚水猶之洪水,
畜君原是好君.
'洚水'는 '洪水'와 같고, '畜君'은 원래 '好君'이다.

☞『맹자(孟子)』「등문공하(滕文公下)」에서 "洚水者, 洪水也."라 하였고, 「양혜왕하(梁惠王下)」에서 "畜君者, 好君也."라 하였다. '洚'과 '洪'은 모두 '豐'부에 속한다. '畜'은 '孚'부의 '復'분부에 속하고, '好'는 '孚'부에 속하여 음입대전 관계이다.

序、榭、豫可校禮經;
毒、篤、竺試讎漢史.
'序', '榭', '豫'는 禮經을 교감할 수 있고, '毒', '篤', '竺'으로는 漢史를 바로잡을 수 있다.

☞ '禮經'은 『의례(儀禮)』와 『주례(周禮)』를 일컬으며, '漢史'는 『한서』와 『사기』를 일컫는다.

☞ 杨剑桥(2009)에 의하면『의례』에서 '豫'로 쓰는 것을 정현 주에서는 '榭'와 같이 읽는다고 하였으며,『주례』에서는 '序'라고 한다 하였으니, 이들은 같은 명칭의 서로 다른 표기이다. 또한 그에 의하면『사기』와『한서』에는 '毒國'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배인(裴駰)과 안사고(顔師古)의 주에 등장하는 '身毒', '捐篤', '天竺'은 모두 'Hindu'의 음차이다.

貉、伯、禡, 皆禱牲之用;
褧、絅、縈, 總枲布之名.
'貉', '伯', '禡'는 모두 기도할 때 희생으로 쓰는 것이고, '褧', '絅', '縈'은 모두 삼베의 이름이다.

☞ 杨剑桥(2009)에 의하면 '貉', '伯', '禡'는 모두 성모가 '明'이고 '豫'부에 속하고, '褧', '絅', '縈'은 모두 성모가 '溪'이고 '鼎'부에 속한다.
실제로는 '貉'과 '伯'은 '豫'부의 '澤'분부에 속해 '禡'과는 서성과 입성의 차이가 있다.

明都、孟諸洵非兩地;
燭趨、涿聚故是一人.
'明都'와 '孟諸'는 참으로 두 곳이 아니며, '燭趨'와 '涿聚'는 따라서 한 사람이다.

☞ 杨剑桥(2009)에 의하면 『주례』 정현 주에 "望諸, 明都也"라 되어 있다. 또한 '趨'는 '鄒'라 써야 하며, 『한서』의 "顔燭鄒"의 안사고 주에 "即顔涿聚子也"라 되어 있다.

陳易氏而爲田, 苡改姓而作弋.
'陳'이 성씨를 바꾸어 '田'이 되고, '苡'가 성씨를 바꾸어 '弋'라 쓴다.

☞ 『사기』「전경중완세가(田敬仲完世家)」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完卒, 謚爲敬仲. 仲生稚孟夷. 敬仲之如齊, 以陳字爲田氏.
완이 세상을 떠나자 경중으로 시호가 붙여졌다. 경중은 치맹이를 낳았다. 경중은 제나라로 가서 진(陳)을 전(田) 씨로 바꾸었다.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과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의 「양공4년(襄公四年)」에는 "夫人姒氏薨"라고 되어있으며,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양공4년」에는 "夫人弋氏薨"라고 되어있다. 『논형(論衡)』「기괴(奇怪)」편에 "禹母吞薏苡而生禹, 故夏姓曰姒"라 하였는데, 주준성은 이를 인용하여 '苡'와 '姒'의 연관관계를 밝혔다.

辛夷可爲新雉, 蟬焉豈異亶安.
'辛夷'는 '新雉'라 할 수 있으니, '蟬焉'가 어찌 '亶安'과 다르리오.

☞ 杨剑桥(2009)에 의하면 『한서』에 대한 안사고 주에 "辛夷即新雉耳"라 하였다. 또, 학의행(郝懿行)의 『이아의소(爾雅義疏)』에서 '單閼'을 '蟬焉'으로 풀이하였는데, 배인(裴駰)의 『사기집해(史記集解)』에서는 '單閼'을 '亶安'으로 쓴다고 하였다.

薰香用以代葷, 義不妨於相戾.
孳息取以爲止, 訓亦見其交通, 是也.
'薰香'을 '葷'을 대체하여 쓰니, 뜻이 서로 어긋나도 무방하며, '孳息'을 '止'의

뜻으로 취하니, 훈이 또한 서로 통하여, 이것들이 그 예이다.

☞ 杨剑桥(2009)에 의하면『예의(禮儀)』에 대한 정현 주에서 "古文葷作薰"이라 하였는데, 자의(字義)의 측면에서 보면 '薰'은 향초이고 '葷'은 매운 맛이 나는 채소이기에 소리는 같으나 서로 상반된 의미를 지닌다.

☞ '孳息'의 용례는 진(晉) 강통(江統)의『사융론(徙戎論)』에 보이는데(始徙之時, 戶落百數, 子孫孳息, 今以千計), '번식하여 늘어나다'라는 뜻이다.
杨剑桥(2009)에 의하면『시경』「은기뢰(殷其靁)」편의 모전(毛傳)에 "息, 止也"라고 되어있다. '止'는 '멈추다'라는 뜻이므로 '息'과 뜻이 상반되나, 운모가 서로 음입대전의 관계에 있다.

4.3

其雙聲者:
쌍성인 것.

和、桓, 波、播, 禹貢可詳;
侮、務, 斛、仇, 雅詩偶借.
'和'・'桓', '波'・'播'로『상서』의「禹貢」을 자세히 알 수 있고,
'侮'・'務', '斛'・'仇'는『시경』의「아(雅)」에서 짝으로 빌리는 것이다.

☞『상서』「우공(禹貢)」편의 "和夷厎績"에 대한 공안국 전(傳)에서 "和如字, 又作龢. 鄭云: '和讀曰洹'"이라 하였다. '洹'과 '桓'은 같은 소리요소를 지닌다. 주준성은 공안국과 정현의 설 중 정현의 설을 선택하였다. '和'와 '桓'은 모두 중고음에서 '匣'모이다.

☞『상서』「우공」편의 "滎波既豬"에 대한 공안국 전에서 "波如字, 馬本又播"라 되어있다. 공영달 소에서는 이에 대해 "馬鄭王本皆作'滎播'"라 하였다. 여기서 '馬'는 마융(馬融), '鄭'은 정현(鄭玄), '王'은 왕숙(王肅)으로 보인다. 한편,『한서』에서는 전래본 상서와 동일하게 인용된 반면,『사기』에서는 "滎播既都"로 되어있다. '波'와 '播'는 모두 중고음에서 '幫'모이다.

☞『시경』「상체(常棣)」편의 "外禦其務"에 대해 정현 전(箋)에서는 "務, 侮也"라 하였다.『춘추좌씨전』「희공24년(僖公二十四年)」,『국어(國語)』「주어중(周語中)」,『군서치요(群書治要)』「소아(小雅)」,『태평어람(太平御覽)』「형제상(兄弟

上)」에는 '務'가 '侮'로 되어있다. '務'와 '侮'는 중고음에서 모두 '明'모이다.

☞ 『시경』「빈지초연(賓之初筵)」편의 "賓載手仇"에 대해 정현 전(箋)에서는 "仇讀曰鄭"라 하였다. 육덕명의 『경전석문』에서는 '鄭'가 '斟'로 되어있다. 중고음에서 '仇'는 '羣'모이고, '斟'는 '見'모로, 모두 아음(牙音) 성모이다.

奠、定、帝, 舌音之轉;

圭、蠲、涓, 脣吻之通.

'奠', '定', '帝'는 혓소리의 전(轉)이고,

'圭', '蠲', '涓'은 입술소리의 통(通)이다.

☞ '奠', '定', '帝'의 성모는 모두 설두음(舌頭音)이다.

☞ '圭', '蠲', '涓'의 성모는 모두 아음(牙音)이다. 육덕명의 『경전석문』에서는 '蠲'에 대해 "古玄反. 舊音圭"라고 하였으며, 『이아(爾雅)』에서는 "蠲, 明也"라 하였다. 또한 『이아』에서 "汝爲瀆"라 한 것을 『설문해자』에서는 "汝爲涓"이라 인용하였다. '明'과 '瀆'의 성모는 모두 순음(脣音)이다. 즉, '脣吻之通'이라 함은, 아음이 순음과 통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杨剑桥(2009)는 이 부분을 성모가 가까운 글자들 사이의 운부 통전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奠', '定', '帝'에 대해서는 이들의 성모가 모두 설두음임을 지적하였지만, '圭', '蠲', '涓'가 입술[脣]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密勿、蠶沒, 與黽勉非殊;

踟躕、躊躇, 視峙躇不異.

'密勿'·'蠶沒'은 '黽勉'과 다른 것이 아니요, '踟躕'·'躊躇'는 '峙躇'를 봤을 때 다르지 않다.

黼裘示省, 玀義可思;

素衣朱綃, 繡交宜訂.

'黼裘' 뒤에 '省'을 보면 '玀'의 뜻을 생각할 수 있고, '素衣朱綃'라 하면 '繡'로 바꿈이 마땅하다.

☞ ‘玃’는 ‘獮’와 같다.

☞『禮記』「玉藻」에서 “唯君有黼裘以誓省”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현은 “黼裘, 以羔與狐白雜爲黼文也. 省, 當爲獮. 獮, 秋田也. 國君有黼裘誓獮田之禮.”라고 주석을 달았다.

☞『시경』「당풍(唐風)」「양지수(揚之水)」에서 “素衣朱繡, 從子于鵠.”라 하였다.

台、余、印、我, 皆施身自謂之言;
戎、若、伊、而, 悉启口偁人之語.
‘台’・‘余’・‘印’・我는 모두 자신을 칭하는 말이고, 戎・若・伊・而는 모두 입을 열어 다른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이아』에서 “卬, 吾, 台, 予, 朕, 身, 甫, 余, 言, 我也”라 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본문의 ‘印’은 곧 ‘卬’이다.

懆懆多譌慘慘, 儦儦或讀伾伾.
‘懆懆’는 ‘慘慘’로 많이 바뀌고, ‘儦儦’는 혹 ‘伾伾’로 읽는다.

誋、假、胡、何, 出音微分侈斂;
徒、但、地、特, 助詞本尠正文.
‘誋’・‘假’・‘胡’・‘何’는 소리가 나올 때 입의 벌린 정도의 차이가 미세하며, ‘徒’・‘但’・‘地’・‘特’은 도와주는 단어로 正文이 본래 적다.

☞ ‘正文’이란 위에서 언급된 ‘元文’과 같다. 즉, 이들은 허사로 소리가 중요할 뿐, 자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開口雅而閉口烏, 啞啞亦其天籟;
燕人厖而周人貉, 蛘蛘又屬方言.
입을 열면 ‘雅’이고 입을 닫으면 ‘烏’이니, 까마귀 우는 소리는 천성적인 것이고, 연나라 사람은 ‘厖’라 하고 주나라 사람은 ‘貉’이라 하니, ‘蛘蛘’도 지역 말에 속하는 것이다.

☞ ‘雅’는 저모음으로 개구도가 크며, ‘烏’는 고모음으로 개구도가 작다.

☞ ‘天籟’는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등장한다.

☞ 杨剑桥(2009)는 ‘蛘蛘’이 아닌 ‘蛑蛑’으로 보고 있는데, ‘啞啞’와 대구를 이룬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다. ‘蛘’과 ‘蛑’은 서로 통하는 자이다.
『방언(方言)』에서 “螳蜋謂之髦, 或謂之虰, 或謂之蛑蛑”라 하였으며, 『이아』「석충(釋蟲)」에서는 “莫貌, 螳蜋, 蛑”라 되어있다. 구양순(歐陽詢) 등이 당 고조 이연의 명에 따라 편찬한 『예문류취(藝文類聚)』에는 “爾雅曰: ‘莫貉, 螳蜋, 蛑’, 不過, 螳蠰也. …… 王瓚問曰: ‘爾雅云: 莫貉, 螳蜋. 同類物也. 今沛魯以南謂之螳蠰. 三河之域謂之螳蜋. 燕趙之際謂之食厖. 齊濟以東謂之馬敖’”라고 되어있다.

馬、莽, 蕭、蛸更姓, 祇憑語轉;
蠅、羊, 鵙、隼殊文, 不過聲移.
‘馬’·‘莽’, ‘蕭’·‘蛸’처럼 성을 바꾸는 것은 오직 語轉에 의한 것이고, ‘蠅’·‘羊’, ‘鵙’·‘隼’의 글자가 다른 것은 그저 소리의 옮김일 따름이다.

☞ 『한서』 맹강(孟康) 주에 “今此言莽, 明德馬后惡其先人有反, 易姓莽”라 하였다.
‘馬’와 ‘莽’은 모두 중고음 ‘明’모이다.

☞ 杨剑桥(2009)에 의하면 송 정초(鄭樵)의 『통지(通志)』「씨족략(氏族略)」에 “蕭氏, 齊武帝以巴東王子響叛逆, 改爲蛸氏”라 되어있다.
‘蕭’와 ‘蛸’는 모두 중고음 ‘心’모이다.

☞ 주준성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蠅, 蟲之大腹者. 从黽从虫. 按: 黽, 黿大腹. 从虫者, 蟲省也. 會意. 『詩』「小雅」: “營營青蠅”. 『論衡』「商蟲」: “蠅, 讒人之象也”. 『方言』「十一」: “蠅, 東齊謂之羊”. 按: 蠅羊, 一聲之轉.
여기서 인용된 『방언』에 따르면 ‘蠅’과 ‘羊’은 다른 지역에서 같은 것을 부르는 명칭으로, 모두 중고음 ‘以’모이다.

☞ 鵙’과 ‘隼’은 모두 중고음 ‘心’모이다.

按諸詩歌, 相曰胥, 更抑曰懿;
參之古語, 磬爲俔, 亦鼎爲當, 是也.
시가에 따르면 ‘相’을 ‘胥’라 하고 또 ‘抑’을 ‘懿’라 하며, 옛말에 따르면 ‘磬’

이 '俔'이 되고, '鼎'이 '當'이 되니, 이것들이 그 예이다.

☞『시경』「각궁(角弓)」편 정현 전(箋)에 "胥, 相也"라 하였다. '相'과 '胥'는 모두 중고음 '心'모이다.

☞『시경』「억(抑)」편의 공영달 소(疏)에서『국어』「초어상(楚語上)」의 다음 내용을 인용하였다.

昔衛武公年數九十有五矣, 猶箴儆于國, 曰: "自卿以下至于師長士, 苟在朝者, 無謂我老耄而舍我. ……" …… 于是乎作「懿」, 戒以自儆也.

또한 위소(韋昭)를 인용하여 "昭謂懿,『詩』「大雅」「抑」之篇也. 抑讀曰懿"이라 하였다. '抑'과 '懿'은 모두 중고음 '影'모이다.

☞『시경』「대명(大明)」편 모전(毛傳)에서 "俔, 磬也"라 하였다. 일부 판본에는 '磬'이 '譬'으로 되어있으나, 완원(阮元)의『교감기』에서는 '磬'이 옳다고 보았다. '磬'과 '俔' 모두 중고음 '溪'모이다.

☞ 杨剑桥(2009)에 의하면『한서』「광형전(匡衡傳)」의 안사고 주에서 복건(服虔)을 인용하여 "鼎, 猶言當也"라 하였다. '鼎'과 '當'은 모두 중고음 '端'모이다.

5

此何休之讀公羊, 所以有長言短言之辨;

而高誘之注淮南, 又別有緩气急气之分也.

이는 하휴가『춘추공양전』을 읽을 때에 긴 말과 짧은 말이 있다고 한 연유이며, 고유가『회남자』에 주를 달 때 완기와 급기의 구분이 있는 것이다.

☞ 하휴의『춘추공양전주소(春秋公羊傳註疏)』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讀伐長言之", 伐人者也.

"讀伐短言之", 見伐者也.

"伐을 읽음에 있어서 길게 말한 것"은 다른 사람을 정벌하는 자이다.

"伐을 읽음에 있어서 짧게 말한 것"은 정벌당하는 자이다.

☞ 杨剑桥(2009)에 의하면『회남자(淮南子)』및『여씨춘추(呂氏春秋)』의 고유(高誘)주에서 '緩气'와 '急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발음을 묘사하고 있다.

若夫如此爲爾, 之焉爲旃, 兩字便成翻語;

蒺藜即茨, 茅蒐即韎, 三代自有合音.

만약 '如此'가 '爾'이고, '之焉'이 '旃'이라면 두 글자가 곧 '翻語'를 이루는 것이고, '蒺藜'가 곧 '茨'이고 '茅蒐'가 곧 '韎'이라면 3대에도 자연히 합음이 있었던 것이다.

☞ 왕인지의 『경전석사』에서 "爾, 如此也"라 하였다.

目少眇而手延挻, 自諧以成字,

婁係邾而於引越, 相足而爲言.

'目'과 '少'가 '眇'가 되고, '手'와 '延'이 '挻'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어울려 글자가 되는 것이고, '婁'와 '邾'가 연결되고, '於'가 '越'을 이끌어내는 것은, 서로 족하여 말이 되는 것이다.

☞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邾人呼邾聲曰'婁', 故曰'邾婁'.

주(邾)나라 사람이 '邾'를 가리켜 부르는 소리가 '婁'이다. 그렇기에 '邾婁'라고 말한다.

☞ 왕인지(王引之)의 『經傳釋詞』「粵越」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爾雅』曰: '粵, 于也.' 又曰: '粵, 於也.' 字亦作'越'.

『이아』에서 말하길, '粵'은 '于'라고 하였고, 또 '粵'은 '於'라고 하였다. 이 글자는 '越'로도 쓴다.

斯又吳昭、魏炎之儔, 注書刱爲切紐;

沈約、彥倫之輩, 行文律以四聲者矣.

이는 또 吳昭, 魏炎의 무리가 注書할 때 切紐를 만든 것이며, 沈約, 彥倫의 무리가 글을 행할 때 사성으로 규율한 것일 따름이다.

☞ 杨剑桥(2009)에 의하면 '吳昭'는 곧 '韋昭'이다.

☞ '魏炎'은 곧 '孫炎'이다.

夫所見異辭, 陸元朗文羅經典;

有志復古, 陳季立音溯詩騷.

무릇 다른 말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陸元朗의 글이 경전을 망라하였고, 복고에 뜻이 있는 것은 陳季立의 음이 시경과 이소를 향하였다.

☞ '陸元朗'은 곧 '陸德明'으로, 명(名)이 '元朗'이고 자(字)가 '德明'이다. 경전을 망라한 글은 그가 저술한『경전석문』을 일컫는다.

☞ '陳季立'은 곧 '陳第'로, 자(字)가 '季立'립이다.

6

余少歲蟲彫, 中年蠖伏.

나는 어려서 기이한 글자를 공부하였고, 중년에는 뜻을 얻지 못하였다.

☞ '蟲彫'은 '蟲凋'로도 쓰며, 형체가 기이한 글자를 의미한다.

☞ '蠖伏'은 자벌레가 몸을 굽히듯, 사람이 잠시 뜻을 얻지 못해 굽힘을 의미한다.

哦陳編而洞席, 憶緖論於趨庭.

옛 책을 읊으며 洞에 자리했으며, 趨庭을 통해 논의를 떠올렸다.

☞ '洞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論語』「季氏」에서 "鯉趨而過庭"라 하였다. '趨庭'은 여기서 유래하여 부모의 가르침을 받듦을 말한다.

旁及六書, 自攄一得.

곁에 육서에 미쳐서 스스로 한 가지 얻은 것을 펼쳤다.

部標十八, 派以析而支以分;

母列一千, 聲爲經而義爲緯.

部는 열여덟 개를 세우고, 물줄기와 가지로 나누었다.

母는 일천여 개를 늘어놓고, 소리를 날줄로, 뜻을 씨줄로 하였다.

☞ 체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다.

將使讀古書者應弦合節, 無葺牙潔汕之疑;

治經義者討葉沿根, 有掉臂游行之樂.

그리하여 옛 책을 읽는 자들이 현을 마주함에 박자가 맞는 것처럼 하게 하여, 葺牙, 潔汕의 의심이 없게 하고, 경전의 뜻을 공부하는 자들이 잎을 물리치고 뿌리를 찾게 하여, 팔을 펼치고 노니는 즐거움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楚辭』「九歌」「東君」에서 "應律兮合節"이라 하였다.

☞ '葺牙'와 '潔汕'의 의미는 불명확하다.

渴半生之目力, 精漸銷亡;

殫十載之心稽, 業才艸剏.

반평생의 시력을 다하여 정력이 점점 사그라지고, 십년의 심혈을 기울여 업이 비로소 조략한 정도에 이르렀다.

☞ '剏'은 '創'과 같다.

氾濫未竟, 蝽繆尚多, 愚不能書, 先爲此敘.

넘쳐서 완성되지 못하고, 섞이고 얽힌 것이 이미 많아, 쓰지 못할 것이 두려워, 우선 이 서를 쓴다.

☞ '愚'는 '懼'와 같다.

非敢謂萬川會海, 導西京爾雅之原;

亦庶幾百世本支, 演南閣說文之譜云尒.

만 개의 물줄기가 바다에서 만난 것이라 불리어 장안(長安)에서 나온『이아』의 근원을 따르기는 감히 바라지 않고, 다만 대를 이은 후손이 되어 남각에서 나온『설문해자』의 계보에 들어가기를 바랄 따름이다.

道光十有三年, 歲在昭陽大芒洛, 涂月, 元和朱允倩駿聲譔.

도광 13년, 세시는 소양 대황락, 도월에 원화 주윤천 준성이 씀.

☞ '도광(道光)'은 청 선종(宣宗)의 연호로, 1821년을 원년으로 한다.

☞ '昭陽'과 '大芒洛'은 모두 세시명의 구성요소이다.

『이아』「석천(釋天)」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大歲在甲曰閼逢, 在乙曰旃蒙, 在丙曰柔兆, 在丁曰強圉, 在戊曰著雍, 在己曰屠維, 在庚曰上章, 在辛曰重光, 在壬曰玄黓, 在癸曰昭陽.

여기에서 알 수 있듯, '昭陽'은 천간의 '계(癸)'에 해당한다. 『사기』에서는 '昭陽' 대신 '尚章'이라 한다.

『이아』「석천」에 또한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大歲在寅曰攝提格, 在卯曰單閼, 在辰曰執徐, 在巳曰大荒落, 在午曰敦牂, 在未曰協洽, 在申曰涒灘, 在酉曰作噩, 在戌曰閹茂, 在亥曰大淵獻, 在子曰困敦, 在丑曰赤奮若.

즉, '大荒落'은 지지의 '사(巳)'에 해당한다. 『사기』에서는 '大荒駱'이나 '大芒落'으로 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昭陽 大芒洛'은 60간지의 '계사(癸巳)'에 해당한다. 도광 13년은 1833년으로 계사년이다.

☞ 『이아』「석천」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寎, 四月爲余, 五月爲皋,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

즉, '涂月'은 12월이다.

〔부록 2〕 모(母) 별 반절, 독음 및 낱자 수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豐		東	得紅切	端	東	51
豐		同	徒紅切	定	東	15
豐		彤	徒冬切	定	冬	1
豐		中	陟躬切	知	東	29
豐		夂	職戎切	章	東	7
豐		冢	知隴切	知	腫	1
豐		眾	之仲切	章	送	3
豐		蟲	直躬切	澄	東	6
豐		充	昌終切	昌	東	2
豐		舂	書容切	書	鍾	3
豐		工	古紅切	見	東	32
豐		公	古紅切	見	東	14
豐		容	余封切	以	鍾	7
豐		孔	康董切	溪	董	1
豐		躬	居戎切	見	東	7
豐		廾	居竦切	見	腫	2
豐		共	渠用切	羣	用	13
豐		鬨	渠容切	羣	鍾	1
豐		戎	如融切	日	東	2
豐		宂	而隴切	日	腫	2
豐		軵	而隴切	日	腫	1
豐		亶	余封切	以	鍾	1
豐		邕	於容切	影	鍾	8
豐		凶	許容切	曉	鍾	13
豐		尨	莫江切	明	江	7
豐		冕	莫紅切	明	東	1
豐		弄	盧貢切	來	送	2
豐		丰	敷容切	滂	鍾	18
豐		封	府容切	幫	鍾	3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豐		豐	敷戎切	滂	東	4
豐		从	疾容切	從	鍾	22
豐		叢	徂紅切	從	東	2
豐		宗	作冬切	精	冬	7
豐		囪	楚江切	初	江	25
豐		雙	所江切	生	江	2
豐		竦	息拱切	心	腫	1
豐		送	蘇弄切	心	送	1
豐		夆	下江切	匣	江	9
升		丞	署陵切	常	蒸	8
升		乘	食陵切	船	蒸	2
升		弁	直瓦切	澄	嶝	18
升		徵	陟陵切	知	蒸	3
升		禹	處陵切	昌	蒸	3
升		曾	昨稜切	從	登	15
升		乃	奴騰切	泥	代	8
升		興	虛陵切	曉	蒸	3
升		升	識蒸切	書	蒸	3
升		蠅	余陵切	以	蒸	4
升		兢	居陵切	見	蒸	1
升		夊	筆陵切	幫	蒸	4
升		夌	力蠅切	來	蒸	9
升		登	都滕切	端	登	10
升		厷	古薨切	見	登	12
升		弓	居宏切	見	耕	3
升		菅	木弓切	明	東	9
升		朋	馮弓切	並	東	11
升		亙	古鄧切	見	嶝	6
升		冐	苦浧切	溪	隱	1
臨		侵	七林切	清	侵	12
臨		心	息林切	心	侵	2
臨		森	所今切	生	侵	1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臨		先	側琴切	莊	侵	15
臨		寖	式針切	書	侵	5
臨		寖	式荏切	書	寢	2
臨		尤	於箴切	影	侵	19
臨		甚	常枕切	常	侵	15
臨		壬	如林切	日	侵	12
臨		羊	如審切	日	寢	5
臨		男	那含切	泥	覃	1
臨		垩	余箴切	以	侵	3
臨		音	於今切	影	侵	16
臨		今	居音切	見	侵	61
臨		琴	巨今切	羣	侵	1
臨		岑	徂箴切	從	侵	1
臨		仚	魚音切	疑	侵	2
臨		林	力尋切	來	0	13
臨		品	丕飲切	滂	寢	5
臨		亩	力審切	來	寢	6
臨		闖	丑禁切	徹	侵	1
臨		三	穌凡切	心	凡	1
臨		彡	所凡切	生	凡	22
臨		凡	浮含切	並	覃	9
臨		咸	胡緘切	匣	咸	36
臨	習	入	人汁切	日	緝	13
臨	習	十	是執切	常	緝	3
臨	習	廿	人汁切	日	緝	1
臨	習	卅	穌沓切	心	合	1
臨	習	卌	色立切	生	緝	1
臨	習	習	似人切	邪	緝	8
臨	習	集	秦入切	從	緝	5
臨	習	咠	七入切	清	緝	11
臨	習	㗊	阻立切	莊	緝	1
臨	習	厶	秦入切	從	緝	32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臨	習	㬎	五合切	疑	合	5
臨	習	翌	色立切	生	緝	2
臨	習	疊	徒袷切	定	洽	1
臨	習	沓	徒合切	定	合	8
臨	習	譻	徒合切	定	合	2
臨	習	龖	徒合切	定	合	3
臨	習	及	巨立切	羣	緝	17
臨	習	夲	尼入切	孃	緝	12
臨	習	𢍏	陟立切	知	緝	1
臨	習	立	力入切	來	緝	14
臨	習	邑	於汲切	影	緝	7
謙		兼	古恬切	見	添	29
謙		僉	七廉切	清	鹽	19
謙		㦰	子廉切	精	鹽	14
謙		占	職廉切	章	鹽	29
謙		沿	他陷切	透	陷	2
謙		冉	而檢切	日	琰	11
謙		染	而檢切	日	琰	3
謙		夾	失冉切	書	鹽	3
謙		閃	失冉切	書	鹽	1
謙		弇	一儉切	影	琰	6
謙		奄	衣檢切	影	琰	13
謙		炎	于廉切	云	鹽	20
謙		焱	以冉切	以	鹽	1
謙		尸	魚毀切 / 按魚嚴切	疑	紙	12
謙		广	魚檢切	疑	琰	1
謙		㠯	户敢切	匣	敢	33
謙		欠	去劒切	溪	釅	3
謙		弓	胡敢切	匣	敢	14
謙		爰	亡范切	明	梵	1
謙		甘	古談切	見	覃	25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謙		敢	古覽切	見	敢	12
謙		韄	苦敢切	溪	敢	6
謙		导	方斂切	並	琰	1
謙		芟	所談切	生	覃	1
謙		斬	則敢切	精	敢	13
謙		鳧	七談切	清	覃	8
謙		凵	口犯切	溪	梵	1
謙	嗑	枼	與涉切	以	葉	15
謙	嗑	劦	胡頰切	匣	怗	9
謙	嗑	鬊	筠輒切	云	葉	2
謙	嗑	韡	筠輒切	云	葉	1
謙	嗑	聶	尼輒切	孃	葉	7
謙	嗑	聑	丁帖切	知	怗	1
謙	嗑	囡	女協切	孃	怗	1
謙	嗑	嵒	尼輒切	孃	葉	1
謙	嗑	業	魚怯切	疑	業	2
謙	嗑	燮	穌俠切	心	怗	3
謙	嗑	聿	尼輒切	孃	葉	1
謙	嗑	妾	七接切	清	葉	7
謙	嗑	陟	竹獵切	知	葉	2
謙	嗑	涉	時聶切	常	葉	1
謙	嗑	耴	陟葉切	知	葉	7
謙	嗑	鼠	良涉切	來	葉	7
謙	嗑	盍	胡臘切	匣	昔	9
謙	嗑	劫	居怯切	見	業	4
謙	嗑	灋	方乏切	並	乏	1
謙	嗑	乏	房法切	並	乏	11
謙	嗑	帀	子甲切	精	狎	1
謙	嗑	臿	楚甲切	初	狎	6
謙	嗑	甲	古狎切	見	狎	7
謙	嗑	夾	古狎切	見	狎	24
謙	嗑	㬎	土盍切	透	盍	5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頤		之	止而切	章	之	28
頤		止	諸市切	章	止	8
頤		甾	側詞切	莊	之	5
頤		子	卽里切	精	止	18
頤		司	息之切	心	之	5
頤		辭	似茲切	邪	之	1
頤		辝	似茲切	邪	之	1
頤		絲	息之切	心	之	7
頤		思	息之切	心	之	5
頤		史	疏士切	生	止	4
頤		士	鉏里切	崇	止	3
頤		已	詳里切	邪	止	9
頤		以	羊止切	以	止	45
頤		己	居以切	見	止	16
頤		醫	於其切	影	之	1
頤		臣	與之切	以	之	8
頤		異	羊記切	以	志	11
頤		意	於記切	影	志	9
頤		啻	於力切	影	職	7
頤		喜	虛里切	曉	止	9
頤		丌	居之切	見	之	21
頤		而	如之切	日	之	10
頤		耳	而止切	日	止	11
頤		𢍏	里之切	來	之	8
頤		里	良止切	來	止	12
頤		嗇	彼每切	幫	賄	2
頤		佩	蒲背切	並	隊	1
頤		菊	平記切	並	志	5
頤		才	昨哉切	從	咍	23
頤		宰	作亥切	精	海	5
頤		巛	祖才切	精	咍	5
頤		再	作代切	精	代	2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頤		采	倉宰切	清	海	3
頤		臺	徒來切	定	咍	2
頤		來	洺才切	明	咍	11
頤		灰	呼恢切	曉	灰	2
頤		毒	烏代切	影	代	1
頤		亥	胡改切	匣	海	21
頤		戒	居背切	見	隊	5
頤		龜	居丕切	見	脂	2
頤		丑	去尤切	溪	尤	2
頤		裘	巨尤切	羣	尤	1
頤		牛	語裘切	疑	尤	1
頤		郵	于裘切	云	尤	1
頤		又	于灸切	云	有	28
頤		久	舉友切	見	有	8
頤		某	莫有切	明	有	6
頤		母	莫友切	明	有	19
頤		婦	房久切	並	有	1
頤		負	房久切	並	有	2
頤		不	方久切	並	有	41
頤	革	北	溥墨切	滂	德	3
頤	革	麥	莫惑切	明	德	1
頤	革	皕	彼力切	幫	職	3
頤	革	㝵	多則切	端	德	2
頤	革	革	古核切	見	麥	3
頤	革	戛	古亟切	見	職	1
頤	革	戟	紀匿切	見	職	1
頤	革	丮	九極切	見	職	2
頤	革	棘	紀力切	見	職	3
頤	革	亟	紀力切	見	職	5
頤	革	匿	女力切	孃	職	2
頤	革	肊	於丮切	影	陌	1
頤	革	弋	與職切	以	職	17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頤	革	黑	呼北切	曉	德	5
頤	革	嗇	所力切	生	職	6
頤	革	穇	穌則切	心	德	4
頤	革	色	所力切	生	職	1
頤	革	息	相稷切	心	職	5
頤	革	悉	息惻切	心	職	3
頤	革	則	子德切	精	德	9
頤	革	矢	阻力切	莊	職	1
頤	革	仄	阻力切	莊	職	2
頤	革	畟	初力切	初	職	3
頤	革	敕	恥力切	徹	職	1
頤	革	苟	紀力切	見	職	1
頤	革	直	除力切	澄	職	10
頤	革	食	乘力切	船	職	5
頤	革	力	林直切	來	職	9
頤	革	克	苦得切	溪	德	2
頤	革	或	胡北切	匣	德	15
頤	革	戺	房牧切	並	屋	4
頤	革	伏	房牧切	並	屋	2
頤	革	彔	房牧切	並	屋	1
頤	革	瑀	房牧切	並	屋	1
頤	革	富	芳福切	滂	德	16
頤	革	牧	莫服切	明	屋	1
孚		幺	於虯切	影	幽	3
孚		麃	於虯切	影	幽	2
孚		攸	以周切	以	尤	21
孚		由	以州切	以	尤	20
孚		褎	似幼切	邪	幼	1
孚		丣	與九切	以	有	20
孚		酉	與九切	以	有	19
孚		牖	與九切	以	有	1
孚		幼	伊謬切	影	幼	8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孚		休	許由切	曉	尤	2
孚		求	巨鳩切	羣	尤	13
孚		丩	居虯切	見	幽	14
孚		九	舉酉切	見	有	18
孚		秀	息救切	心	宥	3
孚		韭	居酉切	見	有	1
孚		毁	居誘切	見	有	4
孚		簋	居軌切	見	旨	2
孚		臼	其九切	羣	有	5
孚		咎	其九切	羣	有	13
孚		疇	直由切	澄	尤	23
孚		雔	市流切	常	尤	3
孚		舟	職流切	章	尤	13
孚		周	職流切	章	尤	20
孚		州	職流切	章	尤	3
孚		盩	張流切	知	尤	1
孚		帚	支手切	章	有	3
孚		肘	陟栁切	知	有	4
孚		守	書九切	書	有	2
孚		丑	敕九切	徹	有	16
孚		臭	尺救切	昌	宥	5
孚		囚	似由切	邪	尤	1
孚		汙	似由切	邪	尤	4
孚		就	疾救切	從	宥	3
孚		流	力求切	來	尤	2
孚		翏	力救切	來	宥	28
孚		彪	彼周切	幫	尤	2
孚		髟	必周切	幫	尤	2
孚		牟	莫浮切	明	尤	3
孚		矛	莫浮切	明	尤	40
孚		驫	甫虯切	幫	幽	2
孚		缶	方九切	並	有	7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孚		阜	房九切	並	有	2
孚		首	書九切	書	有	14
孚		手	書九切	書	有	1
孚		罟	許救切	曉	宥	2
孚		宓	穌酉切	心	有	10
孚		夔	奴包切	泥	肴	6
孚		鹵	徒聊切	定	蕭	6
孚		雥	徂孰切	從	屋	16
孚		鼐	卽聊切	精	蕭	11
孚		曹	昨牢切	從	豪	12
孚		叉	側嫂切	莊	晧	8
孚		爪	側嫂切	莊	晧	10
孚		爪	諸兩切	章	養	1
孚		孚	芳由切	滂	尤	17
孚		棗	子晧切	精	晧	1
孚		早	子浩切	精	晧	2
孚		艸	倉老切	清	晧	1
孚		勹	布袍切	幫	豪	26
孚		乎	博抱切	幫	灰	3
孚		報	博奧切	幫	号	1
孚		卯	莫飽切	明	巧	8
孚		曰	莫保切	明	晧	9
孚		夲	土皋切	透	豪	6
孚		討	他好切	透	晧	1
孚		牢	魯皋切	來	豪	1
孚		老	力浩切	來	晧	3
孚		丐	若浩切	日	晧	5
孚		奧	烏告切	影	号	7
孚		臭	古老切	見	晧	1
孚		夲	公老切	見	晧	3
孚		鳥	都老切	端	晧	6
孚		好	呼皓切	曉	晧	2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孚		告	古奧切	見	号	19
孚	復	赤	式竹切	書	屋	19
孚	復	酋	所六切	生	屋	1
孚	復	夙	息逐切	心	屋	4
孚	復	肅	息逐切	心	屋	11
孚	復	肉	如六切	日	屋	31
孚	復	鬻	之六切	章	屋	2
孚	復	祝	之六切	章	屋	2
孚	復	竹	張六切	知	屋	14
孚	復	匊	居六切	見	屋	9
孚	復	臼	居六切	見	屋	13
孚	復	毒	徒六切	定	屋	3
孚	復	逐	直六切	澄	屋	1
孚	復	畜	丑六切	徹	屋	5
孚	復	孰	殊六切	常	屋	2
孚	復	宴	房六切	並	屋	13
孚	復	目	莫六切	明	屋	1
孚	復	㝵	莫六切	明	屋	2
孚	復	六	力竹切	來	屋	1
小		爻	胡毛切	匣	豪	9
小		垚	吾僚切	疑	蕭	29
小		要	於消切	影	宵	34
小		幺	於堯切	影	蕭	1
小		杳	烏皎切	影	篠	1
小		窅	烏皎切	影	篠	1
小		皀	烏皎切	影	篠	6
小		皛	烏皎切	影	篠	1
小		夭	於兆切	影	小	9
小		嚣	許驕切	曉	宵	3
小		梟	古堯切	見	蕭	3
小		覞	弋笑切	以	笑	1
小		顥	胡了切	匣	篠	2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小		号	胡到切	匣	号	9
小		唬	呼到切	曉	号	2
小		敖	五勞切	疑	豪	12
小		褭	奴了切	泥	篠	1
小		尿	奴弔切	泥	嘯	1
小		交	古肴切	見	肴	24
小		寮	力照切	來	小	21
小		了	盧小切	來	小	1
小		料	洛宵切	來	宵	1
小		敹	洛宵切	來	宵	1
小		勞	魯刀切	來	豪	5
小		嗂	奴顥切	泥	晧	2
小		巢	鉏交切	崇	肴	9
小		臮	穌到切	心	号	13
小		小	私兆切	心	小	26
小		少	書沼切	書	小	10
小		苗	彌廙切	明	肴	3
小		猋	彼堯切	幫	蕭	3
小		妥	平小切	並	小	1
小		表	陂矯切	幫	小	1
小		毛	莫豪切	明	豪	8
小		皃	莫教切	明	肴	3
小		暴	薄到切	並	号	8
小		刀	都勞切	端	豪	35
小		槩	古堯切	見	蕭	1
小		盜	徒到切	定	号	1
小		翟	都校切	端	效	1
小		岁	土刀切	透	豪	3
小		弔	多笑切	端	笑	4
小		高	古勞切	見	豪	35
小		杲	古了切	見	篠	1
小		兆	治小切	澄	小	24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小		肁	治小切	澄	小	3
小	犖	卓	竹榷切	知	覺	14
小	犖	斝	士榷切	崇	覺	3
小	犖	勺	之弱切	章	藥	22
小	犖	雀	卽龠切	精	藥	7
小	犖	爵	卽龠切	精	藥	5
小	犖	皀	丑龠切	徹	藥	2
小	犖	弱	而灼切	日	藥	8
小	犖	龠	以灼切	以	藥	9
小	犖	敫	以灼切	以	藥	15
小	犖	虐	魚約切	疑	藥	3
小	犖	雈	胡沃切	匣	沃	11
小	犖	樂	五鑠切	疑	藥	14
小	犖	尸	以灼切	以	藥	1
小	犖	翟	徒礫切	定	錫	13
小	犖	伏	奴礫切	泥	錫	1
需		矦	乎溝切	匣	侯	11
需		㬎	胡口切	匣	厚	2
需		後	胡口切	匣	厚	2
需		后	胡口切	匣	厚	7
需		婁	洛矦切	來	侯	25
需		扇	盧候切	來	候	2
需		匤	郎豆切	來	候	2
需		兜	當矦切	端	侯	2
需		斗	當口切	端	厚	2
需		鬥	都豆切	端	候	2
需		豆	徒候切	定	候	11
需		鏗	徒口切	定	厚	4
需		口	苦后切	溪	厚	39
需		寇	苦候切	溪	候	2
需		冓	古候切	見	候	11
需		走	子苟切	精	厚	1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需		奏	則候切	精	候	2
需		晝	陟莦切	知	侯	1
需		朱	章俱切	章	虞	16
需		丶	知庾切	知	麌	11
需		彝	之戍切	章	遇	1
需		壴	中句切	知	虞	7
需		几	市朱切	常	虞	9
需		乳	而主切	日	麌	2
需		耇	常句切	常	虞	1
需		戍	觴遇切	書	虞	1
需		臾	羊朱切	以	虞	7
需		俞	羊朱切	以	虞	27
需		禺	牛具切	疑	遇	17
需		區	豈俱切	溪	虞	20
需		具	其遇切	羣	虞	5
需		須	相俞切	心	虞	5
需		需	相俞切	心	虞	13
需		取	七庾切	清	麌	16
需		芻	义愚切	疑	虞	10
需		付	方遇切	並	虞	16
需	剥	尢	力燭切	來	燭	29
需	剥	彔	盧谷切	來	屋	11
需	剥	鹿	盧谷切	來	屋	5
需	剥	禿	他谷切	透	屋	1
需	剥	卜	補木切	幫	屋	6
需	剥	業	蒲屋切	並	屋	9
需	剥	屐	蒲卜切	並	屋	1
需	剥	木	莫卜切	明	屋	3
需	剥	谷	古禄切	見	屋	9
需	剥	角	古欲切	見	燭	4
需	剥	青	苦鉤切	溪	侯	17
需	剥	局	渠錄切	羣	燭	2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需	剥	曲	邱玉切	溪	燭	1
需	剥	玉	魚欲切	疑	燭	5
需	剥	獄	魚欲切	疑	燭	4
需	剥	屋	烏谷切	影	屋	6
需	剥	蜀	市欲切	常	燭	19
需	剥	辱	而蜀切	日	燭	6
需	剥	束	書玉切	書	燭	14
需	剥	粟	相欲切	心	燭	1
需	剥	族	昨木切	從	屋	5
需	剥	足	即玉切	精	燭	4
需	剥	豕	丑欲切	徹	燭	8
需	剥	亍	丑玉切	徹	燭	1
豫		吳	五乎切	疑	模	6
豫		烏	哀都切	影	模	10
豫		午	疑古切	疑	姥	9
豫		五	疑古切	疑	姥	18
豫		乎	戶吳切	匣	模	12
豫		虍	荒烏切	曉	模	50
豫		壺	戶吳切	匣	模	1
豫		戶	矣古切	匣	姥	9
豫		互	胡誤切	匣	暮	3
豫		無	文甫切	明	麌	16
豫		毋	武扶切	明	虞	1
豫		巫	武扶切	明	虞	2
豫		父	扶雨切	並	麌	50
豫		武	文甫切	明	麌	3
豫		夫	甫無切	幫	虞	9
豫		麤	倉胡切	清	模	2
豫		初	楚居切	初	魚	1
豫		疋	所菹切	生	魚	18
豫		素	桑故切	心	暮	1
豫		圖	同都切	定	模	1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豫		土	他魯切	透	姥	5
豫		兔	湯故切	書	暮	3
豫		鹵	郎古切	來	姥	1
豫		夃	古乎切	見	模	1
豫		古	公户切	見	姥	46
豫		鼓	公戶切	見	姥	2
豫		兿	公戶切	見	姥	1
豫		蠱	公戶切	見	姥	1
豫		庫	苦故切	溪	暮	1
豫		普	滂古切	滂	姥	1
豫		步	薄故切	並	暮	3
豫		莫	謨故切	明	暮	22
豫		魚	語居切	疑	魚	8
豫		舁	以居切	以	魚	3
豫		于	羽居切	云	魚	38
豫		苯	互瓜切	匣	麻	1
豫		羽	王矩切	云	麌	5
豫		雨	王矩切	云	麌	2
豫		禹	王矩切	云	麌	9
豫		与	余呂切	以	語	16
豫		予	余呂切	以	語	11
豫		女	尼呂切	孃	語	23
豫		圉	魚舉切	疑	語	1
豫		車	九魚切	見	魚	1
豫		尻	九魚切	見	魚	1
豫		巨	其呂切	羣	語	11
豫		眼	九御切	見	語	23
豫		厶	去魚切	溪	魚	10
豫		宁	直呂切	澄	語	8
豫		鼠	書呂切	書	語	1
豫		處	昌與切	昌	魚	1
豫		且	子魚切	精	魚	48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豫		旅	力舉切	來	語	33
豫		呂	力舉切	來	語	5
豫		庶	商署切	書	御	12
豫		舍	始夜切	書	禡	28
豫		射	食夜切	船	禡	3
豫		牙	五家切	疑	麻	11
豫		亞	衣稼切	影	禡	8
豫		下	胡雅切	匣	馬	2
豫		夏	胡雅切	匣	馬	2
豫		襾	呼訝切	曉	禡	3
豫		叚	古雅切	見	馬	22
豫		斝	古雅切	見	馬	1
豫		乍	鉏稼切	崇	禡	15
豫		巴	伯家切	幫	麻	9
豫		馬	莫下切	明	馬	5
豫		瓜	古華切	見	麻	16
豫	澤	各	古洛切	見	鐸	37
豫	澤	嚳	古博切	見	鐸	7
豫	澤	虢	古伯切	見	陌	2
豫	澤	叡	呼各切	曉	鐸	1
豫	澤	霍	呼各切	曉	鐸	3
豫	澤	蒦	乙虢切	影	陌	13
豫	澤	霍	匹名切	滂	清	2
豫	澤	白	旁陌切	並	陌	11
豫	澤	百	博陌切	幫	陌	4
豫	澤	索	桑各切	心	鐸	2
豫	澤	若	而灼切	日	藥	5
豫	澤	叅	而灼切	日	藥	1
豫	澤	辵	丑略切	徹	藥	1
豫	澤	赤	昌石切	昌	昔	6
豫	澤	尺	昌石切	昌	昔	1
豫	澤	彳	丑亦切	徹	昔	1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豫	澤	乇	陟格切	知	鐸	12
豫	澤	炙	之石切	章	昔	2
豫	澤	隻	之石切	章	昔	1
豫	澤	昔	思夕切	心	昔	23
豫	澤	舄	七雀切	清	藥	3
豫	澤	夕	詳亦切	邪	昔	2
豫	澤	石	常隻切	常	昔	14
豫	澤	屹	宜綌切	疑	陌	17
豫	澤	亦	羊驛切	以	昔	6
豫	澤	睪	羊亦切	以	昔	16
豫	澤	谷	其逆切	羣	陌	10
豫	澤	㝵	起逆切	溪	陌	4
隨		戈	古禾切	見	戈	25
隨		果	古瑣切	見	果	14
隨		厄	五果切	疑	果	2
隨		丹	古瓦切	見	馬	14
隨		牛	苦瓦切	溪	馬	4
隨		它	託何切	透	歌	19
隨		多	得何切	端	歌	23
隨		朶	丁可切	知	哿	4
隨		妥	他可切	透	哿	2
隨		羅	魯何切	來	歌	2
隨		贏	郎可切	來	哿	10
隨		蓏	郎果切	來	果	1
隨		禾	戶戈切	匣	戈	5
隨		匸	虎何切	曉	歌	46
隨		臥	吾貨切	疑	過	1
隨		亠	臧可切	精	哿	23
隨		坐	徂臥切	從	過	11
隨		㒸	蘇可切	心	哿	5
隨		惢	蘇可切	心	哿	1
隨		沙	所加切	生	麻	4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隨		叉	初牙切	初	麻	2
隨		麻	莫遐切	明	麻	13
隨		加	古牙切	見	麻	9
隨		瓦	五寡切	疑	馬	1
隨		乜	呼罷切	曉	紙	8
隨		爲	薳垂切	云	支	36
隨		罷	薄瓦切	並	馬	4
隨		丞	是爲切	常	支	35
隨		吹	昌垂切	昌	支	3
隨		离	呂移切	來	支	8
隨		丽	郎寄切	來	寘	17
隨		詈	力議切	來	寘	1
隨		羈	居宜切	見	支	1
解		支	章攜切	章	齊	24
解		知	陟倪切	知	齊	6
解		卮	章攜切	章	齊	2
解		只	諸氏切	章	紙	12
解		豸	池觜切	澄	齊	2
解		斯	息攜切	心	齊	6
解		是	承紙切	常	紙	23
解		束	七賜切	清	寘	43
解		厂	余智切	以	寘	19
解		乙	弋支切	以	支	22
解		嶲	戶圭切	匣	齊	13
解		兮	胡醯切	匣	齊	2
解		醯	呼兮切	曉	齊	1
解		企	去智切	溪	寘	1
解		芈	綿婢切	明	紙	1
解		兒	汝攜切	日	齊	18
解		危	魚規切	疑	支	12
解		規	俱危切	見	支	5
解		圭	古攜切	見	齊	35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解		艹	工詭切	見	紙	2
解		乖	古危切	見	支	1
解		卑	賓倪切	幫	齊	33
解		厹	力詭切	來	紙	6
解		解	佳買切	見	蟹	6
解		買	莫蟹切	明	蟹	5
解		辰	匹卦切	滂	卦	7
解		畫	胡卦切	匣	卦	3
解		枺	匹卦切	滂	卦	1
解	益	易	羊益切	以	昔	18
解	益	覡	胡狄切	匣	錫	1
解	益	益	伊晳切	影	昔	11
解	益	饕	尼擊切	孃	錫	1
解	益	毄	古歷切	見	錫	15
解	益	秝	郎擊切	來	錫	7
解	益	鬲	郎擊切	來	錫	9
解	益	糸	莫狄切	明	錫	2
解	益	冖	莫狄切	明	錫	2
解	益	辟	毗益切	並	昔	23
解	益	析	先擊切	心	錫	4
解	益	脊	咨益切	精	昔	4
解	益	册	楚隔切	初	麥	3
解	益	役	營責切	以	麥	5
解	益	臭	古郟切	見	錫	4
履		敃	無非切	明	微	25
履		肥	符非切	並	微	5
履		尾	無匪切	明	尾	26
履		未	無沸切	明	未	9
履		飛	甫微切	幫	微	2
履		非	甫微切	幫	微	30
履		妃	芳非切	滂	微	2
履		口	羽非切	云	微	22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履		威	於非切	影	微	2
履		委	以水切	以	旨	15
履		尉	於胃切	影	未	6
履		畏	於胃切	影	未	9
履		胃	于貴切	云	未	11
履		位	于愧切	云	至	1
履		回	戶威切	匣	微	2
履		䝨	胡威切	匣	微	1
履		毅	許偉切	曉	尾	4
履		虫	許偉切	曉	尾	1
履		彗	祥帥切	邪	至	7
履		軎	胡貴切	匣	未	1
履		惠	胡貴切	匣	未	5
履		采	徐醉切	邪	至	1
履		衣	於稀切	影	微	8
履		月	於機切	影	微	1
履		伊	於脂切	影	脂	2
履		夷	以脂切	以	脂	10
履		匚	胡禮切	匣	薺	1
履		曳	余制切	以	祭	3
履		系	胡計切	匣	霽	15
履		禾	古奚切	見	齊	1
履		卟	吉伊切	見	脂	1
履		枅	古伊切	見	脂	5
履		几	居履切	見	旨	6
履		幾	居衣切	見	微	15
履		計	古詣切	見	霽	1
履		繼	古詣切	見	霽	3
履		气	去既切	溪	未	22
履		旡	居毅切	見	未	15
履		启	康禮切	溪	薺	6
履		棄	詰利切	溪	至	1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履		器	去計切	溪	霽	1
履		霓	虛器切	曉	至	1
履		脅	魚凡切	疑	凡	1
履		豕	魚旣切	疑	未	4
履		忍	魚旣切	疑	未	1
履		齊	徂雞切	從	齊	21
履		妻	七雞切	清	齊	7
履		屖	先稽切	心	齊	7
履		米	莫禮切	明	薺	13
履		氐	丁禮切	知	薺	25
履		弟	特計切	定	霽	12
履		豊	盧弟切	來	薺	7
履		戾	卽計切	精	霽	3
履		盭	郎計切	來	霽	1
履		利	力至切	來	至	11
履		匕	卑履切	幫	旨	81
履		閉	博計切	幫	霽	1
履		尜	毗霽切	並	霽	15
履		奰	乎秘切	匣	至	2
履		轡	兵媚切	幫	至	1
履		自	都回切	端	灰	10
履		對	都隊切	端	隊	4
履		靁	魯回切	來	灰	16
履		磊	落猥切	來	賄	1
履		耒	盧對切	來	隊	5
履		內	奴對切	泥	隊	27
履		枚	謨回切	明	灰	1
履		脅	美悲切	明	脂	6
履		美	母比切	明	旨	2
履		魁	密祕切	明	至	2
履		開	苦哀切	溪	咍	1
履		皆	古諧切	見	皆	14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履		夔	渠惟切	羣	脂	1
履		蕢	求位切	羣	至	19
履		凿	苦對切	溪	隊	2
履		隹	職追切	章	脂	39
履		揣	初委切	初	支	4
履		夂	楚巍切	初	微	2
履		綏	息遺切	心	脂	2
履		衰	所追切	生	脂	4
履		水	式癸切	書	旨	3
履		尸	式脂切	書	脂	5
履		豕	式視切	書	旨	23
履		矢	式視切	書	旨	17
履		癸	居誄切	見	旨	13
履		菡	-	-	-	1
履		示	神至切	船	至	9
履		厶	息夷切	心	脂	19
履		死	息姊切	心	旨	1
履		四	息利切	心	至	6
履		兕	徐邪切	邪	止	1
履		自	疾二切	從	至	13
履		黹	陟凡切	知	凡	14
履		夂	陟凡切	知	凡	1
履		至	脂利切	章	至	22
履		疐	陟利切	知	至	2
履		韦	卽履切	精	旨	12
履		爻	力几切	來	旨	1
履		尒	兒矢切	日	旨	15
履		二	而至切	日	至	23
履		火	呼燬切	曉	紙	2
履	日	質	之日切	章	質	4
履	日	出	尺律切	昌	術	37
履	日	屮	丑律切	徹	術	1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履	日	徹	丑律切	徹	術	2
履	日	耾	恥律切	徹	術	1
履	日	𪓐	直質切	澄	至	1
履	日	术	直律切	澄	術	11
履	日	旻	呼律切	曉	術	1
履	日	卒	臧没切	精	沒	23
履	日	率	所律切	生	術	5
履	日	由	敷勿切	滂	物	8
履	日	勿	文弗切	明	物	8
履	日	丿	旁密切	並	質	1
履	日	乀	分勿切	幫	物	2
履	日	弗	分勿切	幫	物	21
履	日	鬱	迂勿切	云	物	2
履	日	穴	胡血切	匣	屑	6
履	日	血	呼穴切	曉	屑	6
履	日	暗	於穴切	影	屑	1
履	日	聿	余律切	以	術	4
履	日	回	呼骨切	曉	沒	5
履	日	寍	火滑切	曉	沒	1
履	日	叟	莫突切	明	沒	4
履	日	骨	古忽切	見	沒	9
履	日	圣	苦骨切	溪	沒	3
履	日	兀	五勿切	疑	物	4
履	日	云	他骨切	透	沒	1
履	日	突	徒骨切	定	沒	1
履	日	栗	力質切	來	至	4
履	日	日	人質切	日	至	7
履	日	實	神質切	船	至	1
履	日	設	識律切	書	術	2
履	日	乙	於筆切	影	質	28
履	日	一	於膝切	影	質	1
履	日	抑	於律切	影	術	1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履	日	逸	夷質切	以	至	1
履	日	肖	許訖切	曉	迄	5
履	日	吉	居質切	見	至	28
履	日	桼	親吉切	清	質	7
履	日	七	親吉切	清	質	3
履	日	卩	子結切	精	屑	8
履	日	疒	女乞切	孃	麥	4
履	日	必	卑吉切	幫	質	27
履	日	畢	卑吉切	幫	質	12
履	日	匹	普吉切	滂	質	1
泰		大	徒蓋切	定	泰	11
泰		兌	杜外切	定	泰	20
泰		帶	當蓋切	端	泰	8
泰		貝	博蓋切	幫	泰	8
泰		會	黃外切	匣	泰	19
泰		卉	許衛切	曉	祭	3
泰		外	五會切	疑	泰	1
泰		衛	千歲切	清	祭	5
泰		叡	似兌切	邪	祭	3
泰		最	祖外切	精	泰	2
泰		贅	之銳切	章	祭	1
泰		毳	楚銳切	初	祭	6
泰		蕙	丑害切	徹	泰	13
泰		砅	力制切	來	祭	1
泰		丰	古拜切	見	怪	26
泰		夬	古邁切	見	夬	23
泰		巛	古外切	見	泰	1
泰		介	古拜切	見	怪	19
泰		盖	古太切	見	泰	1
泰		匄	古太切	見	泰	35
泰		摯	脂例切	章	祭	1
泰		鷙	脂例切	章	祭	1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泰		制	征例切	章	祭	2
泰		世	舒制切	書	祭	11
泰		筮	時制切	常	祭	3
泰		祭	子例切	精	祭	10
泰		彑	居例切	見	祭	6
泰		埶	魚祭切	疑	祭	11
泰		乂	魚肺切	疑	廢	6
泰		吠	符廢切	並	廢	1
泰		鬻	符廢切	並	廢	5
泰		竄	七外切	清	泰	1
泰	月	戌	辛列切	心	薛	14
泰	月	雪	相絶切	心	薛	1
泰	月	离	私列切	心	薛	1
泰	月	折	旨熱切	章	薛	12
泰	月	殺	陟劣切	知	薛	19
泰	月	絶	情雪切	從	薛	3
泰	月	劍	古薛切	見	薛	3
泰	月	孑	居列切	見	薛	2
泰	月	岌	魚列切	疑	薛	9
泰	月	陞	五薛切	疑	薛	1
泰	月	臬	五薛切	疑	薛	6
泰	月	桀	渠列切	羣	薛	2
泰	月	奇	五葛切	疑	曷	1
泰	月	歹	五割切	疑	曷	15
泰	月	劣	力輟切	來	祭	1
泰	月	孚	郎括切	來	末	9
泰	月	弼	旁滅切	並	薛	1
泰	月	別	皮列切	並	薛	1
泰	月	少	當割切	端	曷	1
泰	月	址	北末切	幫	末	10
泰	月	八	博拔切	幫	月	24
泰	月	犮	蒲撥切	並	末	21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泰	月	市	敷勿切	滂	物	1
泰	月	末	莫撥切	明	末	4
泰	月	苜	模孑切	明	薛	2
泰	月	奪	徒活切	定	末	1
泰	月	瘚	居月切	見	月	14
泰	月	亅	衢月切	羣	月	1
泰	月	乂	居月切	見	月	10
泰	月	氒	居月切	見	月	22
泰	月	月	魚厥切	疑	月	6
泰	月	粵	王伐切	云	月	1
泰	月	曰	王伐切	云	月	5
泰	月	乞	烏轄切	影	泰	3
泰	月	叡	烏括切	影	末	4
泰	月	敝	所劣切	生	薛	2
泰	月	舌	食列切	船	薛	2
泰	月	殺	所八切	生	鎋	4
泰	月	伐	房越切	並	月	12
泰	月	罰	房越切	並	月	1
泰	月	剌	盧達切	來	霽	12
乾		寒	胡安切	匣	寒	8
乾		安	烏寒切	影	寒	22
乾		萑	胡官切	匣	桓	2
乾		莧	胡官切	匣	桓	4
乾		丸	胡官切	匣	桓	6
乾		叩	況袁切	曉	元	20
乾		元	愚袁切	疑	元	25
乾		冤	於袁切	影	元	5
乾		夗	於阮切	影	阮	18
乾		亘	須緣切	心	仙	13
乾		暵	呼旰切	曉	翰	13
乾		厂	呼旱切	曉	旱	13
乾		反	符遠切	並	阮	11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乾		㫃	於顯切	影	銑	22
乾		虩	五閑切	疑	山	1
乾		焉	有乾切	云	仙	6
乾		衍	以淺切	以	獮	3
乾		燕	於見切	影	霰	5
乾		次	敘連切	邪	仙	4
乾		閑	戶閒切	匣	山	1
乾		𠬝	戶關切	匣	刪	1
乾		顯	呼淺切	曉	獮	2
乾		憲	許建切	曉	願	3
乾		縣	胡涓切	匣	先	2
乾		鬨	胡卷切	匣	仙	2
乾		妓	女還切	孃	刪	3
乾		宦	胡貫切	匣	桓	1
乾		幻	胡曼切	匣	桓	1
乾		虞	牛建切	疑	願	8
乾		原	愚袁切	疑	元	9
乾		邍	愚袁切	疑	元	1
乾		夐	況返切	曉	阮	1
乾		肰	如延切	日	仙	8
乾		戾	人善切	日	獮	4
乾		善	常衍切	常	線	7
乾		开	古延切	見	仙	29
乾		畫	去衍切	溪	線	3
乾		䍃	居倦切	見	線	4
乾		肩	古然切	見	仙	3
乾		閒	古閑切	見	山	15
乾		柬	古旱切	見	旱	15
乾		攀	居言切	見	元	1
乾		建	居箭切	見	線	5
乾		見	古面切	見	霰	11
乾		干	古寒切	見	寒	36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乾		辛	去乾切	溪	仙	4
乾		看	苦寒切	溪	寒	1
乾		侃	空旱切	溪	旱	3
乾		冒	烏緣切	影	仙	19
乾		官	古丸切	見	桓	14
乾		毋	古丸切	見	桓	5
乾		卵	盧管切	來	緩	3
乾		盥	古玩切	見	換	1
乾		耑	多官切	端	桓	38
乾		丹	都寒切	端	寒	2
乾		旦	得案切	端	翰	31
乾		短	都管切	端	緩	1
乾		彖	通貫切	透	桓	11
乾		華	北潘切	幫	桓	30
乾		般	北潘切	幫	桓	11
乾		半	博幔切	幫	換	12
乾		扶	薄旱切	並	旱	3
乾		滿	母官切	明	桓	9
乾		芇	母官切	明	桓	3
乾		曼	無販切	明	願	14
乾		采	蒲莧切	並	襇	44
乾		皀	皮變切	並	線	7
乾		宀	武延切	明	仙	1
乾		緜	米延切	明	仙	1
乾		㠯	米延切	明	仙	9
乾		面	彌箭切	明	線	7
乾		片	匹見切	滂	霰	1
乾		緣	附袁切	並	元	3
乾		煩	附袁切	並	元	2
乾		楙	附袁切	並	元	6
乾		丮	普般切	滂	桓	1
乾		奴	昨于切	從	魚	4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乾		殉	昨干切	從	寒	1
乾		贊	則旰切	精	虞	11
乾		柀	穌盱切	心	虞	6
乾		筭	穌貫切	心	桓	1
乾		算	穌貫切	心	桓	9
乾		祘	穌貫切	心	桓	2
乾		爨	七亂切	清	換	2
乾		彝	式連切	書	仙	5
乾		扇	式戰切	書	線	3
乾		山	所閒切	生	山	6
乾		刪	所姦切	生	寒	6
乾		弼	士戀切	崇	線	7
乾		頭	士戀切	崇	線	2
乾		叀	職緣切	章	仙	39
乾		玔	知衍切	知	線	5
乾		延	丑連切	徹	仙	13
乾		穿	昌緣切	昌	仙	1
乾		斷	徒玩切	定	換	3
乾		戔	昨干切	從	寒	20
乾		雋	徂偃切	從	阮	5
乾		泉	疾緣切	從	仙	2
乾		全	疾緣切	從	仙	10
乾		前	昨箋切	從	先	12
乾		薦	作綫切	精	線	3
乾		廛	直連切	澄	仙	3
乾		連	力延切	來	仙	7
乾		聯	力延切	來	仙	2
乾		䜌	呂圜切	來	刪	20
乾		鬻	郎段切	來	換	6
乾		蠶	相然切	心	仙	1
乾		尠	穌翦切	心	獮	1
乾		夐	朽眷切	曉	線	11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屯		文	無分切	明	文	12
屯		焚	附分切	並	文	1
屯		分	搛文切	幫	文	31
屯		𩫖	方問切	並	問	3
屯		奮	方問切	並	問	2
屯		熏	許云切	曉	文	6
屯		壼	於云切	影	文	1
屯		云	于分切	云	文	10
屯		允	余準切	以	準	26
屯		殷	於春切	影	諄	2
屯		𣪊	於謹切	影	隱	7
屯		乚	於謹切	影	隱	1
屯		君	舉云切	見	文	11
屯		軍	居云切	見	文	23
屯		困	去倫切	溪	諄	7
屯		斤	居欣切	見	欣	24
屯		所	語斤切	疑	欣	1
屯		筋	居欣切	見	欣	1
屯		巾	居銀切	見	眞	1
屯		堇	巨斤切	羣	欣	15
屯		屯	陟倫切	知	諄	18
屯		辰	植倫切	常	諄	20
屯		辜	常倫切	常	諄	19
屯		疢	丑刃切	徹	震	1
屯		寸	倉困切	清	慁	2
屯		尊	祖昆切	精	魂	11
屯		孫	思魂切	心	魂	5
屯		飧	思渾切	心	魂	1
屯		刃	而振切	日	眞	11
屯		盾	豎隱切	常	隱	7
屯		侖	力屯切	來	諄	12
屯		屍	徒魂切	定	魂	5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屯		豚	徒魂切	定	魂	2
屯		昆	古魂切	見	魂	7
屯		罶	古魂切	見	魂	4
屯		蚰	古魂切	見	魂	1
屯		困	苦悶切	溪	混	5
屯		衮	古本切	見	混	1
屯		昆	烏渾切	影	魂	12
屯		昏	呼昆切	曉	魂	14
屯		圂	胡困切	匣	慁	6
屯		門	莫奔切	明	魂	8
屯		奔	博昆切	幫	魂	16
屯		本	布刌切	幫	混	2
屯		艮	古根切	見	痕	18
屯		豚	伯貧切	幫	眞	4
屯		先	穌沿切	心	仙	10
屯		谷	以舛切	以	獮	4
屯		犬	苦舛切	溪	獮	3
屯		畎	古舛切	見	獮	1
屯		川	昌員切	昌	文	7
屯		舛	昌兖切	昌	獮	3
屯		耎	旨兖切	章	獮	6
屯		員	王川切	云	仙	15
屯		典	多腆切	端	銑	6
屯		㐱	之忍切	章	軫	3
屯		西	先巾切	心	眞	19
屯		頫	靡典切	明	銑	12
坤		眞	側鄰切	莊	眞	21
坤		㐱	之腎切	章	軫	13
坤		臣	植鄰切	常	眞	21
坤		塵	直珍切	澄	眞	1
坤		兩	直閏切	澄	震	7
坤		閏	如潤切	日	稕	3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坤		人	如鄰切	日	眞	9
坤		申	失眞切	書	眞	16
坤		辛	息鄰切	心	眞	10
坤		粲	所臻切	生	臻	1
坤		觧	息寅切	心	眞	2
坤		囟	息進切	心	震	4
坤		信	息晉切	心	震	1
坤		卂	息進切	心	震	6
坤		濬	私閏切	心	震	1
坤		隶	將鄰切	精	眞	10
坤		晉	卽潤切	精	稕	5
坤		秦	匠鄰切	從	眞	6
坤		旬	詳臻切	邪	臻	13
坤		勻	羊鄰切	以	眞	10
坤		寅	弋眞切	以	眞	8
坤		因	於真切	影	眞	9
坤		引	余矧切	以	軫	7
坤		廴	余腎切	以	軫	1
坤		尹	余軫切	以	軫	3
坤		印	於潤切	影	稕	1
坤		肙	羊晉切	以	震	1
坤		秋	魚寅切	疑	眞	3
坤		齊	語矜切	疑	蒸	1
坤		齔	初愁切	初	艅	1
坤		丨	古引切	見	軫	1
坤		壺	苦引切	溪	軫	1
坤		粦	良潤切	來	稕	12
坤		令	力鎮切	來	眞	19
坤		民	彌鄰切	明	眞	8
坤		朮	匹潤切	滂	稕	1
坤		瀕	皮眞切	並	眞	3
坤		便	旁賢切	並	先	5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坤		辩	旁演切	並	獮	8
坤		扁	補丐切	幫	泰	19
坤		丐	彌演切	明	獮	18
坤		田	待年切	定	先	5
坤		奠	堂麪切	定	霰	3
坤		天	他賢切	透	先	3
坤		虔	渠賢切	羣	先	4
坤		淵	烏茲切	端	之	4
坤		玄	胡淵切	匣	先	15
坤		衙	黃絢切	匣	霰	1
坤		轟	呼訇切	曉	先	1
鼎		靑	倉經切	清	青	18
鼎		晶	子盈切	精	清	1
鼎		井	子郢切	精	靜	9
鼎		爭	側莖切	莊	耕	13
鼎		生	所耕切	生	耕	15
鼎		省	所警切	生	梗	5
鼎		蚩	丑聘切	徹	勁	2
鼎		正	之盛切	章	清	11
鼎		熒	戶扃切	匣	青	23
鼎		盈	以成切	以	清	3
鼎		贏	以征切	以	清	3
鼎		賏	烏莖切	影	耕	10
鼎		幸	胡耿切	匣	耿	3
鼎		寧	奴丁切	泥	青	6
鼎		頃	去潁切	溪	靜	6
鼎		磬	苦定切	溪	徑	7
鼎		敬	居磬切	見	徑	7
鼎		冂	古熒切	見	青	24
鼎		炅	古迥切	見	迥	1
鼎		鳴	倉并切	明	清	1
鼎		名	眉并切	明	清	1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鼎		平	皮并切	並	清	10
鼎		并	府盈切	幫	清	23
鼎		甹	普丁切	滂	青	9
鼎		霝	郎丁切	來	青	12
鼎		丁	當經切	端	青	18
鼎		鼎	都挺切	端	青	6
鼎		壬	他鼎切	透	迥	55
壯		昜	與章切	以	陽	35
壯		羊	與章切	以	陽	17
壯		央	於長切	影	陽	17
壯		香	許良切	曉	陽	1
壯		皀	許良切	曉	陽	8
壯		享	許兩切	曉	養	1
壯		向	許諒切	曉	漾	29
壯		卬	五岡切	疑	唐	7
壯		𣪍	女岡切	孃	唐	23
壯		相	息良切	心	陽	5
壯		象	徐兩切	邪	養	6
壯		匠	疾諒切	從	漾	2
壯		桑	息郎切	心	唐	3
壯		爽	疏兩切	生	養	3
壯		上	時掌切	常	養	1
壯		章	諸良切	章	陽	11
壯		昌	尺良切	昌	陽	4
壯		鬯	丑諒切	徹	漾	1
壯		長	直良切	澄	陽	8
壯		丈	直兩切	澄	養	2
壯		爿	才良切	從	陽	26
壯		㔾	楚良切	初	陽	4
壯		倉	七岡切	清	唐	11
壯		爾	模朗切	明	蕩	3
壯		畺	居良切	見	陽	13

部	分部	母	반절	반절상자의 성모	반절하자의 운모	낱자 수
壯		光	古皇切	見	唐	24
壯		亞	居況切	見	漾	2
壯		圭	戶光切	匣	唐	17
壯		厓	烏光切	影	唐	1
壯		王	雨方切	云	陽	14
壯		亢	古郎切	見	唐	16
壯		亾	武方切	明	陽	43
壯		网	文紡切	明	養	6
壯		望	無放切	明	漾	3
壯		方	府良切	幫	陽	32
壯		匚	府良切	幫	陽	1
壯		网	良獎切	來	養	5
壯		兄	許彭切	曉	庚	3
壯		永	于憬切	云	梗	3
壯		囧	俱永切	見	梗	5
壯		皿	眉永切	明	梗	4
壯		黽	莫杏切	明	梗	3
壯		兵	補明切	幫	庚	1
壯		丙	兵永切	幫	梗	16
壯		秉	兵永切	幫	梗	1
壯		竝	蒲景切	並	梗	2
壯		彭	蒲庚切	並	庚	2
壯		行	戶庚切	匣	庚	5
壯		庚	古行切	見	唐	7
壯		羹	古行切	見	唐	1
壯		京	舉卿切	見	庚	14
壯		竟	居慶切	見	映	4
壯		詣	渠慶切	羣	映	2
壯		慶	起鏡切	溪	映	1

【中文摘要】

國立首爾大學 中文系
李在赫

本文的主旨爲分析清代朱駿聲所作《說文通訓定聲》的體例，並歸納朱氏所設想的上古音體系。

《說文通訓定聲》是將文字、訓詁、聲韻三個方面結合討論的綜合性著作。在說文學的脈絡下，《說文通訓定聲》參照許慎《說文解字》的本義解說，用大量資料揭示引申義、假藉義、別義，並按照古韻韻部對字頭進行重新排列。前人研究主要集中在“通訓”方面，對“定聲”方面的研究關注較少。而如朱氏在《自敘》所說，此書的重點在於聲韻學方面。因此，通過分析體例，本文希望理清朱氏的創作思路，進一步研究體例所反映的上古音體系。

《說文通訓定聲》的體例具有以下特點：一、《說文通訓定聲》以18個韻部重新排列了字頭，而未采用《說文解字》的540部；二、《說文通訓定聲》裏面相鄰的韻部之間具有“音轉”的關係，導致規範上不存在押韻關係的字之間亦可押韻；三、《說文通訓定聲》各韻部之內的字頭以共有同一聲旁的“母”排列在一起；四、《說文通訓定聲》中的各“母”有聲母類似者聚在一起的傾向。

通過體例分析可以歸納出以下事實：一、《說文通訓定聲》在入聲的處理方面處於當時古音學兩大派別的中間位置；二、《說文通訓定聲》沒有直接對應陰聲和陽聲，但是從各部的注釋之中可以歸納其對應關係；三、朱氏認爲知系聲母和章系聲母較爲接近，精系聲母和莊系聲母較爲接近，從學術史的觀點來看，這一點與錢大昕、黃侃的學說相關聯。

本文的研究成果在於補充《說文通訓定聲》研究在“定聲”方面上的不足，確定朱氏在上古音研究史當中的位置。

學　號：2017-22177

關鍵詞：《說文通訓定聲》、朱駿聲、體例、說文學、古音學、上古音